

논술 I

대입논술 경향에 따른 주제별 논술특강

장학자료 2005-608호

문제 파악 능력

깊이 있는 사고 능력

비판적 · 주체적 사고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의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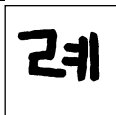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www.gen.go.kr>



일러두기

1. 본 자료는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문제 파악 능력, 깊이 있는 사고 능력, 비판적·주체적 사고 능력, 논리적 서술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2. 본 자료는 대학별 논술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별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3. 본 자료는 <논술의 이해>편을 통해 기초 실력을 다지고 <주제별 논술 특강>을 통해 심화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본 자료는 각 대학의 논술 고사 문제를 분석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논술 고사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5. 본 자료는 광주교육방송(<http://www.gedu.net>)에서 제작하는 '논술영상강의'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첨삭지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 O N T E N T S

일러두기

1. 논술의 이해

- 1강 논술이란 무엇인가 / 9
- 2강 논지 설정 / 22
- 3강 개요 작성하기 / 24
- 4강 단락 쓰기 / 28
- 5강 서론 쓰기 / 30
- 6강 본론 쓰기 / 37
- 7강 결론 쓰기 / 45
- 8강 논거 제시 / 50
- 9강 논의의 심화 및 확장 / 54
- 10강 채점 기준표의 활용 / 57
- 11강 요약하기 / 66
- 12강 어법 및 표현 I / 71
- 13강 어법 및 표현 II / 79
- 해답 / 84

2. 주제별 논술 특강

- 1강 개인과 사회 / 89
- 2강 현대 사회의 문제(인간 소외) / 109
- 3강 과학 기술의 발달과 생명 공학 / 126
- 4강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 147
- 5강 가치판단과 윤리 / 166

1. 논술의 이해

1강 논술이란 무엇인가

2강 논지 설정

3강 개요 작성하기

4강 단락 쓰기

5강 서론 쓰기

6강 본론 쓰기

7강 결론 쓰기

8강 논거 제시

9강 논의를 심화 및 확장

10강 채점 기준표의 활용

11강 요약하기

12강 어법 및 표현 I

13강 어법 및 표현 II

해답



강

논술이란 무엇인가

I

논술의 개념

1. 논술의 개념

논술은 자연이나 사회의 현상,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창의적·논리적으로 밝혀 진술하는 글쓰기의 한 형태이다. 논술은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글쓰기이다. 좋은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해결은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 빈틈없이 처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글쓰기의 원리에 따라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2. 논술은 논제를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다.

논술은 논제를 찾아내는 활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논제란 주어진 지시문과 제시문 속에서 논의를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사태를 비판적 안목으로 파악하여 다른 여건이나 상황과 연관지어 보는 과정을 통해 논의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3. 논술은 종합적인 사고 과정이다.

종합적 사고란 주어진 문제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여건과 상황(인간, 사회, 자연, 문화 등) 속에서 그 연관성을 파악하는 고등 사고 능력이다. 종합적 사고 능력의 바탕에는 어떠한 문제도 단독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처한 환경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 동기와 수단, 주원인과 부수적 원인, 문제에 미치는 외적인 영향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논술은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다.

논리적 사고란 논리적 절차와 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고 과정을 뜻한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지시문의 요구를 이해하고 제시문 내용을 참고하여 논제를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의 규칙과 논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논리의 개념, 다양한 추론의 방법, 언어 논리와 현실 논리의 차이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

5. 논술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문제 해결'이란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대처 행위를 뜻한다. 논술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어야 한다.

6. 논술은 글쓰기이다.

글쓰기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논술은 적절한 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야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글쓰기나 실용적인 글쓰기에 비하여 일관성과 명료성 등 논술에 적합한 문장 전개방식이 요구된다.

7. 논술은 창의적 사고력을 요구한다.

논술은 논리적인 글이어야 한다. 동시에 논술은 창의적인 글이어야 한다.

1) 통념을 버려야 한다.

논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굳이 묻지도 않았다. 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란 독특한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는 뜻이다.

2) 창의적 행동과 창의적 사고를 혼동하지 마라.

논술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논제를 끊임없이 뒤집어 보고, 펼쳐 보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훈련 속에서 가능하다. 흔히 에디슨이 알을 품은 일화를 예로 들지만, 이는 창의적 사고가 아닌 창의적 행동인 것이다.

3) 상투적이고 고답적인 표현 대신 신선한 감각의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상투적인 표현은 글을 고루하게 만든다.

4) 결국 논술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이미 있는 것(有, 배경 지식, 지시문, 제시문 등)에 자신의 생각을 의미 있게 덧붙이는 것이다.

8. 논술의 바탕은 배경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시문을 이해하고 지시문의 의도에 맞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충분한 배경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만 한다. 배경 지식은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 능력이 곧 요약 능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경 지식을 넓혀야 한다.

1) 폭넓은 독서가 가장 좋은 자산이다.

2) 그러나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독서만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매체 사회이다.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야말로 정보의 보고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TV 광고, 드라마, 뉴스에서부터 영화, 연극, 공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많고도 넓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하다. 다만,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배경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 각종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관심 있게 보자.

9. 비판적 사고야말로 논술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사고력이다.

비판적 사고란 부정적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생각할 거리 또는 쓸 거리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삶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의 사고를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논술에서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는 제시문이나 지시문 속에서 쓸 거리를 찾는 데서 시작한다. 이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주로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옳고 그름보다는 논리의 타당성, 논거의 적절성에 주목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이를 보완하여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논술에서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력이다.

10.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흔히 글쓰기 지도를 할 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쓰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생각의 전개를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이지, 일상 생활 속의 입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글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다. 더구나 논술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논술문에서는 지나친 감정 묘사나 잘못된 비유는 중대한 감점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글 속에서 사용해야 할 어휘를 생활 속에서 익혀두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어 사용 전반에 관한 지식 습득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어법에 대한 이해

- 표기법, 띄어쓰기, 표준어 등을 알아 두기
- 국어 문법에 관한 지식
- 잘못된 표현에 대한 점검 — 영어식(번역투) 문장, 일본식 어휘 또는 표현

2) 문어체적인 표현에 익숙해지기

- 구어체 표현을 의식적으로 문어체로
예) 엄청나게 → 매우
- 한자어에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다.

3)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기

- 평소 국어 사전을 늘 곁에 두고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11.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술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때론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지나쳐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접하는 정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스치듯 정리하게 마련이다. 가족과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일 수도 있으며, 혼자일 수도 있다. 이런 순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이 곧 논술 활동이다.

- 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발표, 보고서 작성 등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2) 모든 사실에는 이유가 있다. - 논리적 절차란 어떤 사실의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다. 친구와 얘기할 때, 가족과 얘기할 때 '왜?'를 좀더 많이 사용하자.
- 3) 어떤 것도 혼자인 것은 없다. - 전체 속에서 부분 찾기, 부분을 연결하여 전체 찾기
- 4) 평소에 바른 국어 생활을 하자.

12. 논술 작성의 순서

- | | | |
|----------------|--------------|----------------------|
| (1) 지시문의 논제 파악 | (2) 제시문 분석하기 | (3) 논점 확정 및 주제문 작성하기 |
| (4) 개요 작성 | (5) 글쓰기 | (6) 퇴고하기 |

대학에서 논술 시험에 주어지는 시간은 보통 120~150분(서울대 180분) 사이이다. 120분을 기준으로 할 때, 지시문 논제 파악과 제시문 분석에 30분, 개요 작성에 30분, 글쓰기와 퇴고에 60분을 할애하는 것이 적당하다.

논제 파악과 개요 작성을 무시하고, 문제만 대충 읽은 상태에서 글쓰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대부분의 논술문은 논지가 불분명하고 단락간의 유기적인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영화를 보면, 잘 만들어진 영화는 대부분 Pre-Production(사전기획) 과정이 충실하다. 준비 단계는 1년 정도 걸리는데 반해, 막상 영화를 촬영하는 시간은 두어 달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논술 역시 글쓰기 이전 단계가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그 완성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 지시문의 논제 파악

논술 문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시문(발문) – 논제(논술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다시 논의의 전제를 제시하는 부분과 논제를 직접 제시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 제시문(자료) – 고전, 사상서, 철학서, 문학작품 등에서 발췌한 글들(국문 혹은 영문)과 도표, 통계자료, 그림 등이 제시되는 부분이다.
- 유의사항 – 논술 작성 시 주의 사항이나 작성 요령을 지시하는 부분이다.

논술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시문의 논제를 파악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논술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의 수행 능력을 객관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술 문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 지시문의 논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학생이 쓰고 싶은 논제와 주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제를 해결하는 논술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시문은 지시문과 상호 연관성이 밀접하므로 두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논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유의사항은 글쓰기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글의 분량, 논증의 방법,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구성에서의 제한 조건 등을 알려준다.

2) 제시문 분석하기

많은 학생들은 제시문을 분석할 때, 두 가지 부분에서 고충을 토로한다.

첫째 제시문의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어 영역을 보면, 비문학(논설문) 분야의 제시문이 어려우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학 문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논술은 언어 영역과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이 어렵고, 제시문에서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독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이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만 제시문의 논의를 축소하여 논술문에 적용하곤 한다.

둘째 독해한 제시문을 실제 논술문 작성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입 논술 유형에 익숙해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즉 논술문을 많이 작성해 보면서 출제자가 제시문을 선택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제시문 독해는 따로 요령이 있을 수 없다. 꾸준한 독서와 사유를 통해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다.

3) 주제문 작성

지시문의 논제를 파악한 후에 제시문을 독해했으면, 다음에는 학생이 작성할 전체 글의 주제문을 설정해야 한다.

논술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문의 요구에만 집착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렇게 작성한 논술은 논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된다. '주제'는 글 전체를 통틀어 필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다. 따라서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주제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글쓰기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4) 개요 작성

전체 글의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설정한 후에는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논술문의 개요는 글 전체의 뼈대와 핵심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도와 같다. 우리가 어떤 조소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 미리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기 위해 뼈대를 세우는 일이 바로 개요작성이다.

즉 논제와 제시문 분석을 통해 주제를 설정하고, 설정한 주제와 연관한 소주제문들을 작성하여 '서론(처음) - 본론(중간) - 결론(끝)'에 맞도록 조직적으로 배치하는 글쓰기 계획표를 말한다.

5) 글쓰기

개요 작성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문을 작성해야 한다. 개요가 충실하게 짜여졌다면 글쓰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대학의 실제 논술 담당 교수들이 지적하고 있는 금기 사항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1) 생각 없는 논술은 안 된다

논술 시험장에서 대부분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문제지를 받자마자 바쁘게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몇 줄 써놓고 더 이상 쓸 말이 없어 자꾸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거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글이 전개되기 쉽다.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답안 작성과 관련해 제시된 전제는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2) 조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문제에서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어떤 것과 관련지어 예를 든 뒤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라고 요구했다면 반드시 논지를 뒷받침한 사례를 들어야 한다. '무엇'을 설명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또는 '왜'에 관해서만 서술한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3) 나열 및 동어 반복은 그만

채점자들이 싫어하는 답안 중에 하나는 첫째, 둘째 식으로 나열하는 서술 방식이나, 이미 제시된 내용을 말만 조금 바꾸어 장황하게 되풀이하는 것이다.

(4) 추측성 문장은 더욱 곤란

수험생들이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사례나 실험 결과 및 수치를 동원해 논리 비약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또 '~한 것 같다'는 추측성 문장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얼버무리는 식의 결론은 논리 비약 이상으로 감점 요인이 된다. 이와 함께 입장이 모호한 양비론(兩非論)적인 결말은 채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5) 군더더기를 피하라

논술 답안지의 대표적인 군더더기는 조사 '~의', 한자어 접미사 '~적(的)', '~들' 등이다.

6) 퇴고하기

모든 글은 반드시 퇴고 과정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완벽하게 논의를 전개해도 부분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논술문 작성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실수는 맞춤법 부분이다. 내용에 신경 쓰다 보니 띄어쓰기를 틀리거나,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논술문 작성 과정에서 마지막 10분은 반드시 비워 두었다가 <퇴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드시 교정 부호를 이용하여 원고를 정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므로 내용 자체의 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띄어쓰기를 비롯한 맞춤법 교정이나, 어색한 어구나 어휘 등을 수정하는 정도로 한다. <퇴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글은 <퇴고> 과정을 거친 글에 비해 형식상 요건에서 1~2점 정도 낮은 점수를 받는다. 논술 고사에서의 1~2점은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퇴고>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1) 퇴고의 3원칙

- 첨가의 원칙 : 미흡하거나 빠뜨린 부분을 첨가 · 보충하여 상세하게 표현한다.
- 삭제의 원칙 :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조잡한 부분 등을 삭제하여 간명하게 표현한다.
- 재구성의 원칙 : 글의 순서를 바꾸거나, 단어를 바꾸어 표현의 효과를 높인다.

II

논제 파악하기

1. 논제란 무엇인가.

논제란 논술에서 해결해야 할 포괄적인 과제이다. 논술 시험지를 받은 수험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논제'를 파악하는 일이다. 논제는 주로 지시문을 통해 수험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개략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발문의 형태로 제공된다.

2. 논제 파악하기

'논제 파악하기'란 문제를 읽고 문제의 요구 사항을 잘 포착하여 논술문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논제 파악은 논술의 실질적인 시작이면서 동시에 논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이 논술 시험지를 받으면 쓰기에 급급한 나머지 논제 파악을 소홀히 한다. 그 결과 출제와의 요구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논제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논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는 주로 문제가 요구하는 여러 사항들을 학생의 논술문이 충족시키고 있느냐 하는 데서 드러난다. 논술문 채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논제 파악'인 만큼, 일단 논제를 잘못 파악하면 합리성, 적절성은 물론 창의적인 논의도 어렵게 된다. 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논술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각 대학에서 발표한 채점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논술 채점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항목이다. 논제에서 벗어난 논술문은 아무리 독창적이고 훌륭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점수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3. 논제 파악의 과정

대학에서 출제되는 논술 문제들은 '지시문 + 제시문 + 유의사항'의 형태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논제는 대체로 '지시문' 부분에 포함되는 편이다. 지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논제를 파악하려면, 지시문을 읽고, 제시문을 통하여 그 의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각 대학의 논술 고사에서는 제시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지시문을 정확하게 읽어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제시문을 올바르게 독해하여 논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지시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시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시문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의 과제를 포괄적인 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시문을 여러 개의 세부 문장으로 나누어 보거나 몇 단계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의문문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2) 제시문 독해와 요약

제시문을 읽은 후 지시문이 요구한 바를 명료하게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는 지시문과 제시문의 상관성을 살피고 지시문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여 실제 논술문에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요 논점을 파악하자.

논제가 논술에서 해결해야 할 포괄적인 과제라면, 논점은 논제에 이르기 위해 논의해야 할 포함된 단계적·세부적 논의의 초점들이다. 따라서 주요 논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을 추려나가는 과정으로, 핵심 논점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할 논증

의 절차를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4. 논제 파악의 실제

1) 핵심 논제는 대부분 지시문의 마지막 문장 끝에 있다.

지시문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문장에 나타난다. 마지막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구하는 답을 찾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항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술의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에 정확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문장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2) 지시문과 유의사항의 제한 요소를 간과하지 말라.

제한 요소는 지시문의 내용을 통해 제시되거나 유의 사항을 통해 제시된다. 대학에 따라서 지시문에 바로 이어 표시하거나, 제시문의 끝에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단서나 유의 사항에 논의하지 말라거나 반드시 하라고 제한하는 내용들은 꼭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지시 사항을 어긴 것이 되어 감점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 깊게 문제를 대해야 한다.

3) 지시문의 지시어들에 유의하라.

지시어는 같은 표현의 반복(동어 반복)을 피하면서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윤활유와 같은 존재이다. 이것은 실제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논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논제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의 연결 고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 지시문을 통해 제시문의 활용 여부를 결정하라.

최근의 논술 문제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하거나, 그것을 비판·종합·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원하는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그 자료와 연계성을 가지면서 통일성 있게 기술할 수 없다. 이러한 제시문의 활용은 그 출제 의도와 질문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것은 '참고형 제시문'과 '활용형 제시문'이다. '참고형 제시문'의 질문 방식은 "제시문을 참고로 하여..."와 같은 진술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제시문의 내용은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뿐, 제시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제시문 활용형' 문제의 경우는 제시문에 대한 논평이나 내용 정리 등을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의 경우는 제시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논술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논거를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시문의 논제를 파악할 때 제시문의 활용 여부를 결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논제와 논점을 정리하여 개요 작성시 본론의 구성에 반드시 반영하라.

지시문의 논제를 분석한 후, 그것을 머리속에만 담아 두어서는 곤란하다. 실제 논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글쓰기에 몰두하게 되어 하나하나의 문장에만 신경 쓰고 정작 자신이 써야 할 전체적인 윤곽(즉 논제와 주요 논점)을 망각하기 쉽다. 따라서 자신이 파악한 논제를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논점으로 정리하여 개요 작성시 본론의 구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시문을 읽을 때 펜으로 번호를 매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신이 나눈 번호의 순서에 따라 본론의 단락을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5. 연습 문제

■ 2005학년도 서울대 모의 논술 고사

※ 다음 지시문과 제시문을 읽고 논제와 논점을 설정하시오.

【지시문】

[제시문 1]은 기계의 발달이 시장체계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시문 2]는 철도의 부설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켰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제시문의 논지를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계의 발전이 인간의 ①사회적 관계와 ②문화적 양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술하시오.

정교한 기계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대량의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래되지 못한다. 그것은 상품의 판매가 적절하게 보장되고 기계에 투입할 원료가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을 때에만 손실없이 작동될 수 있다. 상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모든 생산 요소가 구매 가능하다는 것, 즉 돈만 내면 얼마든지 이것들을 사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전문화된 기계를 이용한 생산은 자기 자금을 투입하는 상인의 관점에서나 수입·고용·공급을 지속적 생산에 의존하게 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나 상당한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농업사회라면 그러한 조건들이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창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비록 점진적으로 창조된다고 해도 거기에 포함된 놀랄 만한 변화의 본질은 여전히 같다. 이때의 변화는 사회 성원들의 행위 동기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생산의 동기가 이윤 동기로 대체되어야 한다. 모든 거래는 화폐거래로 바뀌고 또 교환의 매개체가 경제생활의 모든 마디 속에 끼어들 것을 요구한다. 모든 소득은 무엇인가의 판매

로부터 나오게 된다. <시장체계>라는 용어 속에는 이 말에서 느껴지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체계의 가장 놀라운 독특성은 일단 이것이 성립되면 외부 간섭없이 기능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익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상인은 그의 이익을 시장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가격은 스스로 규제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이 같은 시장의 자기조정적(self-regulating) 체계야말로 우리가 <시장체계>라는 용어로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전의 경제로부터 이러한 체계로의 전환은 지극히 완벽한 것이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기보다도 차라리 애벌레의 탈바꿈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여기에서 생산자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그는 판매를 위해서 구매자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 그는 단지 시장에 상품을 내놓으면 된다. 한편 그가 구매하는 것은 원료와 노동, 즉 자연과 인간이다. 이 역시 시장에서 얻을 뿐이다. 상업사회에서 기계제 생산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자연적·인간적 실체를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지나 노동 같은 것은 분명 상품이 아니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 이 두 가지에 관한 한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상품에 대한 경험적 정의를 따르자면 이것들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없고, 사람과 떼어 내어 동원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과 토지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과 토지가 거래되는 현실의 시장들은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을 얻어 조직된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구매되고 있으며, 그 수요와 공급은 현실에 존재하는 수량이다. 어떤 법령이나 정책이든 그러한 생산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체계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 허구는 사회 전체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조직 원리를 제공하는 셈이며, 이 원리를 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제시문 1】

증기기관에 의해 인간과 세계의 공간은 단축되었다. 철도의 출현으로 이질적인 공간은 균질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거리의 마찰이 극복됨으로써 각 지역의 고유성은 파괴되고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공간으로 흡수되었다. 철도가 이동하는 곳마다 도시들이 솟아났다. 철도는 인간의 공간지배력을 급속하게 넓혔다. 상품 유통이 촉진됨에 따라 자족적인 지역경제는 국민경제로 수렴되었다. 또 인간이 자연의 순환적 리듬에서 벗어나 인공의 기계적 리듬에 호흡을 맞추게 된 것도 철도 때문이었다. 철도는 인간에게 기계적 시간을 강제했다. 철도 시간표는 지역적 시간을 해체하고 통일적인 시간을 부여했다.

철도가 공간과 시간을 없앤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던 교통 기술이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느끼는 인지(認知)의 현실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철도가 만들어낸 공간-시간 관계는 과거 수송수단이 만들어냈던 공간 시간 관계에 비하면 추상적이고 방향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철도는 더 이상 이전의 마차와 길처럼 전경(前景)이라는 공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간을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이네는 전통적인 공간-시간 의식이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된 순간을 포착해 냈다. 1843년 파리에서 루앙과 오를레앙으로 가는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그는 <무시무시한 전율,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 혹은 전례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느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는 철도를 화약과 인쇄술 이래로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색채와 형태를 바꾸어놓은 숙명적 사건>이라고 불렀다.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직관 방식과 우리의 표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흔들리게 되었다. 철도를 통해서 공간은 살해당했다. 이제 사람들은 3시간 반 내에 오를레앙까지, 그리고 꼭 같은 시간 내에 루앙까지 여행한다. 이 노선들이 벨기에와 독일까지 연결되고 또 그곳의 철도들과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인가? 내게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산들과 숲들이 파리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미 독일 보리수의 향내를 맡고 있다. 내 집 문 앞에는 북해의 파도가 부서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변화가 지니는 두 가지 모순적인 계기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철도는 한편으로 이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들을 열어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일을, 그 사이의 공간을 없앴으로써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원시기술적인 수송에서는 완전히 감내해야만 했던 사이 공간 혹은 여행 공간이 기차 수송에서는 사라졌다. 기차는 단지 출발과 목적만을 안다. 1840년에 쓰여진 프랑스의 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철도는 단지 장소로 드러나는 출발, 정지 그리고 도착만을 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철도는 이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고, 거기에서 단지 쓸모없는 구경거리만 제공하는 그 사이 공간들과는 아무런 연관도 갖지 않는다.>

전통적인 여행 공간이었던 목적지들 사이의 공간이 사라지면서, 이 목적지들은 서로서로 접근하고 충돌도 한다. 이 목적지들은 과거의 '지금'과 '여기'를 잃어버렸다. 이런 것들은 공간의 사이 공간을 통해 규정되어 왔다. 그 안에서 장소들이 서로서로에게 공간적 거리를 생

【제시문 2】

1) 논제 :

2) 논점 1.

논점 2.

논점 3.

2 논지 설정

1. 논지 설정

1) 글 전체를 이끌어 나갈 중심축을 논지라 한다. 논제가 출제자에 의해 주어진 논술해야 할 과제라면, 논지는 수험생이 논제에 대해 쓰고자 하는 주제이다. 즉, 수험생이 논제에 대해 '나는 과연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참주제에 해당한다.

2) 논지 설정은 수험생이 논제에 대해 자신 있게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문제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자기의 주장, 또는 논의할 범위나 관점,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논제가 같더라도 관점에 따라 논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논지 설정에서 글 쓰는 이의 입장이나 태도가 결정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4) 논지 설정시 유의해야 할 점

- 논제와의 적절성 여부
- 글 쓰는 이의 능력 범위 안의 것이어야 한다.
- 충분한 배경 지식을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5) 논지를 설정하여 문장으로 서술한 것이 바로 주제문이다.

6) 주제문 작성의 방법

(1) 주제문은 일반적 · 보편적이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협동의 의미에 대해 논술하시오.'라는 논제를 가지고 주제문을 설정하는 경우, '현대 사회에서 협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라는 주제를 제시하는 학생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탓에 오히려 추상적인 의미만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논술문의 주제로 적당하지 않다. 반대로 '현대 사회에서 협동은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주제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협동은 자기반성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식으로 주제를 설정하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성격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2) 부정형, 절충형의 주제는 피해야 한다.

'인간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술하시오.'라는 논제의 경우, '사회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부정형의 주제를 설정하는 학생들이 많다. 부정형의 주제 설정은 해결 방안에 대한 학생의 견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는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는 상호발전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식의 절충형 주제 역시 많은데, 이 역시 주장의 명확성을 저해하므로 좋지 않다. '인간은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자기 발전을 꾀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2. 연습 문제

※ 다음 지시문과 제시문을 읽고 논지와 주제문을 설정하시오.

【지시문】

다음 글은 인류의 미래를 컴퓨터의 사용과 연관 지어 전망한 것이다. 다음 글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시오.

【제시문】

컴퓨터의 사용은 인류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컴퓨터의 사용으로 인해 세대 간의 단절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컴퓨터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사이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컴퓨터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의 인간 관계보다 통신을 통한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인간과의 교감보다는 기계와의 교감을 통해 세상을 익혀 간다. 하지만 그들이 기계를 통해 얻은 정보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정보가 아니라 불건전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가 많다. 컴퓨터가 더욱 많이 보급될수록 우리 사회는 비인간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점차 암울한 모습으로 변해 갈 것이다.

1) 논 지 :

2) 주제문 :

3. 개요 작성하기

1. 개요란 무엇인가

개요란 머릿속에서 짜 놓은 글의 내용과 조직을 구체적으로 종이에 옮겨 놓은 것으로, 집 짓기에서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실제 글쓰기에서는 구상하기와 개요 작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글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리된 자료들을 논리적 사고 과정에 따라 배열하고 줄거리를 엮어 개요를 작성한 후 다른 내용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글쓰기는 블록 쌓기다. 각각의 블록이 모여 작품이 이루어진다. 비행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 먼저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하고 (설계 개요 짜기) 날개, 조정석, 동체, 바퀴 등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개념을 잡은 후 블록을 조각들을 모아서 비행기를 만든다. 설계 과정 없이 블록 쌓기가 불가능하듯이, 글의 개요는 글의 흐름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2. 개요 작성의 필요성

1) 글 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필요한 내용을 빠트린다거나, 불필요한 내용의 첨가 및 중복을 피할 수 있다.

2) 글의 전체와 부분, 부분 상호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3) 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여, 주제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

3. 개요의 종류

1) 화제 개요 : 화제 형식으로 항목화하여 핵심 어구로 표현한 개요.
전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작성이 쉽다.

2) 문장 개요 : 각 항목의 소주제문을 중심으로 한 개요.
정확한 글의 전개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3) 문단 개요 : 각 단락의 중심 생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생각들을 적어 놓은 개요.
한 단락 및 단락 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4. 개요 작성의 실제

- 1) 주제와 주제문을 확정하여 기록한다.
- 2) 주제의 내용을 세분화 하고 항목화하여 표현한다.
- 3) 도입, 전개, 마무리 부분의 차례에 따라 개요를 작성한다.
 - ㉠ 도입 부분: 주의 환기, 과제 제시
 - ㉡ 전개 부분: 과제 분석, 대책
 - ㉢ 마무리 부분: 요약과 전망
- 4) 개요 작성하기는 '화제 개요'보다는 '문장 개요'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논술문을 두 번 작성하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하면서 실제로 글의 분량을 계산하며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개요 작성의 예

- 제 목 : 텔레비전
- 주제문 : 텔레비전은 어린이보다도 어른에게 해롭다.
- 개 요
 1. 서 론 : 어린이의 시청률은 낮다.
 - 1) 어린이는 시청 시간이 적다.
 - 2)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다.
 2. 본 론 : 어른의 시청률이 높다.
 - 1) 텔레비전 앞에서 여가를 보낸다.
 - 2) 타성으로 텔레비전을 본다.
 3. 결 론 : 텔레비전은 어른에게 해롭다.
 - 1) 어린이로부터 불신을 받는다.
 - 2) 건강에 좋지 않다.

6. 개요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1) 지시문이 요구하고 있는 논제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 2) 개요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3) 단락의 소주제는 항상 전체 글의 주제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4) 각 항목의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살펴야 한다.

- 5)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 6) 각 항목의 배열이 논리적이고 계층적인지 살핀다.
- 7) 서론의 논제(논술의 주제) 제시 방법, 제시문 활용 방법, 본론의 논증 방법, 예문의 종류와 제시 방법 등을 결정해 놓아야 한다.
- 8) 개요 작성에서부터 유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글을 쓰는 단계에서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
- 9) 평소에 글을 쓸 때 개요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인다. 개요를 잘 짜 놓으면 글은 다 쓴 것이나 다름없다.
- 10) 개요는 되도록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

7. 연습 문제

※ 다음 지시문과 제시문을 읽고 개요를 작성하시오.

【지시문】

다음 글을 참고하여, 문제점의 제시로 글을 시작하여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방법이 절대적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과학의 발달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제시문】

과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신에 대한 믿음까지 넘어설 정도가 되었다. 모든 논쟁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말 한 마디로 이론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결말지어짐은 물론, 성서의 내용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리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이제 과학적 믿음을 기반으로 신에 대한 믿음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과연 과학이 그만큼 절대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은 과학 철학자들이 답하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과학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내리고 있다.

주제문 :

--

I. 서론 :

Ⅱ. 본 론 :

Ⅲ. 결 론 :

<고쳐쓰기>

I. 서론 :

Ⅱ. 본 론 :

Ⅲ. 결 론 :

4장 단락 쓰기

1. 단락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의 집합체로서, 중심 생각을 진술한 소주제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진다. 문단이라고도 한다.

2. 단락 쓰기의 필요성

- 1) 직접 논술문을 쓰기 위한 예비 단계로 요약문을 작성할 때 필요하다.
- 2) 제시문을 읽으면서 각 단락마다 주제문, 뒷받침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 3) 단락의 구성 요소(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를 염두에 두고 단락 쓰기를 연습하다 보면 글의 논리적 전개를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다.

3. 단락의 구성 원리 이해

- 1) 완결성 :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통일성 :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통일된 생각을 나타내야 한다. 단락의 소주제는 반드시 하나로, 주제가 달라지면 단락도 달라진다.
- 3) 일관성 :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시어나 접속어를 사용하여 문장들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 4) 예시 - 다음 단락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자.

현대인은 숫자의 홍수 속에서 태어난다. 태어나면서부터 열세 자리의 주민 등록 번호를 갖게 되고, 일곱 자리의 전화 번호 몇 개는 암기하고 있어야 하며, 네 자리의 통장 비밀번호는 잊지 말아야 한다. 숫자는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한 번 가 보았던 친구의 아파트 동 호수를 기억해 내기란 쉽지 않다. 단독 주택지이면 골목의 특징이나 대문의 모습이 떠올라 번지와 호수를 몰라도 찾아갈 수 있으면, 아파트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글은 단락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단락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 소주제문 : 현대인은 숫자의 홍수 속에서 지낸다.
- 뒷받침문장 : 태어나면서부터 열세 자리의 주민 등록 번호를 갖게 되고, 일곱 자리의 전화 번호 몇 개는 암기하고 있어야 하며, 네 자리의 통장 비밀번호는 잊지 말아야 한다.

- 소주제문 : 숫자는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 뒷받침문장 : 한 번 가 보았던 친구의 아파트 동 호수를 기억해 내기란 쉽지 않다. 단독 주택지이면 골목의 특징이나 대문의 모습이 떠올라 번지와 호수를 몰라도 찾아갈 수 있
 런만, 아파트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논지 : 바람직한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유기체적인 관계이다.

논거1 : 사회를 우선하는 관점은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논거2 : 개인을 우선하는 관점은 질서 파괴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논거3 : 이 세상의 모든 존재적 실체는 개별적으로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개별적 존재와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전체를 이루고 있다.

[illegible]

5강 서론 쓰기

1. 서론은 글의 첫인상이다.

첫인상에 따라 호감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비단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글의 서두 몇 문장에 따라 읽고 싶은 글이 되기도 하고 그저 그런 글로 읽히기도 한다. 물론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서론이 채점자의 심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로 하자.

2. 시작이 반이다.

문제지를 통해 논제를 파악하고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글의 전단계라면 서론은 본격적인 글쓰기의 출발점이다. 개요 쓰기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론만 깔끔하게 잘 쓴다면 한 편의 글은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3. 욕심을 버려라.

그런데 개요를 성공적으로 짰다 하더라도 막상 글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 학생들은 상당 시간을 망설인다. 실제로 학생들이 논술문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마 서론 쓰기일 것이다. 너무 잘 쓰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론을 멋있게 쓰려 하다보면 글의 시작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거창하고 장황하게 되어 좋은 서론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

4. 서론에는 주위 환기(논의의 배경), 화제 제시, 문제 제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서론을 잘 쓰기 위해서는 문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서론의 구성 요소들을 고려하여 글의 전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론 부분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그 글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시키며, 앞으로 전개될 내용 즉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게 된다.

서론은 일반적으로 대개 논의의 배경, 구체화, 문제 제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론은 본문에 앞서 독자가 읽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서론의 핵심은 '문제 제기'라 하겠다.

5. 서론의 구성 원리

1) 주의 환기 (논의의 배경 - 글의 첫 머리)

주의 환기란 말 그대로 글을 읽는 독자가 자연스럽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독자와 필자를 연결해주는 이음새이다. 일반적으로 주의환기는 주제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어 주는 것이 좋다. 가령, 우리가 친구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약속 장소에 친구가 나타나자마다 다짜고짜 용건을 말한다면 친구의 표정이 좋을 리 없다. 친구에게 부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반겨주고 근황을 묻고 그 친구가 자신과의 대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쓰기에서도 주의 환기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 다음을 보도록 하자.

보기1) - 제시 논제

다음의 두 글은 인간과 동물의 본래적 지위에 관해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두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002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정시 문제)

문제에 사용된 제시문은 현대 미국의 철학자 레이건(Tom Regan)의 「동물 옹호론」과 독일 철학자 칸트의 「추측해본 인류 역사의 기원」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시문 (가)는 동물도 인간과 같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과 동일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시문 (나)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한 다음의 서론도립 문장을 보도록 하자.

보기2) - 학생 논술문

① 제시문 (가)에서처럼 권리를 인간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동물의 생명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만일 동물의 그러한 본래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인간 역시 타 생명체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서론의 경우 ①에서 보여지듯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부각시켜 제시하면서 논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자칫 글을 읽는 독자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적절한 주의환기를 위해서는 이 제시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지위나 동물의 지위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보편적인 생명의 문제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대우 같은 사례를 지적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서론을 작성할 때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가 독창적인 서론의 도입이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말에 대해 약간의 오해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독창적', '창의적'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의미를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독창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창성이란 '지나치게 보편적이지 않은', 그리고 '주제를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무난한' 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아래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보기3) - 제시 문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 간 소득과 재산, 기업의 우열, 지역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사회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보기4) - 학생 논술문

경제학 가설 중 20대 20이라는 가설이 있다. 인구의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가 부의 20%를 갖는다는 뜻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②의 가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MF이후 이 양상은 10대 90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10%의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인구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중산층은 90%의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의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이 학생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20 : 80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서론의 도입을 통해 20 : 80의 법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며 독자를 자연스럽게 논의로 이끌게 된다. 자연스러운 소통 공간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인간의 사회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학생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교과 과정에서 배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정의이다. 그러나 이 정의를 덜컥 사용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의 답안이千篇일률적이 되기 십상이다.

여기에 '창의적'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서론의 도입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화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독자를 본격적인 논의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무난한 문장을 의미한다.

2) 구체화 하기

도입을 통해 말머리를 이끌어 냈다면 이제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보기4)의 경우 ②가 구체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0 : 80이라는 경제 원리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시킨 후 그것을 다시 우리 사회의 모습과 연관시켜 제시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을 원리적인 문제에서 우리 현실의 문제로 적용시킨 것이다.

3) 문제 제기

서론의 마지막에서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 제기는 전체 글의 논의전개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자신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 예를 살펴 보도록 하자.

보기5)

과거의 사람들은 주로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공훈을 세웠거나 놀라운 발견을 한 사람들을 영웅이라 생각하고 존경심을 표하였다. 반면 현대에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문제 해결에 몸소 나서는 모든 사람이 영웅 대접을 받는다.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흥기를 휘두르는 강도에 대항하여 싸운 은행 여직원이나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김밥 장사로 모은 돈을 고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증한 할머니도 오늘날의 영웅인 것이다. ③ 이처럼 영웅관이 달라진 우리 시대에 진정한 영웅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 글은 현대적 의미의 영웅에 관한 논제에 대해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학생들이 문제 제기 부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문장의 형태는 ③과 같은 의문, 청유, 의지형의 문장 형태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의문(~하는가?), 청유(~해보도록 하자), 의지(~해보겠다)와 같은 문장은 가급적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런 문장을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전체 맥락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체적인 방향을 짚어주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이러한 형식적인 문제 제기를 만든다.

그러나 ③의 경우 삭제해도 앞으로의 논의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앞부분에서 충분히 전체 글의 방향성을 짚어준 상태이므로 그것으로 자연스러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래도 무언가 허전함이 남는다면 밑줄 친 문장은 논제가 요구하는 바와 본론에서 전개 할 논의점이 암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에 따르면 영웅관이 달라진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의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6. 서론의 유형

1) 논의하려는 주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시작하기(문제 제기로 시작하기)

가장 많이 쓰이는 서론 유형으로, 서론 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무난한 글을 만들 수 있다. 반면에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글이 되기를 어렵다.

예) 인간이 동물로서 이처럼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극복하고 고등 동물이 된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2) 결론을 미리 제시하며 시작하기

글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찬·반 토론형의 논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 정부의 일본 대중 문화 수입 개방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3) 비판으로 시작하기

반대 견해나 관습, 사회 통념 등을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방식으로 논쟁적인 논술문을 작성할 때 효과적이다.

예) 한국인이 중시하는 정이란 결코 이기주의가 아닌 배움을 본질적 가치로 하는 이타주의적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온정주의는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4) 개념 정의로 시작하기

논의해야 할 주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논의 대상의 개념이 어렵거나, 개념 정의에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경우 효과적이다.

예) 가치관이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고나 판단, 행동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과 방향과 목표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바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5) 인용을 통해 시작하기

속담, 고사 성어, 우화, 명언 등을 주제와 관련지어 시작하는 방식으로 자칫 진부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간이 사회 안에서 다양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결과 끊임없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7. 서론 쓰기의 실제

1) 글의 첫 문장을 쉽게 시작하면 글이 잘 풀린다.

① 두 가지 사물의 비교나 대조로 시작한다.

예) 옛날 교육은 곧 가정교육을 뜻했다. 교육하는 장소가 가정이란 뜻이 아니라 교육하는 정신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가정 중심이었다는 뜻이다.

② 역사적 사건이나 고사(故事)로 시작한다.

예) 중국 춘추 전국 시대나 우리 삼국 시대의 고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가장 흥할 때 통치자와 지배층이 사치와 향락으로 방종하고,

③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하거나 이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예)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각지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자력의 발전의 장점이 위험성보다 크다.

2) 개요 작성 시 서론을 세 문장만으로 구성해 보자.

'주의 환기 - 구체화 - 문제 제기'의 구성을 하면 서론이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삼단논법의 형식을 따른 구성 방법인데, 효과적인 문제 제기에 도움이 된다. 세 문장이 좀 길게 진술되었다면 200자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글쓰기에 들어갔을 때, 개요에서 작성한 서론을 그대로 옮겨 놓아도 상관없다. 만약 분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로 연결 문장을 넣어 구성하면 된다.

3) 서론의 핵심은 문제 제기이다.

"문제제기"란 출제자에게 있어서는 문제를 출제하게 된 이유이고, 논술문을 작성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곧 글을 쓰는 이유이다. 우리가 왜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지,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면 글 전체의 핵심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논술할 것을 요구하는 논제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협동의 진정한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로 문제 제기이며, 서론은 이 내용이 부각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 서론을 작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

(1) 서론은 가급적 짧게 쓴다.

현실 상황을 언급할 때는 가능하면 세 문장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서론>에서 문장이 길어지면 논의가 산만해지고 핵심 사항을 놓칠 소지가 있다. 가능하면 핵심적인 것만을 언급하여 명료성을 높여 주는 논의가 좋다.

(2) 논술문의 문장은 평서문으로 하되 논리적인 어조가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문제 제기 부분(3단계)에서 의문형(~은 어떨까?)이나 청유형(~해보자.) 의지형(~해보겠다.)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한다. 세련되지 못한 논의 전개이며, 자신이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서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서론 말미의 상투적인 표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은 삼간다.

(4) 진부한 인생론이나 격언을 꺼내거나 구구한 개인적 변명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예) 이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나,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한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성의껏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5) 사전이나 권위자의 말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인상을 풍기는 것도 좋지 않다.

예)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들으니, 세계화를 이룩하지 못하면, 다가올 21세기에 세계 열강국과 발맞추어 나가지도 못하고, 곧 낙후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나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다.

8. 연습 문제

1) " 고교 내신 등급제 허용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는 글의 서론을 써 보시오.

<고쳐쓰기>

6

본론 쓰기

1. 본론은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성 단계이다.

서론의 역할이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전체 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본론은 자신의 논리적인 문장 진술을 통해 주장을 굳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타당하게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본론인 것이다.

2. 본론은 전체 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통 서론과 본론, 결론의 비율은 1:3:1일 때 가장 안정적인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비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쓰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누어질 수 있다.

3. 단락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단락은 사고의 흐름이므로 단락의 구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나 반대로 단락의 구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만한 인상을 준다. 요구하는 글의 분량에 따라 단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개 1,000자 미만의 경우는 본론의 단락의 한두 개일 때, 1,200~1,600자의 경우 두세 개의 본론일 때 그리고 1,800자 이상의 경우는 서너 개의 단락으로 구성될 때 가장 안정적인 인상을 주게 된다.

또 단락의 개수는 논제의 요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말하자면 본론의 논의는 지시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서론이 제시한 논제의 방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락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4.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논거 제시이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있는 것은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주장의 논증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의 주장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타당하게 입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논술의 핵심인 셈이다.

5. 본론의 일반적인 내용

- 1) 제기된 문제를 분석하여 주제를 전개시킨다.
- 2)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한다.

3) 자신과 대립되는 견해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과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6. 본론 전개 유형

1) 찬반형 전개

어떤 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입장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선택하여 상대 주장을 비판하고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 가는 형식

(1) 전개 방식

- 상대 주장 및 논거 제시 → 상대 주장에 대한 비판 → 자기 주장 및 논거 제시
- 자기 주장 및 논거 제시 → 상대 주장 및 논거 제시 →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2) 흑백 논리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반된 두 개의 입장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3) 양시론도 안 된다.

상대 주장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되, 그 본질적 측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4) 양비론도 안 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상대의 반박을 예상하고 자신의 주장이 지닌 한계와 부정적 측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변론할 수 있어야 한다.

(5) 단순 나열식의 주장도 부적절하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해야 한다.

2) 문제 해결형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1) 전개 방식 : 문제 상황 분석 →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제시

(2) 주어진 문제 상황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3) 해결 방안은 원인과 문제 상황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4) 일반적 해결 방안 제시 후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덧붙이는 것이 좋다.

7. 논제 파악을 통한 본론 구성

【지시문】

- ① 흔히 경쟁을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경쟁이 사회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 ② 다음 글들을 참고하거나 비판하면서
- ③ 무분별한 경쟁의 문제점과
- ④ 원인은 무엇인지 논술해 보자.

【개요 짜기 사례】

서론	경쟁은 자기 발전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삶의 의미를 잃거나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론	<p>1. 무분별한 경쟁의 문제점</p> <p>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고, 패배의식이나 우월 의식에 사로잡힌 개인을 만들고 정당한 삶의 원칙보다는 단순하고 손쉬운 요령이나 편법에 가득 찬 사회를 만든다.</p> <p>② 비인간적인 노동에 시달리게끔 하고, 참된 관계를 막아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도 한다.</p> <p>③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회 질서를 유린하는 원인이 된다.</p> <p>2. 무분별한 경쟁의 원인</p> <p>① 인간 사회의 무원칙성으로부터 발생한다.</p> <p>② 자연스러운 생체리듬과 여유를 잃고 일을 통한 욕망충족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습성으로부터 발생한다.</p> <p>③ 비판(제시문 (다)) : 많은 바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원이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회 정의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보장 받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당한 구조가 사회 속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p>
결론	무분별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유롭지만 정당한 경쟁이 실현될 수 있는 합리적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무분별한 경쟁을 없앨 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개요는 지시문의 네 가지 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①은 전체 글의 전체에 해당하므로, 서론이나 본론에서 그 전체를 간략히 밝혀주면 된다.

지시문의 첫 문장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글의 방향을 잘 잡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차라리 힌트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런 힌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 경쟁의 양면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경쟁 자체보다는 경쟁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더 문제시하라는 일종의 암시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왜 무분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②는 제시문 활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개 논술문에는 '다음 글을 참조하여'라고 하거나 '다음 글을 토대로 하여'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이 중 '토대로 하여'는 더 강한 요구이다. 제시문을 토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 안의 내용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비한다면 '참조하여'는 그리 강한 지시가 아니다. 제시문의 내용과 그 밖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논술하라는 것이다. 또 '비판하라'고 했을 때에는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미와 한계)과 함께 적절한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정당한 입장으로 종합해야 한다.

다음 ③과 ④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제시문의 내용 독해를 통해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개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원인에 대한 논술'을 요구하고 있는 ④의 부분이다. 지시문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지시문을 접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문제점과 원인만을 서술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논술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글이기 때문에 지시문의 과제만을 나열식으로 수행하면 절대 안 된다. 위의 개요는 결론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해결방안)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다른 예를 살펴보자.

다음 ① 제시문에서 저자가 비판하고 있는 현대인의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 밝히고, ② 이러한 행동 양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③ 이로 인한 인간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술하라.

이 문제는 <본론>을 세 개 단락으로 구분하여 <본론1>에서는 '제시문에서 저자가 비판하고 있는 현대인의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 정리'해 준다. <본론2>에서는 '이러한 행동 양식이 생겨난 원인'에 대해 논의해 준다. <본론3>에서는 '인간 소외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면 된다. 물론 1,200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는 짧은 논술문에서는 <본론3>의 내용을 <결론>으로 삼아도 된다. 그럴 때는 <본론>이 두 개의 단락이 된다.

8. 제시문을 통한 논의의 범위 설정

상당수의 학생들이 주어진 논제에서 벗어난 논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시문 독해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논술 고사 출제 범위가 동서양 고전(현대적인 저작 포함)으로 정해지면서 제시문 독해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대부분의 고전 논술 논제들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제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쓰라는 것,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논술자 자신의 생각을 쓰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내용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그러나 제시문 내용을 언급한다고 해서 장황하게 써서는 안 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제시문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

<제시문을 명료하게 요약하는 방법>

구분	주요내용	학생의 글
1단계	제시문의 의미 제시	<나>글은 자유의 존귀함을 알게 하는 교육을 하자는 입장이다.
2단계	제시문 내용의 요약, 정리 (가능하면 길지 않게)	즉 <나>글의 저자는 아이들이 자유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단념, 용서, 인내를 학습하며, 자립과 화합에 이른다고 보았다. 절대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올바르게 배우는 바람직한 길임을 강조하였다.
3단계	1단계의 의미 확인	따라서 전적으로 자유를 부여하는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문 제>

문화의 광의적 해석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다. 세계사를 들추어보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전통과 문화가 각 나라, 각 부족마다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① 제시문 (가)를 참고로 하여 '문화'에 대해 정의하고, 제시문 (나)의 상황에 이르게 된 역사·문화적 근원을 추적하라.

이 문제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시켜 해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문화는 '자기'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그 문화를 이루어낸 사회 자체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①에 근거하여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학생의 개요 – 지시문의 요구에 따른 본론 구성의 예

구분	지시문의 요구사항	구체적인 내용
본론1	제시문 분석과 '문화'의 정의	제시문 (가)는 문화상대주의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 문화의 생성 원리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론2	(나)의 상황에 이르게 된 역사 · 문화적 근원	문화는 지역적 ·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제시문 (나)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유배 온 양반의 자손이라는 우월의식이 만들어 낸 문화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론3	구체적인 사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개고기 문화'는 우리 문화에서 당연히 되었던 '가축'의 개념과 문화 수용과 정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한 '애완'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여 논의를 구체화한다면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제의 요구사항 또한 만족시킬 수 있다.

● 학생의 글 – 지시문의 요구에 따른 본론 구성의 예

① 가끔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곤 한다. ②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객체로서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그 문화가 생성된 곳의 지형과 기후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문화중심적 사고는 문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지는 사고이다.

이 학생의 경우 개고기 문화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①과 ②사이의 유기성이 결여된 상태다. 개고기 문화를 예로 들었으므로 그 문화의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를 밝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개고기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이며 그 입장의 차이는 '애완'과 '가축'의 개념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밝혀야만 그것을 문화상대주의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공간을 할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례는 논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일 뿐 논의 자체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 제시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학생 자신의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기 마련이며 장황한 글이 되기 쉽다.

9. 본론 쓰기의 실제

1) 서론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서술해야 한다.(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펼쳐지는 단락이 바로 본론이다.)

<본론>은 글의 핵심으로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다. 즉, <서론>에서 제시한 논제에 대한 주제 문장을 명확하게 체제하고, 주제

문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정당성을 진술하는 부분이다. <본론>은 자신의 견해나 주장, 관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곳으로, 논술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자칫 전체 논술문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각 문단은 서론에서 제시한 논제에 입각하여 하나의 중심 생각만으로 충실하게 구성해야 한다.

2) 미리 작성된 개요를 준수하여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단락은 일관된 논리적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 전체 논술을 일관성이 있는 논지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과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논지의 발전과 전개, 전환과 보충, 강조와 요약 등을 변화 있게 하여, 모든 문단이 일정한 맥락을 이루면서 결론에 이르도록 배열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논제에서 어긋난 것은 가치가 없게 된다.

3) 타당하고 객관적이면서 충분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4) 분석적 열거나 비교, 대조 등의 방법으로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단편적인 주제문에만 집착하여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는 동어반복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5) 접속어나 지시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글의 접속어와 지시어는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에 긴밀성을 부여하고 통합성을 높여 준다.

6) 결론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10. 연습 문제

1) 다음 글에 이어질 본론을 서술하시오.

우리 사회가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서구의 많은 문물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생활에 스며들었다. 그 결과, 우리의 좋은 전통과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글도 마찬가지 처지이다.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여러 간판 중에서 순수한 한글의 음과 뜻으로 된 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을 잘 모르고 경시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한글의 문자로서의 특징과 장단점을 아는 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본론 쓰기: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ypical of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고쳐쓰기>

[illegible]

7

장 결론 쓰기

1. 결론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곳이다.

결론은 자신의 변화된 인식을 확연히 보여주는 곳이다. 또 결론은 지금까지 이어온 논증 과정이 귀결되는 곳이다.

2.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결론>은 논의를 종합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곳이다. 따라서 <결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글의 완결성과 완성도가 달라지게 된다. 최근 논술문의 경향은 <서론>과 <결론>의 역할이 증대하는 만큼 효과적인 <결론> 쓰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채점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물론이다.

3. 결론의 일반적 내용

- 1) 논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 2) 필자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부여
- 3) 독자의 관계 형성 - 공감대 형성, 행동 변화 촉구
- 4) 서론과 본론의 내용 종합 및 요약
- 5) 앞으로의 전망과 새로운 과제 제시

4. 결론의 구성 방법

- 1)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장 제시

논제와 관련된 주요 소재 또는 논증 과정의 핵심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문장을 작성하고 이를 결론의 첫 문장으로 삼는다. 이때 '이러므로', '따라서' 등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본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본론의 논지를 요약한다.

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논지를 압축적이고 명료하게 요약해야 한다. 또한 중심 내용과 부수적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3) 주제문을 작성한다.

논술문에서 주제문이란 주어진 논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다. 서론의 문제 제기, 본론의 논증 등 이제까지의 모든 진술은 이 주제문이 타당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이다. 그런 만큼 평가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 주제문을 작성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논제에 부합해야 한다.
- ② 자신의 견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 ③ 구체적이고 참신해야 한다.

4) 앞으로의 전망과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남겨진 과제나 발전적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글쓴이의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것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5. 결론 작성의 방법

1) 결론 작성의 방법 I

효율적으로 <결론>을 구성하는 방법은 <본론> 논의를 종합한 것에 + 를 부여하는 것이다. 동일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논의이라고 하더라도 <본론>에서 논의한 것에 추가적인 내용을 부여하여 <결론>에서 언급하면 상당한 의미 확대를 이룰 수 있다.

이때 추가 내용으로 어떠한 것을 논의해야 하는가에서 막연해질 것이다. <본론> 논의를 종합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내용을 논의하였다면, 이 내용에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전망, 필요성, 의의'등을 적용시켜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논의하면 된다.

(예) 1. (대중 문화와 관련된 문제)

<본론> 논의를종합하고, 주제를 강조한 부분	대중문화는 그 사회의 현실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기준)가 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그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향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질적 수준은 그 사회의 문화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발전시켜 제대로 향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α 추가 부분 (전망을 선택)	21세기는 문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점차 커지고 있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은 이러한 예측을 사실화시켜 줄 것이다. 따라서 대중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올바르게 살린다면 대중 문화의 질적 향상과 동질감 확보로 인한 사회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쓰기 방법은 형식적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했다.

2) 결론 작성의 방법 2

<결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논제 가운데 한 가지를 <결론>에서 논의해 주는 것이다.

가령 문제에서 '무엇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원인을 찾은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졌다면, <본론>에서 두 단락에 걸쳐 문제점과 원인을 논의하고, <결론>에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인 <결론>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결론>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에도 논의를 종합한다는 느낌을 주는 문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예) 2. (대중 문화와 관련한 문제)

논의를 종합하는 의미 내포한 문장 부분	대중 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앞으로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점점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형성 시기가 짧고, 올바로 자리 매김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논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논의한 부분	따라서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고, 보완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상업성을 극복하고 퇴폐적이지 않은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급화 전략으로 건전하고 창조적인 대중문화 형성으로 대중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대중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고급문화의 확산과 보급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겠다. 다양한 문화 형성으로 획일성 탈피 시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중이 문화의 주체임을 깨닫고 문화 창조와 향유에 적극 참여하는 의식과 행동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령 '저자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라는 문제는 무엇을 <결론>으로 삼아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

3) 결론 작성의 방법 3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분해해 본다. 저자의 관점을 비판할 것인지, 아니면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논의는 한결 쉬워진다. 즉 <본론>에서 저자의 관점을 한 단락에 걸쳐 논의해 주고, 이것의 장점 혹은 단점, 한계나 문제점, 긍정성이나 부정성 등을 한 단락, 혹은 두 단락에 걸쳐 논의해 주는 것이다. 만약 원고지 요구 분량이 1,600자 이상일 경우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한 단락에 걸쳐 들어주는 것도 좋다. (단, 사례는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의미를 두세 문장 언급해 주면 효과적이다.) 그렇게 한 후 <결론>에서 저자의 관점을 지지, 비판하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주면 된다.

만일 비판, 옹호나 찬성, 반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4) 결론 작성의 방법 4

'문제점(당연히 원인이 뒤따른다), 의의(한계나 의의를 발전시킬 방안이 뒤따른다), 전망, 필요성 등을 적용 시켜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논리 구조를 구성하면 된다. 즉 자신이 임의로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논제를 새로 만들어 준다고 보면 된다.

5) 학생의 글을 통해 본 결론 쓰기

보기1)

① 지금까지 문화를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문화는 그 문화만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일 뿐이다. 타문화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나의 잣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문화적인 맥락에서의 이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 학생의 글은 문화상대주의라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논제에 부합하는 결론을 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의 문장 전체가 본론이나 제시문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①과 같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결론이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삼가야 한다.

보기2)

문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 타문화를 접할 때는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가 현재에도 타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상호 영향을 통해 인류의 문화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 결론의 경우는 본론의 내용을 토대로 문화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는 논의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의 타당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함으로써 반성적 태도 또한 논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듯 결론은 본론에 대한 재확인으로써가 아니라 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6. 결론 쓰기의 유의사항

1) 본론의 요약이 곧 결론은 아니다.



8 장 논거 제시

1. 논거란 논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자료)이다.

논제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한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신의 논지에 대한 논리성과 객관성,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2. 논거의 중요성

논술에서 논거야말로 글쓴이의 지적 깊이와 직간접적인 경험의 정도, 그리고 타당한 사고의 작용이 폭넓게 작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좋은 논거를 제시하여 글의 논리성, 객관성,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글의 독창성과 참신함과 어떠한 논거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논거의 예

- 사실 논거 :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한 논거
보편적인 진리, 원리와 법칙, 용어의 개념, 대상의 본질과 특성, 통계, 보도 자료, 사회적 현상이나 역사적인 사건 등
- 소견 논거 : 의견이 담겨 있는 논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의견은 일정한 전문적 식견이 인정된 사람이나 집단의 입장을 의미한다. 잘 알려진 학설이나 권위자의 견해 등

4. 논거 제시의 실제

1) 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논거라 하면 약간 색다르고 특이한 것을 떠올린다. 바로 이점이 논술문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어떤 것들이 논거가 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자.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 널려 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나 이론, 전문가의 견해, 신문·방송에서 접한 사실,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적 사건 등이 모두 논거가 될 수 있다. 우수 답안으로 뽑힌 논술문들을 읽어 보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논거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좋은 논술문에서 제시된 논거들은 한결같아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임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들의 이론 등 그럴싸한 논거만을 들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적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끄집어냈다

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내용 등 구체성이 있는 논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럴 경우 자연스러운 글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독서 체험을 드러내 은근히 자기 과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때 논거로 제시한 내용이 학생의 주관적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화·객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바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여기서 감명 깊게 읽은 책이란 유명한 고전(古典)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2) 논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지구는 둥글다', '스탈린식 공산주의 체제는 실패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다' 같은 예들이 사실 논거이다. 이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인구 문제에 관해 논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했다면 논거가 될 수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은 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견해의 타당성을 훼손시킨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면 쉽게 좋은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각종 통계 자료도 좋은 논거가 될 수 있는데 정확한 내용의 최근의 자료는 글의 신뢰성은 물론 객관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본주의는 필연코 소멸하여 사회주의로 이행 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 '교원 정년 단축은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하 시킨다'는 교원단체의 논리 등은 소견 논거의 예이다. 소견 논거는 사실 논거와 달리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다. 때문에 소견 논거를 제시할 때는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맥락에 맞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3) 좋은 논거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나열해야 한다.

논술 문제를 받고서 심사 숙고한 끝에 써야 할 글의 주제와 논의 전개 방향이 결정됐으면 이를 뒷받침할 논거를 모아 보자. 우선 주제와 관련이 있다 싶은 것들 중에서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는 게 좋다. 여기서 평소의 독서량과 지식 등 이른바 '밑천'이 드러난다. 책에서 읽은 것, 교과서에서 배운 것, 신문·방송을 통해 보고 들은 것, 자신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가능한 많은 논거를 모아야 한다.

✱ 예를 들어 '전체주의'와 관련한 논술문을 써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글감들을 모아 볼 수 있다.

- ㉠ 전체주의 체제의 예 : 옛 소련, 북한, 유신 시대의 우리나라
- ㉡ 전체주의의 특징 : 개인 자유의 억압,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인권 침해, 대중 조작, 대중을 상대로 한 정보의 차단, 강압에 의한 통치
- ㉢ 전체주의가 무너지는 원인 : 민중의 각성, 민중의 항거, 경제적 파탄, 대중 운동의 조직화, 지식인의 이반, 권력층의 분열
- ㉣ 전체주의 사회에서 인간 존엄성 상실 사례 : 유신 시대의 경범죄(장발, 미니스커트 등), 북한 정권의 정보 차단,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

- ㉔ 민주 사회의 시민 운동: 과거 민중 운동 단체와 경실련, 환경 운동 연합 등의 역할
- ㉕ 정보 조작의 예: 히틀러 정권의 괴벨스, 전두환 정권 시절의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

4) 쓸 만한 논거를 추려 내자.

이런 식으로 나열한 논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순서를 바로 잡는 일이 중요하다. 많지 않은 원고 분량에 모든 논거를 다 쓸 수는 없으므로 이를 추려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논거를 추려낼 때는

- ㉑ 내용이 사실인가?
- ㉒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가?
- ㉓ 객관성이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논거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요령으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개요를 작성하는 일이다. 개요를 짰 다음 각 단락에 관련된 논거를 정리하면 글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논거를 적재적소에 배열할 수 있다.

5. 연습 문제

- 1) 다음 글을 읽고, 논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논지와 논거를 설정하시오.

【지시문】

광고 윤리 확립의 이유와 광고 윤리 확립의 방안을 중심으로 '현대의 광고 윤리'라는 제목의 글을 80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로 논술하시오.

【제시문】

광고란 소비 대중에게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을 선전함으로써 판매량이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유료로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광고는 비록 그 역사는 짧은 편이지만 산업의 발달, 광고 매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최근에 이르러 광고 산업의 외형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비례하여 광고의 범람으로 인한 부작용도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올바른 광고 윤리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논제 :

▶ 논지 1.

▶ 논지 2.

▶ 논거

9

장

논의의 심화 및 확장

1. 논의의 '심화 및 확장'은 제시문의 기본 내용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이야기는 곧 논술문의 중요한 논증 내용이 된다.

2. 심화 및 확장 방법

1) 지시문과 제시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 것으로 만든다.

논술이란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한 글이다 그러나 지시문과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논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시문과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 분석하여 기본 정보를 도출해 내야 한다.

2) 연상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넓고, 깊게 만든다.

기본정보 → 연상내용 ㉠ → 설명, 인과, 부연, 범위 확대, 축소 → 연상내용
㉡ 근본 원리 → 개념화

3) 제시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면서 논증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제시문의 주장이나 근거,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4) 제시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된다.

인용과 활용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적절히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바꾸어 자기 논증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5) 제시문의 필자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례를 적극 공략한다.

사례는 현실적인 문제 의식이 살아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론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 제시문의 필자뿐만 아니라 - 학생 자신에게도 역시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6) 제시문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제시문의 주장과 자신의 주장이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3. 심화 · 확장의 실제 – 실전 문제를 통한 점검

1) <예문1>을 심화 확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예문1>

①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②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④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⑤ 법에 대한 지나친 존경심이 빚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결과를 당신은 일단의 병사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뜻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식과 양심에도 어긋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군은 무척 힘들고 가슴은 마구 뛰는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기계로서, 자신의 욕신을 바쳐 국가를 섬기고 있다. ⑥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판단력이나 도덕 감각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전혀 없으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나무나 흙이나 돌과 같은 위치에 놓아버린다.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에서

2) 심화 · 확장의 예

- ① 활용 → 필자는 '국민'보다는 '인간'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곧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엄성과 자율성을 가진 개인을 더 중요시 한다는 뜻이다.
- ② 활용 → 그렇게 되면 한 국가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법보다는 당연히 개인의 참된 의식에 부합하는 정의에 대해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법은 사회의 특정 목적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거나 개인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 ③ 활용 → 그런 의미에서 '나의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라는 그의 주장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개인의 자율적 의식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잘잘못을 가리는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④ 활용 → 그렇게 보면 사회 유지를 위해 계속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가치만을 강요하는 사회는 양심이 없는 셈이다.
- ⑤, ⑥ 활용 → 그러나 필자의 견해가 지닌 의의는 곧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가령 법과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군에서 병사들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계로서 지극히 타율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자칫 극단적인 견해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실 개인의 자율성은 상당 부분 사회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

처 검증 받아 온 사회의 법이나 규범, 교육 등을 통해 개인은 자기 나름의 양심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키워나가게 된다. 병사들 역시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자율성에 따라 군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군의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통해 자신을 가다듬어 그렇게 되면 군의 특성상 그런 성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개인의 자유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4. 연습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각 문장에 대해 심화·확장하는 내용을 쓰시오.

① 사실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최고로 발달한 지역에서는 사회적 욕구를 개인적 욕구로 바꾸는 일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차이는 순전히 이론적인 것처럼 보인다. ② 정보 제공과 오락의 도구로서의 매스 미디어와 조작과 교화의 대행자로서의 매스 미디어를 누가 정말 구별할 수 있을까? ③ 우리는 또다시 선진 산업 문명에서의 가장 불편한 모습 중의 하나와 직면한다. 그것은 이 문명의 비합리성의 합리적 특성이다.

④ 이 문명의 생산성과 효율, 안락함을 증대 보급시키며, 낭비를 욕구로, 과피를 건설로 바꾸는 그 문명의 능력, 그리고 이 문명이 세계를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확장으로 바꾸는 그 규모. 이 모든 것이 바로 소외의 개념을 의문스럽게 만든다. ⑤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상품들 속에서 자신을 확인한다.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에서

▶ 심화 · 확장의 보기 :

10

장

채점 기준표의 활용

1. 논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에 맞는 글을 써야 한다.

학교마다 채점 기준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채점은 내용과 논리 그리고 표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2. 논술의 채점 기준은 무엇인가?

논술에서 내용적인 면은 논제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논거의 제시 여부를 주로 평가하며, 논리 적인 면에서는 논리의 일관성과 제시된 논거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논증 방식의 합리성 등을 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구상의 논리성과 지시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문제 삼는다.

1) 내용적 측면

(1) 논제에 대한 이해

제시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답을 썼는가를 평가한다.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쓰면 전혀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

고전을 지문으로 제시하는 논술의 경우 제시된 작품의 내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작품에서 글쓴이의 주장의 핵심을 파악하는 문제의 경우는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가 주요한 평가의 내용이 된다.

(3) 논제에 대한 해결 능력

주어진 논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논증하는 과정이 적절한가를 평가한다.

(4) 논거의 제시 여부

논증의 과정에서 논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제시된 논거들이 어느 정도 사실성과 대표성을 띠고 있고, 다양한 내용인지를 평가한다.

2) 논리적 측면

(1) 논의의 일관성

논의할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는가를 주로 평가한다.

(2) 논거의 타당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추론 방식의 적절성

논증의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은 없으며,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한다.

3) 표현적 측면

(1) 어휘의 정확성과 다양성

사용된 어휘가 문맥에 적절하며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가를 평가한다.

(2) 문장의 정확성과 효율성

어법에 맞고 표기법에 맞으며 중복된 내용 없이 효율적으로 표현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글의 단위성과 유기성

글을 내용에 따라 하나의 문단으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와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긴밀한 관계로 이어져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채점 기준에 맞는 논술 쓰기

1)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다.

논술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를 '논제'라고 한다. 채점 기준에 맞는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제에 합당한 내용을 써야 한다.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쓰게 되면 나머지 요소들을 아무리 잘 지켜 썼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현재 논술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각 대학들은 객관적인 점수의 차이를 확보하기 위해 논제를 세분하여 제시한다. 이 경우 요구하는 것들 중 어느 하나를 빠뜨리게 되면 그 항목의 점수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 (가)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나)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다) 다니엘 디포 '로빈슨크루소' 세 글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사고방식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것이 20세기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으며 그 한계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연세대, 자연>

이 문제의 경우 세 글에 들어 있는 사고방식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과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사고방식의 특성을 설명하라는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논술에서 주를 이루는 고전을 지문으로 사용하는 문제의 경우,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자주 출제된다. 이런 문제는 무엇보다 작품의 해석이 정확하여야 이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단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작품의 해석은 어느 한 가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작품 해석에는 지문의 구체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도 있다.

3) 자신의 분명한 주장이 들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논제를 해명하는 일에 치중하다가 자신의 주장은 밝히지 못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린 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을 밝힌 후 이것이 옳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형식으로 답을 작성하여야 한다.

4) 타당하고 다양한 논거를 들어야 한다.

흔히 논술 답안을 읽어보면 자신의 주장만을 나열한 것을 볼 수 있다. 주장만 늘어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또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더라도 주장과 동떨어진 것을 들면 타당성이 없는 논거가 되어 역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5) 조건이나 유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쓴다.

제목을 쓰라든지 본문부터 시작하라든지 하는 유의 사항이나 논제에 따른 조건을 반드시 지켜서 논술문을 작성해야 한다.

4. 채점 기준 활용의 예

▶ 서울대 모의 논술시험에서 86점으로 1등을 한 고등학생의 논술문과 이를 심사한 교수들의 심사평을 통해서, 채점 기준을 실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자.

(제시문과 지시문은 제1강 연습 문제 참조)

1) 모의 논술고사에서 제시된 채점 항목 및 기준

구 분	평가내용 및 기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 길이 미충족 • 필기구 종류 및 색깔 위반 • 응시자의 신원노출
이해 · 분석력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분석 능력 •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분석(독해) 능력 • 논술문이 논제에 충실한 정도 •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정도
논증력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설정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 제시 여부 -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타당성 - 논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현 - 표현 견해가 제시문의 논의에 의거해 적절한 뒷받침 • 구성조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논의 전개에 정합성 및 일관성이 유지 - 전체 논의 전개에 있어 논리적 비약은 여부 -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
창의력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적인 논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의 고려 - 본인의 논의가 지니는 더 나아간 함축이나 귀결들에 대해 고려 -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 -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에 대한 더 나아간 고찰 • 다각적인 논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상이나 관전 전환을 시도 -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고려 - 여러 개념들의 종합 - 암묵적으로 가정된 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창적인 논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이나 논거에 새로움 -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 특이함 - 관점이나 논의 지평에 참신함
표현력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표현의 매끄럽고 자연스러움, 적절한 비유 등 - 단락구성 및 어휘 사용 -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2) 학생의 답안

옛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산에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원숭이가 자연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던 어느 날, 여우가 꽃신을 들고 찾아왔다. 이걸 신으면 발에 돌이 박히지 않고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여우의 말에, 원숭이는 그 후로 계속 여우가 준 꽃신을 신고 다녔다. 처음에는 여우의 말대로 더 많은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여름이 되어 꽃신을 벗자 발바닥이 아파 더 이상 맨발로는 걸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원숭이는 뒤늦게 여우가 자신에게 준 꽃신이 더 큰 자유가 아닌 무서운 속박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원숭이와 꽃신의 관계는 인간과 기계문명사이의 관계와 같다.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된 교통과 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업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이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베이컨의 발전지향적 사고에 따라 노력해 온 결과, 재화의 생산량은 증대되고 공간거리는 단축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원숭이가 더 이상 맨발로 걸을 수는 없었듯이, 문명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

제시문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계문명은 인간을 기계화, 상품화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보면 주인공 그레고르는 회사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집안의 경제 또한 책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난 그레고르는 거울 앞에서 두꺼운 등껍질을 가진 벌레로 변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레고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은 닫힌 문 밖에서 그레고르를 걱정한다. 이에 아직 사회와 자신의 유대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기쁨으로 닫힌 문을 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기겁해서 도끼로 그를 위협하며 다시 문을 닫는다. 일할 수 있는 손대신 징그러운 많은 다리를 가지게 되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그레고르는 가족에게 외면받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정마저도 인간의 기계화와 상품화란 현대문명의 영향력속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문명에 의한 사회적관계의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기계의 발달로 인한 시장체계의 성립은 대량생산으로 인한 인류의 몰개성화를 야기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은 인간의 본연성으로 부터의 이탈, 즉 인간 소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자본주의에서 인간은 단지 한 단위의 노동요소로 간주된다. 소설 '변신'에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날만 걸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 그레고르를 몰염치하고 불성실한 무뢰한으로 몰아붙이는 회사의 태도를 보면 인간소외현상을 볼 수 있다. 일말의 인간애도 없이 걸근의 대가로 해직을 선고하는 회사의 행동은 인간 자체보다 그 인간의 노동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계문명의 발달은 문화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발달한 정보매체와 운송수단을 통해 중심지의 문화가 주변의 문화를 흡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문명의 발달은 행위동기를 이윤동기로 변화시켰다. 제시문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차는 단지 출발과 목적만은 아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 즉 이윤이외의 중간지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문명발달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의식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문명사회는 인류에게 생각의 변화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이윤동기가 판단의 주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소유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보면 주인공 싱클레어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무조건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산다. 언제나 화목한 이 독실한 크리스티교 가정은 존재 양식적 삶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에 싱클레어가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아이인 크로머는 소유 양식적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싱클레어가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말한 것을 빌미로 싱클레어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기주의적이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 양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도 기계문명아래 오로지 성장과 발전만을 목표로 자연과의 생태학적 관계나 다른 구성원과의 유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달려 나가고 있다. 결국 이것은 현대사회 역시 소유 양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는 전통의식의 혼란에 따른 아노미현상을 들 수 있다. 증가하고 있는 자살이나 반인륜적 범죄는 아노미현상을 의미한다.

그간 인류는 기계의 발달을 통해 물질적 풍요라는 혜택과 시공간의 단축이라는 혜택을 향유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 시켰고 지역의 고유성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결국 이것은 현대사회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익사회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익사회는 소유양식의 삶을 의미한다. 요즘 불고 있는 슬로우 푸드, 느리게 살기 운동은 이익사회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며 미래의 우리사회, 문화적 모습은 이익사회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고쳐 가느냐에 달렸다.

3) 위 논술문에 대한 서울대 교수진의 심사평

(1) 이해/분석력(16점/20점 만점)

제시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제시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창조적인 논의 또한 가능했다. 아쉬운 점은 제시문 밖에서 제시된 예들에 대한 논의가 제시문에 나오는 논의들보다 양적으로 많다는 점과 문화적 양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2) 논증력(26점/30점 만점)

본인의 주장과 제시문의 주장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다. 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인 전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계의 발달이라는 제시문과 논제의 취지에 충실하게 논지를 전개시킨 것이 아니라 이를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들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식의 논지전개가 갖는 문제는 현대사회의 문제에 관한 천편일률적인 논의로 흐르기 쉽다는 점인데 이 글은 창조적인 예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3) 창의력(35점/40점 만점)

이 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창의적인 논리 전개이다. 특히 문학작품에 대한 풍부한 예들과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결부시킴으로써 글의 흐름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한 것은 이 글의 돋보이는 점이다. 특히 도입부에 나오는 우화는 문제를 고찰하는 신선한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논의의 중요한 마디마다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검토를 집어 넣음으로써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4) 표현력(9점/10점 만점)

이 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표현력이다. 문장이나 어휘의 구사력은 전반적

으로 매끄러우나 특히 띄어쓰기의 경우 여러 군데에서 틀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단점이다. 또한 한 문단이 지나치게 길게 작성된 것도 이 글의 단점 가운데 하나인데, 전체를 4문단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보다 문단을 세분화했으면 더 좋은 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4) 학생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교수들의 모의논술고사 결과 분석

(1) 지시사항 불이행

모의 논술고사인 점과 감점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길이 및 필기구에 의한 감점은 적용하지 않았다. 답안 길이 기준(2500자, 300)에 미달한 답안은 26개였으며 그 가운데 1400자 이하는 7개였다.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감점 사항이 적용될 것이며, 특히 길이기준에 크게 미달한 답안은 과락 처리할 수 있다. 신원을 노출시킨 학생은 없었다.

(2) 이해분석력

이해분석력이란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제와 제시문의 의미를 찾아 연결하는 능력이다. 제시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접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과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익숙한 주제인 기계문명의 폐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제시문은 기계문명의 폐해라는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기계적인 체계의 인위성과 자연성 사이에 놓인 인간의 모순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기계의 발전 과정이나 산업혁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인간을 둘러싼 인위적 체계가 작동하는 양상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분석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고 그 속에서 핵심 어구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3) 논증력

논증력은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연관, 논리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주장을 제시함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못한 글의 흐름과 논리적 비약은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점이고 무엇보다도 반대 주장과 논증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논리가 전개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 후 논거나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그것들이 자신의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제시문 2】와 관련하여 '사이 공간'의 소멸을 말할 때 고속철의 예는 속도의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일관적인 논리와 적절한 증명 능력은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예증을 할 경우에는 논리의 적합성에 대해 깊이 검토해야 한다. 논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이 쓴 글을 반복해서 읽고 검토하는 습관과 함께 자신의 글이 갖는 문제점을 다른 사람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창의력

여러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점수 편차가 가장 심한 항목이다. 창의력은 심층적·다각적 사고를 통한 주장 및 관점의 독창성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슷한 문장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교훈조의 결론으로 끝맺는다. 이는 기존 논술 참고서에 제시된 정형화된 방식에 기초하여 비슷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연습한 결과로 추정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고능력을 표출하기보다는 예상문제에 대한 답안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논술에 대비하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논술의 원래 목표인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의 표출을 도외시하고 모범답안의 작성에 치중한다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번 채점 결과에서도 독창적인 논리를 전개한 답안은 예외 없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5) 표현력

표현력은 단락의 구성 및 어휘사용의 적절성, 어법에 맞는 글쓰기 및 원고지 사용법 등을 말한다. 채점 결과 드러난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구어적 표현
- 불분명한 지시 대명사의 남발
- 논리 전개와 무관한 접속사 사용
- 잘못 사용된 현학적인 어휘
- 부적절한 조사
-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법, 정자법 미숙
- 의미 없는 단락구분

5) 1등한 학생의 모범 답안에서 논술문 작성의 힌트를 잡아낼 수 있다.

(1) 이 학생은 약 300자 내외의 글을 3회 정도 인용하여 900자 정도는 인용문으로 채웠다. 고전의 인용문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할 경우 객관성, 타당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많은 분량을 글을 써 나간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제시문을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그 뒤에 자신의 의견을 넣고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2) 제시문에서 중심 문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3) 단락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중심 문장이 바뀌면 단락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미없는 단락 구분은 삼가야 한다.

(4) 중심 문장을 단락의 앞 부분에 배치하자.

중심 문장이 앞에 와야 채점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하는지 금방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인용과 예 등으로 단락이 길어지면 단락의 말리에 중심 문장을 한번 더 반복해 완결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고전을 인용하는 습관은 꼭 필요하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문의 길이는 대체로 1,000자~2500자(300)이다. 단번에 주옥 써 내려 가기엔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다. 이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전 인용이다. 고전은 의사소통의 과정(=쓰기)로서 사회성, 보편성을 획득한 책이다. 사회성,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이 아는 내용, 즉 객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전을 인용하는 전략은 안전하다.

(6) 읽은 책에 대한 요약 훈련이 필요하다.

자기가 쓴 중심 문장에 걸맞게 책을 인용하려면 책 내용을 요약할 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7) 읽은 책의 작가, 제목, 주인공은 꼭 기억해야 한다.

좋은 책(고전)은 주제가 여러 가지이다. 적절하게 인용하려면 작가+제목+주인공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8) 바른 국어 사용을 생활화하자.

평소 생활에서 국어 어법을 익혀 두자.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등은 논술에서 기본이다.

(9)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감점 요인이 줄어든다.

11

장 요약하기

1. 요약이란 글의 문맥을 정리하여 중심 내용을 추려 내는 것이다.

제시된 글을 정확히 이해하여 완결된 한 편의 글로 압축하는 것이다. 글의 요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2. 요약은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다.

읽은 내용을 요소로 나누고 앞뒤 관계에 따라 구조화, 명료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글의 관계와 구조,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글쓴이의 사고를 따라가면서 논리를 찾아가며 읽어야 한다.

3. 제시문을 요약할 때는 글쓴이의 주장과 논거, 의도 등에 유의하여 각 문단의 소주제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요약의 효과

1) 글을 읽고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2) 글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3) 비판적 읽기의 토대를 마련한다.

정독을 하는 과정에서 글의 구조와 의미 파악은 물론이고, 표현 방법과 기교에 대한 분석, 오류 분석까지 가능하다.

4) 글에 대한 자신의 이해력을 점검할 수 있다.

직접 써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더불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의 체계를 잡을 수 있다.

5. 생활 속에서 요약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책 읽기, 배경 지식 쌓기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요약하기도 마찬가지다. 평소 글을 읽고 분석하고 요약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신문의 칼럼이나 각종 비문학 제재는 요약하기의 좋은 대상이라 하겠다.

6. 요약하기의 일반 원리

1) 선택 및 삭제

- 단락은 대개 중심 문장(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요약의 뼈대를 세운다.
- 뒷받침 문장(예시, 부연 등)은 삭제한다.
-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이 여러 번 중복되었을 경우 삭제한다.

2) 일반화하기

-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일반화하여야 한다.
- 요약문의 길이에 따라 일반화의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

3) 재구성하기

- 글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 글쓴이의 의도와 글의 주제가 잘 전달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요약하는 사람의 주관과 의견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4) 표현하기

-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변화시켜야 한다.
- 요약은 제시문 핵심어 또는 핵심 내용을 자신의 문장(+a)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7. 요약의 대상

1) 요약의 대상이 반드시 비문학적인 글 설명문, 논설문, 사설, 칼럼 등 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2) 최근 많은 대학에서 실시한 논술 제시문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3) 문학과 비문학 제제별 요약의 방법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4) 문학 제제는 학습목표를 떠올리면 요약의 길이 보인다.

(1) 시

- 화자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화자의 위치(공간적, 시간적 배경), 화자를 둘러싼 상황, 화자의 인식, 태도, 정서 등을 고려한다.

(2) 소설

- 서사 구조(인물, 사건, 배경)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무엇보다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인물과 인물과의 관계(갈등), 인물의 역할(성격, 유형), 인물의 행동 등을 자세히 살피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 5) 논술에서 수험생이 행하는 요약의 중점은 제재의 특성에 따른 요약이 아니라, 주어진 지시문의 요구 즉 논제에 따른 것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요약하기의 과정

- 1) 단락별 소주제문 파악하기
- 2) 단락의 상호 관계 파악하기
- 3) 글 전체의 구조 파악하기
- 4) 주제문 작성하기
- 5) 요약하기

9. 요약의 실제

<예문>

우리 사회가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서구의 많은 문물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생활에 스며들었다. 그 결과, 우리의 좋은 전통과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글도 마찬가지 처지이다.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여러 간판 중에서 순수한 한글의 음과 뜻으로 된 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을 잘 모르고 경시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한글의 문자로서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한글은 문자의 발달 단계로 보아 가장 앞서 있는 음소 문자이다. 세계 글자들은 대개 뜻을 글자에 나타내 보이는 표의 문자에서 출발하여 음절 문자, 음소 문자의 순서로 발달하였다.

그런데 한글과 같은 음소 문자는 다른 종류의 글자보다 배우기 쉬운 글자이다. 그리고 한글은 음소 문자 가운데서도 독특한 자리에 있다. 다른 음소 문자는 대개 자음, 모음이 동등한 자격으로 나열되는데, 한글은 모음을 나타내는 중성 글자를 중심으로 하여, 초성, 종성이 그 앞뒤를 둘러 싸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알파벳과는 다른 특징으로, 한글은 음절의 경계까지 표시해 주는 아주 정교한 글자이다.

(후략)

1) 각 문단의 소주제문

- 한글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자.
- 한글은 음소 문자로 배우기 쉽다.
- 한글은 음절 경계까지 표시하는 아주 정교한 글자이다.

2) 단락의 상호 관계 파악하기와 글의 구조 파악하기

- 첫 번째 단락: 주의 환기, 문제 제기
-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한글 문자의 특징

3) 주제문 작성하기

- 한글은 음소 문자로서 음절의 경계까지 표시해 주는 정교한 글자이다.

4) 요약하기

우리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잘 모르고 한글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글은 음소 문자로 배우기 쉬우며 음절 경계까지 나타내는 아주 우수한 문자이다.

10. 연습 문제

1) 다음 논제에 따라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지시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각 제시문에 드러난 부부의 모습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부부상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논하시오.

【제시문】

가. 선녀

"우리 나무꾼 서방님은 평소 말이 없지만 온화하고 성실합니다. 나무를 지고 오는 모습은 산과 같이 듄직하지요. 우리 나무꾼 서방님은 나무와 돌과 흙을 좋아합니다. 언제나 나무를 해 오고 나무를 깎아 무얼 만들고 날마다 일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돌로 벽을 쌓고 탑을 만들고 길을 손질하고 흙에다 밭작물을 부치고 거둡니다. 벼슬은 하라 해도 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깊이 압니다. 이따금 바위에 앉아 골똘하게 무얼 생각하다가 멍그레 웃고는 일어나 다시 일합니다."

나무꾼

"아름다운 우리 색시 선녀님은 얼굴같이 마음도 얼마나 고운지요. 바람과 물과 풀들을 좋아하고요. 원래 흰 바탕에 햇볕에 건강하게 탄 손으로 산나물, 곡식을 데치고 삶고 무쳐 손맛나는 음식을 만들고 방안에 앉아서도 가족들 옷을 짓고 있습니다. 흙으로 바른 부엌은 빨갛게 타는 나무로 따뜻하고 저녁상 물린 방엔 등잔불과 온기가 환하지요. 우리 선녀님은 평소 잘 웃고 잘 이야기하고 잘 운답니다. 만나는 누구에게나 잘 이야기하고 웃다가 그들에게 들은 세상의 불행에 돌아서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우는 거지요."

출전: 홍순명, "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 중

나. 서방님 병(病) 들어 두고 쓸 것 업서,

종루(鐘樓) 저저 | 달궂 | 파라 뉘 | 소고 감 소고 유자(柚子) 소고 석류(石榴) 스다. 아
초초초 이저고 오화당(五花糖)을 니저맡여고너.

수박에 술 꼬저 노코 한숨계워 호노라.

-작자 미상, 사설 시조

다.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 황금(黃金)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상해 /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 서로 소스라쳐

본(本)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흥부 부부상'

▶ 요약하기

가:

나:

다:

12

능 어법 및 표현 I

1. 원고지 사용법

- 1) 바뀐 단락의 첫 문장은 반드시 원고지 첫 칸을 띄운다. 이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원고지 첫 칸을 띄어 쓰지 않는다.

	현	대		사	회	가		거	대	화	,	다	원	화	(0)
--	---	---	--	---	---	---	--	---	---	---	---	---	---	---	-----

'	문	화	'	란		한		사	회	의		총	체	적	(0)
---	---	---	---	---	--	---	--	---	---	---	--	---	---	---	-----

- 2) 문장이 원고지 마지막 칸에서 끝날 때는 마침표를 함께 쓴다. 쉼표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	렇	지		않	다.	(0)		쉽	지		않	고.	(0)
---	---	---	--	---	----	-----	--	---	---	--	---	----	-----

- 3) 문장 부호와 인용 부호는 한 칸에 하나씩 쓰는 것이 원칙이나, 마침표와 쉼표는 한 칸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부호와 같이 한 칸에 사용해도 된다.

않	고	,	'	사	회	적		요	인	'	을	(0)
---	---	---	---	---	---	---	--	---	---	---	---	-----

않	고	,	'	사	회	적		요	인	'	(0)
---	---	---	---	---	---	---	--	---	---	---	-----

- 4) 물음표, 느낌표, 큰따옴표 등은 글자 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음표나 느낌표 뒤에서 띄어 써야 할 경우 원고지 한 칸을 비운다. 단, 문장 부호 때문에 행을 바꿔서는 안 된다.

했	는	가	!		그	렇	지		(0)		그	런		말	을		했	는	가	!	(0)
---	---	---	---	--	---	---	---	--	-----	--	---	---	--	---	---	--	---	---	---	---	-----

	『	레	미	제	라	블	』	에	(0) ← 단락의 첫 문장인 경우
--	---	---	---	---	---	---	---	---	--------------------

- 5) 아라비아 숫자는 원고지 한 칸에 두 자씩 적고, 알파벳은 대문자는 원고지 한 칸에 한 자, 소문자는 한 칸에 두 자를 적는다, 한자는 한 칸에 한 자씩 쓴다.

	19	99	년		I	M	F		(i	d	e	a)		古	典	→	古	典	(古	典	(0)
--	----	----	---	--	---	---	---	--	---	---	---	---	---	---	--	---	---	---	---	---	---	---	---	-----

2. 문장 표현

- 1) 의문, 청유, 의지형의 문장은 삼가는 것이 좋다. 세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전개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2)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예: 심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3) 상대방을 훈계하는 듯한 표현, 극단적인 언어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렇다. 절대 그래선 안 된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

4) 동어 반복을 피하고, 줄임말을 쓰지 않도록 한다.

예: 즉, 다시 말해서, 넌 너는, 건 것은, 게 것이

5) 문장은 간결하게 쓰는 것이 의미 전달에 효과적이며, 상투적인 표현은 피한다.

예: 개인과 사회 모두가 노력할 때 화합하는 새 천년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6)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삼간다.

예: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아까도 말했듯이,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 . .

7) 나열식 전개 방식은 글을 평면적으로 만들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예: 첫째 . . . , 둘째 . . . , 셋째 . . .

8) 현학적인 표현은 좋지 않다.

9) 막연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 형용사의 남발은 문장의 논리성을 약화시키고 뜻이 막연한 문장이 되게 한다.

10) 번역투의 문장은 피한다.

예: 내게 있어서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은 과학이다.

11) '~것'과 '~화'는 자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12) 수동태 문장의 사용은 삼간다.

예 : 되어지다 → 되다, 극복되어야 → 극복해야, 불리는 → 부르는, 개정되어야 → 개정해야, 지어진 → 지은

13) 이중 부정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14) 조사 '의' 는 가능한 쓰지 않는다.

예: 하나의 조직 → 한 조직, 우리의 말 → 우리말

15) 임의로 만든 조어(造語)는 쓰지 않아야 한다.

16) 자신 없는 한자나 속어는 쓰지 않는다. 또한 쉬운 한자어의 경우 굳이 한자를 쓰지 않아도 뜻이 잘 통하므로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17) '~으나', '~데' 등의 접속사를 남용하지 않는다. : 앞뒤의 연관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접속어로 대신하는 것이 좋다.

18) '~적', '~성', '~라고 생각된다', '~라고 느낀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삼간다.

3. 분량과 단락

논술 문제는 정해진 분량이 있다. 허용 범위는 대개 요구 분량의(±) 10% 정도이다. 이 범위 안의 분량을 논의를 할 때 감점되지 않는다. 그러나 논의가 완결되지 않았는데, 분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결론>을 간단하게 끝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량 초과와 감점 요인보다, 내용의 완결성이 문제되는 감점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요구 분량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0점 처리된다.

단락 구분에도 유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단락을 많이 구분하거나, <본론> 전체가 하나의 단락이 되는 식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1,600자의 글은 대체로 4~6개 정도의 단락(서론과 결론이 각각 한 단락, 본론은 2~4개 단락)이 적절하다.

대체로 서론, 본론, 결론의 비율을 1:3:1이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논리 구조에 맞는 단락 배분이다. 따라서 각 단락의 분량 분배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4. 맞춤법

1) 구별하는 쓰는 말

- 돈오다 : 심지를 돈우다, 용기를 돈오다.
- 돈구다 : 안경의 도수를 돈구다.
- 든지 : 배든지 사과든지(조사), 가든지 오든지(어미)
- 던지 : 얼마나 놀랐던지(어미)
- 던 : 말 잘하던데(과거)
- 떨구다 : 고개를 떨구다.
- 떨어뜨리다 : 폭탄을 떨어뜨리다.
- 로써 : 학생으로써
- 로써 : 신념과 용기로써
- -으로써 : 공부함으로써
- -므로 : 공부하므로

- -르밖에 : 그러니 싸울밖에
- 밖에 : 도망갈 수밖에 없다.
- 부딪치다. : 차와 차가 부딪쳤다.
- 부딪히다. :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 하노라고 :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 하느라고 :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2) 틀리기 쉬운 말들

· 거칠은	→ 거친	· 세째	→ 셋째
· 괴로와	→ 괴로워	· 숫캐	→ 수캐
· 귀절	→ 구절	· 신출나기	→ 신출내기
· 뺨가리	→ 뺨과리	· 애닭다	→ 애달프다
· 넓다란	→ 넓따란	· 우뢰	→ 우레
· 네째	→ 넷째	· 윗어른	→ 웃어른
· 더우기	→ 더욱이	· 으레	→ 으레
· 두째	→ 둘째	· -읍니다	→ -습니다.
· (양복을)마 <u>추</u> 다	→ (양복을)맞 <u>추</u> 다	· -아지랭이	→ 아지랑이
· 몇일	→ 며칠	· 일찍이	→ 일찍이
· 목메이다	→ 목메다	· 주책이다.	→ 주책없다
· 몸뚱이리	→ 몸뚱어리	· 지게꾼	→ 지게꾼
· 무우	→ 무	· 지리하다	→ 지루하다
· 미쟁이	→ 미장이	· 채이다	→ 채다
· 빌어 오다	→ 빌려오다	· 천정	→ 천장
· 샅월세	→ 사글세	· 케케묵다	→ 케케묵다
· 삼가해야	→ 삼가야	· 핑계	→ 핑계
· 서슴치	→ 서슴지	· 흘으러지다	→ 흐트러지다

-오(종결 어미) : 책이오. 서시오. 아니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요'는 조사임

3) 잘못 사용되는 단어들

· 감안하다	→ 고려하다, 참작하다	· 수순(手順)	→ 순서, 절차 과정
· 동학란	→ 동학 혁명	· ~에 다름 아니다	→ ~과 다름이 없다
· 6·25 동란	→ 한국 전쟁	· 이조	→ 조선
· 마음적	→ 심적	· 자리하다	→ 자리잡다
· 민초	→ 민중	· 창씨 개명	→ 일본식 성명 강요
		· 한일 합방	→ 일제 강점

5. 띄어쓰기

1) 명 사

(1)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의존 명사에는 '것, 들, 지, 뿐, 대로, 듯, 만, 만큼, 차, 판, 데, 수, 때문' 등이 있는데, 관형어 아래 쓰이면 의존 명사,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아래 쓰이면 조사, 서술어 아래 쓰이면 어미로 구분된다.
- '수' 와 '때문' 은 반드시 띄어쓴다.

(2)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그 앞의 수관형사와 띄어 쓴다.

- 사과 한 개, 차 한 대, 조기 한 손, 옷 한 벌, 열 살, 신 두 켤레, 연필 한 자루, 북어 한 쾌, 소 한 마리, 고기 두 근, 열 길 물 속,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김 네 톨
- 차 이십여 대, 이십여 개

(3) 한 음절의 명사(속, 안, 때, 앞, 전, 후, 중등)는 다른 명사와 띄어 쓴다.

- 속, 집 안, 식사 때, 얼마 전, 머리 속
- 앞, 퇴근 후, 회의 중
- 그러나 다음 말들은 붙여 쓴다.
→ 숲속, 품속, 품안, 아침때, 여느때, 기원전, 기원후, 눈앞, 은연중, 병중, 문밖 등

(4)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에 쓰이는 말은 띄어 쓴다.

-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교사 및 학생, 삼성 대 현대

2) 조 사

(1)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이나마
- * 격조사: ~가, 이, 께서, 의, 을(를), 에, 에서, 에게, 한테
- * 보조사: 은(는), 만, 뿐, 조차, 까지, 마저
- * 접속 조사: 와(과), 고, 이고, 이며, 하고

(2)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 어디까지입니까, 오기는커녕, 아시다시피, 읊니다그려

3) 흔히 잘못 쓰는 다섯 가지 경우

- (1) 의존 명사를 붙여 쓴 경우 (예 : 할수 있다. 공부때문에(X))
- (2) 두 개의 부사가 겹쳐졌을 때 띄어 쓴 경우 (예 : 또 다시, 더욱 더(X))
- (3) 조사가 연이어 올 때 띄어 쓴 경우 (예 : 어디에서부터, 지금부터 라도(X))
- (4)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를 붙여 쓴 경우 (예 : 세가지, 한마리, 한모금(X))
- (5) '보다'가 조사로 쓰였을 때 띄어 쓴 경우 (예 : 꽃 보다 예쁜, 나 보다 너를(X))

6. 실제 쓰기에 앞서

1) 논술문은 반드시 완결된 문장으로 작성한다.

- 예 :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

2) 문장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 예 :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내용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그것의 외연이 넓다는 것이고 또 외연이 넓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용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외연이 넓다는 것이다. 외연이 넓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3) 정확한 우리말(표준어)을 사용해야 한다.

- 예 : 우리는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을 삼가해야 한다.
→ 우리는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을 삼가야 한다.

4) 외래어의 지나친 사용은 피해야 한다.

- 예 : 현재의 우리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고유한 전통 문화와 국제화(globalization)를 통한 외래 문화의 공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 예 : 음악에 대한 기호(嗜好)는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한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

5)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예 :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보호의 노력이다.
→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다.

6) 쉽표, 따옴표 등의 사용은 조심해야 한다.

- 예: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언제나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별은 생물학적인 성별의 차이일 뿐 종 자체의 우수성의 차이는 아니다.

* 접속사 '그러나' 다음에 아무런 의미 없이 쉽표가 사용되었다.

7. 연습 문제

▶ 다음 문장들을 어법에 맞게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 쓰시오.

1)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막대하게 입었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다.

→ _____

2) 내게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 맡겨진 일에 불평을 말하지 않고 그 주어진 일에 정진하자는 데 있다.

→ _____

3) 나는 흠볼트의 언어는 유한한 수단을 무한하게 부려 쓰는 것이라는 언어관에 공감한다.

→ _____

4)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여 강력하게 떠오르는 동남아 국가들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_____

5)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 _____

6) 생사 여부를 확인하러 온 가족들 중, 시체를 확인하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 _____

7) 이 책은 요즈음 많이 읽혀지는 신간서이다.

→ _____

8) 자연 환경의 오염은 인간의 죄악에 다름 아니다.

→ _____

9) 그러한 부정적 견해가 전혀 이해가 가치를 안는다.

→ _____

10) 한국인이면 누구나 국어를 훌륭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_____

11) 우리는 회사를 살리는 데 힘을 합하자고 인식을 같이 했다.

→ _____

13

강 어법 및 표현 II

1.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

1) 문장 성분의 누락

(1) 주어의 생략

· 생산 시설을 중국 등 해외로 옮기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 우리 나라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중국 등 해외로 옮기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2) 목적어 생략

·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면서도 듣기를 무척 싫어한다.

→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면서도 남의 말 듣기를 무척 싫어한다.

(3) 부사어 생략

·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해 가면서 살아간다.

→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에 순응해 가면서 살아간다.

2) 문장 성분의 중복

(1) 주어의 중복

·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침해되는 것은 거부한다.

→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 침해되는 것은 거부한다.

(2) 목적어의 중복

· 웰빙 바람이 불면서 축구를 차는 등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 웰빙 바람이 불면서 축구를 하는 등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3) 부사어의 중복

· 폭음 소리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배상 요구는 국가가 져야 한다.

→ 폭음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배상 요구는 국가가 져야 한다.

3) 문장 성분의 호응

(1)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

-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이변은 인간의 문명이 가져온 환경 파괴이다.
-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이변은 인간의 문명이 가져온 환경 파괴의 결과이다.

(2) 수식 관계의 불일치

- 신뢰받는 정치인의 친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음으로써 부패 척결을 기대할 수 있다.
- 신뢰받는 정치인의, 친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음으로써 부패 척결을 기대할 수 있다.

(3) 부사어와 서술어의 불일치

-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결코 약소국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결코 약소국의 미래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4) 기 타

(1) 부적절한 조사 사용

- 우리는 중군 위안부 문제를 덮어 두려고만 하는 일본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 우리는 중군 위안부 문제를 덮어 두려고만 하는 일본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2) 겹조사 남용

-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며,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 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다.
-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며,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 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다.

(3) 한자어 접미사 '-적' 남용

- 예술가가 예술적 창작 행위를 할 때는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 예술가가 예술 창작 행위를 할 때는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4) 복수형 접미사 '-들' 남용

- 우리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
-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

2. 논리적 결함을 가진 문장

1) 부적절한 어휘 사용

(1) 개념에 어긋난 어휘 사용

- 현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태양력, 조력,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 현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태양열, 조력,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

(2) 의미 관계를 무시한 어휘 사용

- 사진 촬영은 근대에 들어와 새롭게 생겨난 예술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 사진 촬영은 근대에 들어와 새롭게 생겨난 예술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3) 동일 어휘의 반복

-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과학이어야 한다.
- 과학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4) 비어와 속어의 사용

- 사전 심의를 거치는 동안 포르노물은 많이 찢려서 상영될 수도 있다.
- 사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외설 영화의 많은 장면이 삭제되어 상영될 수도 있다.

(5) 부정확한 한자어의 사용

- 유명 화가들의 작품은 대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에 거래된다.
- 유명 화가들의 작품은 대부호가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에 거래된다.

(6) 근거 없는 수치 사용

- 10년 전보다는 1년 전이 서민들이 살기에 좋은 시절이었다.

2) 구어체 문장의 사용

논술문에서는 입말과 글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논술문을 작성할 때는 구어체 문장을 삼가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본말을 사용해야 한다.

- 그래서 우리는 전통 문화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
- 그 결과 우리는 전통 문화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
- 경제 개방에 따른 문젠 미리 보완했어야 한다.
- 경제 개방에 따른 문제를 미리 보완했어야 한다.
- 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일치한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는다.
- 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일치한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3) 1인칭 주어의 사용

- 내가 생각한 내용을 말해 보려고 한다.
- 나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반대한다.

4) 현학적 표현의 사용

-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다.

5) 번역투 문장

· 사이버 종교가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믿어지고 있다.

→ 일부 사람들이 사이버 종교를 믿고 있다.

· 환경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할 것은 선진국의 환경 보존에 대한 태만이다.

→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확인할 점은 선진국의 환경 보존에 대한 태만이다.

· 국가 경쟁력의 토대 중의 하나는 기술력이다.

→ 국가 경쟁력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기술력이 있다.

6) 글 쓰는 과정을 표현한 문장

· 그러면 지금부터 서론에서 제기한 ~ 살펴 보기로 한다.

→ 앞 단락에서도 언급했듯이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3. 객관성이 결여된 문장

1) 감정의 개입

일본 대중 문화 시장을 개방하다니! 어떻게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상대방 주장 매도

한글 전용만을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

3) 모호한 입장(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같다, ~듯하다, ~르 것이다, ~일지도 모른다,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 우리 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최상급 표현

실업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염려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이다.

→ 실업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다.

4. 연습 문제

※ 다음 문장들을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치시오.

1.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_____

2. 현재의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_____

3. 요즘 같은 때에는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 _____

4.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 _____

5.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자.

→ _____

6. 소매치기가 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승객들에게 붙잡혔다.

→ _____

7. 예술 사진은 감상자를 감흥시킬 수 있어야 한다.

→ _____

8.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발표되었다.

→ _____

9. 고고학자들의 의문은 왜 과거의 화석에 현대인과 같은 존재의 흔적이 없느냐이다.

→ _____

10.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개인 사업의 분야의 하나는 음식업이다.

→ _____



1 강해답

- 1) 논 제 : 기계의 발전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양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 2) 논점 1 : 제시문 (가)와 (나)의 요약
 논점 2 : 기계의 발전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 미친 영향
 논점 3 : 기계의 발전이 인간의 문화 양식 변화에 미친 영향
 논점 4 : 기계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사회적 관계 변화와 문화 양식 변화가 갖는 의미

2 강해답

- 1) 논 지 : 컴퓨터 이용으로 1. 세대 간의 갈등과 단절감의 심화, 2. 실제의 인간 관계의 경시 풍조 만연, 3. 불건전한 정보 이용의 편중화 현상 심화 등으로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2) 주제문 : 컴퓨터 이용 증대는 인류의 미래의 비인간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3 강해답

- 주제문 :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서론 : 1. 과학에 대한 지나친 믿음의 사례
 2. 과학적 사실과 방법이 과연 절대적 진리의 기준인지 문제 제기
- 본론 1. 과학적 방법에 대한 설명
 2. 과학적 방법을 통한 과학적 사실 검증 과정 설명
 3. 과학적 방법과 사실이 갖는 오류와 한계 설명
- 결론 : 과학 발달을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과 사실이 갖는 오류와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4 강해답

개인과 사회는 상호 보완적인 유기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양자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만을 우성시하는 전체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예를 우리는 파시즘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개인만을 우선시하는 관점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자유라는 명목 하에 무차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실존적 실체는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존재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개인과 사회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유기체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 강해답

해답 없음

8 강 해답

1. 논제 : 현대 사회에서 광고 윤리 확립의 필요성과 광고 윤리 확립의 방안은 무엇인가?
2. 논지 1 : 현대 사회에서 광고 윤리 확립의 필요성
논지 2 : 광고 윤리 확립의 방안
3. 논거 : 과장 광고 범람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확산
좋은 광고의 모델 제시
광고의 목적과 더불어 공익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재인식

9 강 해답

- (①, ② 활용) 필자는 제시문에서 사회가 개인의 욕구를 조장하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거의 맹목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따르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한때는 반공을 부르짖으며 북한을 무슨 괴물집단처럼 여기다가 이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 몸의 일부, 한 동포라는 식으로 떠돌고 있는 TV 뉴스는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아첨꾼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의식이나 욕구는 조장될 수밖에 없다.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다. TV 광고나 드라마 속에서 강렬한 눈빛과 늘씬한 몸을 가진 젊은이가 멋있게 들이키는 콜라는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상품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온다. 그러나 이런 교묘한 조작이 순수한 정보 제공이나 오락의 도구인 것처럼 포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생산자의 의도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 (③, ④ 활용)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산업 사회 문명이 겉으로는 안락함과 자유로운 욕구 충족의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문명의 산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킨다는 점을 서서히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 자신이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도 아닐뿐더러 상품에 대한 구매 행위나 그에 필요한 자본은 권력자나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되기 쉽다.
- (⑤ 활용) 이처럼 사람들은 통제된 사회에서 유일하게 상품을 통해 자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좁은 백화점 통로에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물건 고르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다.
- 가 : 선녀는 나무꾼의 장점을, 나무꾼은 선녀의 장점을 말하고 있다. 서로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신뢰하고 있으며 고마워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또한 상대에 대한 세세한 관찰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 서로에 대한 애정이 넘침을 알 수 있다.
- 나 : 평범한 아낙네가 남편을 위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병든 남편에게 화채를 만들어 주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배, 감, 유자, 석류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화당을 빠뜨린 것을 깨닫고는 한탄하는 내용이다. '아차차 차'하는 감탄사를 적절히 구사하여 여인의 당황하는 모습과 남편에 대한 여인의 애뜻한 마음씨를 해학적인 솜씨로 표현해 내고 있다.
- 다 : 가난으로 인한 한(恨)을 지니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해 내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박 타는 '흥부 부부'를 소재로 하여 표현하고 있다. 흥부 부부는 안분 지족(安分知足)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사는 인간상으로 나타나며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 온 흥부 부부를 서로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로 일컫고 있다.

11 강해답

1.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다.
2. 내 성공의 비결은,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그 일에 정진한다는 데 있다.
3. 나는, 언어는 유한한 수단을 무한하게 부려 쓰는 것이라는 훔볼트의 언어관에 공감한다.
4.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여 강력하게 떠오르는 동남아 국가들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5.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
6. 생사 여부를 확인하러 온 가족들 중 어떤 사람은 시체를 확인하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7. 이 책은 요즈음 많이 읽히는 신간서이다.
8. 자연 환경의 오염은 인간의 죄악이다.
9. 그러한 부정적 견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10. 모든 한국인은 국어를 사랑해야 한다.
11. 우리는 힘을 합쳐 회사를 살리자고 다짐했다.

12 강해답

1.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2. 현재의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3. 요즘 같은 때에는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4.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5.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자.
6. 소매치기가 도주했으나 곧 승객들에게 붙잡혔다.
7. 예술 사진은 감상하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8.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9. 고고학자들의 의문은 왜 화석에 현대인과 같은 존재의 흔적이 없느냐이다.
10.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개인 사업 분야는 음식업이다.

2. 주제별 논술 특강

1강 개인과 사회

2강 현대 사회의 문제(인간 소외)

3강 과학 기술의 발달과 생명 공학

4강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5강 가치판단과 윤리

1

강

개인과 사회

I

주제 특강

■ 주제 설정의 의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어떠한 일을 피하거나 개인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관심거리는 사회 체제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인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꿈을 실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라는 주제는 이러한 사회 체제와 집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를 다룬다. 그 동안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인간의 본성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특히 서양 철학에서는 1920년대 이후,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단일한 결론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이해와 해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인간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특성을 다른 사물들과 구별해 봄으로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정치적 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유희의 동물이다.'와 같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서양에서는 인간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이성'을 꼽고 있다. 합리주의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이성은 감성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앎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로 경험주의자들은 감성을 중시한다.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 이성인가 감정인가? 아니면 이 둘을 포괄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성과 감성은 타고나면 서부터 가지게 되는 인간성의 보편적 특성인가?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의 본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사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회가 공유한 문화유산들을 습득하고 사회화하는 과정 속에서 본성이 형성되지 않을까?

공자는 '인간성은 태어날 때는 서로 비슷하지만, 사람마다 학습하는 방법에 의해 달라진

다.'고 말했다. 즉,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성과 감정이 각자의 환경과 사고, 생활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짐을 말한 것이다. 이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인간 본성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측면에서 짐승과는 다르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할 뿐 인간처럼 이성과 감성에 의해서 사유하지는 못한다. 인간의 선악은 바로 본성에 대한 사유의 결과이다. 정말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이는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와 사회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인간 자신의 본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 개인과 사회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말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뜻한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여기에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생긴다.

-개인이 먼저인가 사회가 먼저인가?

이 문제는 '암탉'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의 문제에 비유될 수 있다. 개인이 없다면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계약에 의해 모든 문화, 제도, 질서 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개인이 사회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은 홀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화란 말을 자주 쓴다.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의 관습, 규범, 의식 구조, 생활양식들을 하나하나 습득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사회가 개인들을 규정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통하여 사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회는 다시 개인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과 사회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원자와 물질의 역학적 관계와 같이 생각한다. 원자가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질이 없다면 원자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존재성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다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세포와 유기체의 관계와 같이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명적 존재를 위한 생성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은 스펜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존재나 생성의 과정에 그치지 않는 보다 높은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면서 생성하며, 생성하면서 문화 역사를 창조해 가는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발전과 비약을 가능하게 하는 변증법 관계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대체로 갈등과 불행은 두 가지 경우에 초래되는데, 하나는 전체로서의 사회가 개체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억압했을 때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스스로 속해 있는 사회에

반향을 하며 대립을 일으켰을 때이다. 니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사회와 비도덕적인 개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는 사회를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러한 관계는 역사의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뒤, 당분간은 개인과 사회가 동질적인 내용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사회는 반드시 현상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세력과 그에 항거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 이때 새로운 이념과 방향을 추구하는 개인은 언제나 기성의 것에 대해 반발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헤겔을 비롯한 변증론자들은 이것을 사회와 역사에 있어서의 변증법이라고 설명했다.

■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로 구분한다. 심리적 이기주의란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한다는, 즉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홉스, 맨더빌, 벤담 등이 취한 입장이고 경제학에서의 '경제인'과도 매우 유사한 것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적으로 살아간 성자들이 있고, 보통 사람들도 때로는 순수한 동정심이나 의무감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가? 심리적 이기주의자들은 겉으로 비이기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도 사실은 명예나 내적 만족 등을 얻기 위한 이기적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윤리적 이기주의란 행위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주장으로 모든 개인은 각자의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무정부적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를 극복하여 자기의 이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이 옳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리적 이기주의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견해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들 수 있다. 스미스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적 선이 다른 경우보다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경제 주체가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진실로 의도할 때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때가 있다." (『국부론』)

실상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주의는 비난의 대상이 될 뿐, 일반적으로 승인 받기 어렵다. 우리가 진지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기주의는 인간들의 이기적 성향을 인정하면서도 인간들이 지켜야 할 일정한 규칙과 계약을 받아들이는 이기주의이다. 여기에 따르면 이 규칙과 계약 하에서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행위가 된다. 앞에서 살펴본 홉스의 견해도 개인들이 이성적 약속(계약)을 통해 마련된 규칙과 규범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계몽된 이기주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기주의는 이미 철저한 이기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을 사회에 우선하는 것으로 놓는 입장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입장이다. 근대와 더불어 이룩된 자본주의의 발전은 개개인의 창의적 노

동과 자유스러운 상거래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여기에 따라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나갔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특히 근대 초에 중세의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민 질서를 이루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근대의 사상가들은 인간이 이성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회 질서는 이러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근대의 중심적 사회 이론인 사회 계약론은 이렇듯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신분적 억압을 깨뜨리고 인간 개개인의 권리와 가치를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을 중시한다는 점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볼 때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지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개인주의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 할 때, 공익을 위한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둘째,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나 국가의 간섭을 최소로 할 때, 개개인의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불평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에는 타인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집단에 대한 소속감 등이 부족하기 쉽다. 또 개인주의만을 고집할 경우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가 이익과 관련된 계산적인 관계로 흐르고 말 가능성도 크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이를 고려한 합리적 계산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요소만으로 채워진 인간관계는 삭막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오늘날 개인주의적 합리성 못지않게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인간은 사회적 존재임과 동시에 개별적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속성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비롯된다. 어떤 사회에서는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공익이 모든 개인의 이익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일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의 이익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므로 모든 것에 앞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사회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각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회 체제를 '전체주의'라 부르며, 반대로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회 체제를 '개인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면 과연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개인주의는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여 그것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모든 사회적 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이 반드시 전체의 공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양자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전체 국토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설치하는 그린벨트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이익과 배치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기주의와 쉽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각 개인의 피해

를 최소화하면서 전체의 공익을 위해 약간의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 공리주의이다.

한편, 전체주의 역시 전체 사회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저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의 충돌을 전체 사회의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잘 조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함으로써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 하더라도 수단이 좋지 않으면 옳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체 사회의 이익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에 따르는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고 또 그것에 이르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면 이 역시 옳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전체주의는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언제나 위험스러운 체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주의는 개인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겨 지나친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므로 개인주의냐 전체주의냐는 하나의 딜레마이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최선의 선택은 개인주의냐 전체주의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이 최대한 일치하는 사회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민주적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사회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국민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민 개인이 민주적 사고와 행동을 하고 민주주의 이념이 국민의 전체 생활양식에 반영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주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최선의 자아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 이념이 생활양식으로 구현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인간관계의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사회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하여,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이념이 구현될 민주사회는 인간의 능력을 믿고 개성을 존중하는 다원 사회이며, 자율적 활동이 존중되는 지성 우위의 사회이며, 과학적 실험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협의와 협동을 중시하고 다수와 소수가 다 같이 존중되는 사회이며, 공공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이며, 법이 다스리는 사회이며, 진보 사회이며 개방 사회이다.

민주주의에서 의미하는 '사람'은 특정한 몇몇 개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의미한다. 개인이 지닌 창의성, 자율성,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민주 사회이다. 따라서 민주 사회는 다양한 대안의 여지를 열어 놓음으로써 진정한 선택이 가능한 사회이다.

민주 사회는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다양성을 허락하고 장려한다. 민주 사회는 인간의 지성

과 경험의 중요성을 믿기 때문에 문제를 소수의 자의나 힘으로 또는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의 의견은 물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집결된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나 법이 규정되며, 이렇게 규정된 정책과 법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특성이다. 민주 사회의 최종 목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최대한으로 증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의견에 따르기보다 만인의 의견에 따라 생활 원리를 규정하게 된다.

민주 국가의 특성은 공개적이고 개방적이며, 유동적이고 진보적이다. 모든 정책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 내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만인이 알 수 있고, 국민의 여러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사람의 능력을 믿고 그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사회 역시 계속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한다. 민주 사회는 완성된 것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상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믿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협동하고 노력하고 있다.

II

기출 문제

■ 이화여대(2003년 정시)

【문제】 소문이나 평판으로 형성되어 나타나는 타인의 시선은 개인의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세 글을 논의의 근거로 삼아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가) 당신이 아무 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얘기했느냐고 당신은 물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소문이라는 놈이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렇다면 나도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사람이란 말인가?" 하고 당신은 반문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대단찮게 여기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 지방에서는 거물일 수도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잠은 얼마나 자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고 또 잘 알고 있기도 할 것이다. 그런 만큼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행동거지를 더욱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중인환시(衆人環視) 속에서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하구나 하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집 안의 벽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생활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문지기를 두게 된 것도 양심의 거리낌 때문이지 명예나 긍지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땀땀치 못한 것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도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을 숨겨 남의 눈이나 귀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 없으면 군중의

시선은 환영할 만한 것이 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혼자 있어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법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몇몇한 일이라면 모든 사람이 알아도 상관없을 것이고, 추악한 일이라면 당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상에는 남들이 알든 모르든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나) 인쇄업자로서의 신용과 평판을 지키기 위해 나는 실제로 근면하고 검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일은 피하도록 주의했다. 나는 옷을 수수하게 입었고, 노는 데는 나가지 않았다. 낚시질도 사냥도 하러 나가지 않았다. 이따금 책을 읽기 위해 손에서 일을 놓아야만 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드문 일인 데다가 남의 눈에 띄는 일도 아니었으며 나쁜 평판을 들을 일도 아니었다. 또 나는 열심히 장사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 상점에서 산 종이를 손수레에 싣고 일부러 거리를 달려 집까지 오곤 했다. 이와 같이 해서 나는 부지런하고 유망한 청년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또 산 물건값은 꼭꼭 지불했으므로 문구류 수입상들이 나와 거래하고 싶어 했고 책을 공급해 주는 사람도 늘어나 매사가 순풍에 돛 단 듯이 진척되어 나갔다.

나는 또한 겸손이란 덕목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겸손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할 때, 나는 타인의 주장에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나 참기로 했다. '확실히'나 '틀림없이' 등의 표현 대신 "나는 이렇게 해석 한다"든지 "현재 내게는 이렇게 생각 된다" 등의 조심스런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런 겸손한 태도는 내 타고난 천성은 아니어서 처음에는 억지로 해 본 것이나,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의 습관이 되었다.

(다) 서로 잘 알고 있으며 또 개인적인 유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통제 메커니즘이 일탈자나 일탈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항상 발휘된다. 그것은 설득, 조롱, 속닥공론(gossip), 비난 등의 메커니즘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집단 토론의 경우 개인들은 그들이 처음에 지녔던 의견을 수정해서 집단 규범이라 할 다수의 의견에 일치시킨다. 그 집단 규범이 어떤 성격을 지닐 것인가는 그 집단의 구성원에 달려 있다. 집단 역학(group dynamics)의 놀라운 현상이라 할 이 피할 길 없는 의견일치의 압력 밑바닥에는 아마도 어떤 집단에 수용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깊은 욕망이 놓여져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욕망은 선동가나 여론 형성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극히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조롱과 속닥공론은 모든 종류의 1차 집단에서는 사회 통제의 강력한 도구이다. 많은 사회는 조롱을 어린이에 대한 주요 통제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가 순종하는 것은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 몸이 오싹하는 두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속닥공론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이웃에 의해 감시당할 가능성이 많은 작은 공동체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속닥공론이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통로의 하나이며 사회 조직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조롱과 속닥공론 역시 그것의 전달 통로에 접근할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500자 내외(1400~1600자)로 서술할 것.
2. 시험 시간은 150분임.
3.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4.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지에 드러내지 말 것.
5. 반드시 흑색 연필이나 흑색 볼펜으로 작성할 것.

(1) 출제 경향 및 의도

이화여대 논술고사는 전통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사회와 관련지어 다루어왔다. 2003학년도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삶에 밀착된 일상적 문제이면서도 개인의 자아 정체성 확립, 사회적 행동 방식, 삶의 방향' 등을 다룸으로써 사회의 구심점이라 할 지식인의 기본적 자질을 묻고 있는 것이다. 또 제시문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글이면서도 평이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추면서도 폭넓은 독서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화여대 역시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활용할 만하다.

(2) 문제의 이해와 해결

① 쟁점에서의 접근

제시문을 보면, 소문이나 평판과 같은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논술하되, 제시문을 근거로 삼으라고 했다. 여기서 '영향을 비판하라는 말은 영향을 미치는, 또는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옳고 그름을 비판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람에게 따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시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 현상이 그리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은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태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수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에서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타인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의식하여 거기에 맞추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에서는 집단 사회에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메카니즘적 요소로서 조롱이나 축덕공론과 같은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제시문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제의 쟁점은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집단 사회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태도의 의의와 문제점' 정도로 볼 수 있다.

② 논변의 핵심

사회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메카니즘적 요소로서 집단의 시선을 통해 개인의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은 우선 사회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종의 규범에 따름으로써 집단에 원만하게 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적응 태도이며, 나아가서는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써 사회적인 성공을 꾀하는 적극적인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은 한시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일 뿐이므로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다. 행복은 그 누구의 시선이나 외적 조건보다 궁극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에서 온다는 점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타인의 시선이란 집단의 일반적 통념의 하나로서 개인의 자아가 가진 개성적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나의 특성에 맞게 살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게 되면 역시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어렵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아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추구해야 하며, 스스로가 진정한 마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시문 출전(대학에서 밝힌 해설의 일부)

- (가)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세네카(Lucius A. Seneca)의 『도덕 서간』(AD 62년 경)
- (나) 미국의 정치인 겸 과학자 · 출판업자 · 저술가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자서전}(1791년 이후 다양한 판본 출간)
- (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L. Berger)의 [사회학에의 초대: 인간주의적 전망](Invitation to Sociology: A Humanistic Perspective, 1963)

III

실전문제

다음 글에 나타난 집단행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당손이 할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와 같이 억압된 사회 조직 안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농민대회는 소학교 운동장에서 열려 있었다.

골텐 양복 청년은 잠시 말을 끊고 앞에 모여선 농민들을 둘러보고 나서 갈린 목청을 돋구어 가지고,

"자, 그러든 이제부터 반동 지주들의 이름을 낭독하겠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동무들이 판결을 내려 주시오. 오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양이 하고, 동무들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인민재판이오!"

손에 쥔 종이 조각을 펴들고,

"첫째, 벌써 몇 대째 수많은 농민의 고혈을 착취해온 전형적인 반동 지주 박용제!"

"웁소! 반동 지주 박용제를 타도하자!"

번쩍 도끼를 쳐들며 고함치는 사람이 있었다. 도섭 영감이었다. 무엇에 놀란 듯한 얼굴들이 모두 그리로 몰렸다. 뒤엎 사람은 발돋움까지 하고 기웃거렸다. 골텐 양복 청년이 단 위에서 도섭 영감을 한 번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도섭 영감이 올렸던 도끼를 내렸다. 아차 내가 너무 빨랐구나 하는 낮빛이었다.

골텐 양복 청년이 이어,

"이 반동 지주 박용제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면협 의원이 되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편,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옷골에 저수지를 판다는 명목 하에 수많은 농민의 피와 땀을 착취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새롭소! 이 박용제를 우리 민주 발전의 해독물로 규정짓는 데 이의가 없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

"웁소오! 반동 지주 박용제를 타도하자!"

여기저기서 쟁기가 올라왔다. 그런데 그 대개가 오늘 각 동네에서 농민들을 인솔해 가지고 온 낫선 사람들이었다. 이번에는 조심해서 도끼를 쳐든 도섭 영감이 고개를 돌려 자기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다. 모가 선 눈이었다. 왜들 미리 일러준 대로 손을 안 드느냐는 것이었다. 이 눈에 마주쳐 강 목수와 칠성이 아버지가 쟁기를 들었다.

골텐 양복 청년이 다시,

"동무들! 조금두 주저할 게 없소. 동무들의 자유를 구속할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고, 어서 손을 드시오. 만일 우물쭈물하다가 반동에 가담했다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써서는 양이 되오!"

차차 눈치를 보가며 쟁기를 드는 사람이 늘어갔다.

"잘 알았소!"

청년이 크게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러면 이 반동 지주 박용제를 우리 민주 발전의 해독물로 규정 짓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믄 손을 드요!"

그리고 획 모여선 사람들을 훑어보고 나서,

"한 사람두 없소?그러면 다음으로 이 전형적인 반동 지주 박용제의 조카이며 역시 악질 반동 지주인 박훈을 인민재판에 걸기루 하겠소. 사실은 이 박훈이가 우리 면에서 제일 악동 반동분자요! 이 박훈은 날마다 술루써 소일하믄서 우리 민주 혁명에 불평을 품고 있는 자요. 그리구 무지한 청년들을 유혹하여 반동 결사를 조직해가지구 동 농민위원장 동무를 살해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박훈이요. 그뿐 양이라, 지주의 권력으로 소작인의 딸이자 남의 유부녀인 여성동무를 유린한 자가 바로 박훈이란 자요. 시방 이 자리에 그 피해를 입은 아버지와 남편이 와 있소!"

농민들 가운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여기 동 농민위원장 동무가 그 아버지요, 순안 민청 부위원장 동무가 그 남편이 오!.....이 모든 점으로 봐서 악질 반동분자이며 악질 반동 지주 박훈을 숙청 하는 데 이의가 없을 줄 아오!"

"웁소오! 악질 반동분자, 박훈을 타도하자아!"

좀전보다 쟁기 드는 수가 많아졌다. 남의 눈치를 보며 드는 축도 좀전보다는 쉽게 수가 늘어갔다.

"다음은 반동 부제지주 윤기풍을 인민재판에 걸기루 하겠소! 이 윤기풍은 벌써 칠팔 년 전에 평양 들어가 집 장사를 하는 한편, 고리 대금업으로 수많은 농민의 고혈을 착취해오는 악질 부제 지주요. 이 악질 부제 지주가 얼마 전부터는 옷골에 나와 갓은 흥계를 꾸며 가면서 우리 민주 발전을 방해 하고 있소. 그 일례를 들면 순박한 농민 동무들을 속여 토지를 매각하는 한편, 어떤 소작인들을 꼬여 가지구 자기가 자작하지두 않은 토지를 자작한 걸루가 장한 사실이 있소. 이 악질 반동부제 지주 윤기풍을 숙청하는 데두 이의가없을 줄 아오!"

"웁소오! 반동 부제지주, 윤기풍을 타도하자아!"

좀더 많은 쟁기가 대번에 올랐다. 보아하니 모두 쟁기를 드는 바에는 쥐뿔나게 자기가 늦게 들 필요가 무어나는 듯했다. 푸른 하늘 아래 쟁기 끝들이 번쩍이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점점 놀라움과 겁먹은 빛 대신에 어떤 알지 못할 살기마저 떠돌았다.

이런 가운데서 옷골 송관호만은 잠시 난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윤주사가 자작농을 한 것처럼 꾸미는 데 있어, 자기가 한몫 킼 것이었다. 자기가 여태까지 부쳐오던 땅 중에서 얼마를 윤주사가 자작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 그것이 성공만 되면 그 대가로 소와 달구지를 거저 가지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다. 문득 송관호의 눈앞에, 요즈음 콩만 먹여 번지르르해진 황소의 엉덩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만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기회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언제 자기 소를 매어 본단 말이나.

이때 관호는 어떤 날카로운 눈초리가 자기 얼굴에 와 머물러 있는 것을 느꼈다. 보니 오늘 자기네를 인솔해 가지고 온 공작대원의 눈초리였다. 저도 모르게 쇠스랑을 번쩍 들었다. 그

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조용히 사정을 말하자. 실은 자기가 부치던 땅이지만 윤주사가 한 부분 자작한 것으로 해줘야 소달구지가 자기 것이 되겠기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사정을 들어 주겠지. 동네 사람들도 자기네 손해 볼 일 아니니 내 말을 거들어 줄 것이고.

모여선 사람들의 뒤흘 가장자리를 돌고 있던 공작대원 하나가 노기 띤 언성으로 소리 질렀다.

"노인동무는 왜 아까부터 손 한번 안 드요?"

당손이 할아버지였다.

"민주개혁에 무슨 불평이라도 품고 있소?"

"난 아무것도 모르우."

"어디 손 좀 뽐시다!"

청년이 당손이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아 펴보더니,

"동무두 이르게 손바닥에 못이 백이두룩 놈들에게 착취를 당해 온 농군이 아니요? 왜 쟁기두 하나 안 들구 왔소?"

"난 아무것도 모르우."

"왜 동무는 아직두 그 노예근성을 못 버리는 거요?"

"난 아무것도 모르우."

단 위에서 골덴 양복 청년이 더 갈해진 목청을 한층 돋구어,

"그러면 여러 동무들! 이제부터 여러 동무들은 민주개혁의 용감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 길루 곧 반동 지주들한테루 가서, 직접 여러 동무들의 손으로 숙청하기루 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말해 둘 것은, 우리의 이 성스러운 과업을 완수 위해서는 무자비한 투쟁만이 있다는 걸 잠시라도 잊어서는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기 자기 부락을 향해 출발합시다!"

황순원, 『카인의 후예』중에서

< 유의사항 >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200) 내외로 서술할 것.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3.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지에 드러내지 말 것.
4. 반드시 흑색 연필이나 흑색 볼펜으로 작성할 것.

■ 생각해 보기

- ♠ 출제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 제시문을 분석해 봅시다.

♠ 집단행동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 거대한 사회 조직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이러한 사회 조직 안에서 개인은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 글의 개요를 만들어 봅시다.

IV

해설

1. 출제 의도

제시문 속에 드러나 있는 집단행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거대 조직인 사회 안에서 개인의 주체적인 사고와 행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묻고 있다. 이 문제는 제시문을 깊이 이해한 후 제시문에 드러난 상황을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주체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함께 느끼며 살아간다. 사회가 점점 거대화될수록 개인과 사회와의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이 모여 이룬 것이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위력 앞에 개인은 무력하게 당하고 마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이 각자의 고유한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면 된다.

2. 제시문 분석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후의 시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카인의 후예'는 '카인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카인은 성서에서 인류 최초로 형제를 살해한 인물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카인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좌우익의 싸움과 토지 개혁의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카인'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과 충돌했을 때 어떻게 패배하며 또한 어떤 식으로 저항 태도를 취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으로 인용된 부분은 '인민재판'이라는 강요된 상황 속에 처한 군중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악질 반동 지주'로 규정되는 것은 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주민들이 아니라 소수의 '공작대원'들에 의해서이다. 처음에 주민들은 이들의 강요에 따라 쟁기를 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스스로 쟁기를 들게 된다.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서가 아닌 강요된 상황의 분위기로 인해 주체성 없는 행동을 하고 만다. 그러나 당손이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반동 지주'를 향해 '쟁기를 들' 때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주민들과 대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각자가 생각해보고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면 된다.

3. 문제 해결

(1) 제시문을 통해 집단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그 특성을 이해한다.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했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속의 상황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억압적 상황이며 소수의 권력에 의해 다수가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신의 의결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제시문에 나타난 집단행동은 각 개인들의 의견 일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소수의 폭력에 의해 작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흔히 현대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집단 이기주의와는 다

른 성격의 집단행동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 제시문에 나타난 집단행동의 문제점을 찾는다.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나타난 집단행동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집단행동'이 가져올 결과도 결과이지만 집단행동이 나오게 된 '과정'이다.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집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또 집단의 폭력 앞에 개인의 주체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권력 집단에 의해 사회가 변화된다는 결과론적 문제점도 생각해보고 이 같은 상황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본다.

(3) 이를 사회 조직의 경우로 확대시켜 생각해 본다.

집단의 폭력 앞에 무력한 주민들의 모습을 확대 적용해 보면 사회라는 조직 안에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개개인의 문제도 생각해낼 수 있다. 사회는 관습이나 법률 등의 일정한 규칙으로 개개인의 행동을 규제한다. 따라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친 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 같은 보편적인 윤리적 법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처럼 소수의 권력층이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3공화국 시절 소수의 권력층에 의해 국민들은 '새마을 정신'의 함양을 강요받게 되었다. 국민들은 경제 발전의 논리 때문에 '새마을 정신'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받아들였고 개개인의 희생까지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4) 이러한 사회 조직 안에서 개인은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다.

제시문 속 등장인물인 '당손이 할아버지'의 행동이 억압된 사회 안에서 개인의 주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손이 할아버지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서술자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손이 할아버지는 다른 마을 주민들과 달리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 같은 당손이 할아버지의 행동을 평가하고 이를 전제로 삼아 전체 논제에 접근하도록 한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찾아함께 제시한다면 논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① 사회 조직 안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당손이 할아버지가 비록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개인의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당손이 할아버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다.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억압된 사회 조직 안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쪽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② 사회 조직 안에서도 개인의 주체성은 지켜질 수 있다는 입장

당손이 할아버지의 행위는 비록 적극적인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내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항으로서의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이다. 물론 이 같은 행동이 적극적으로 집단의 행동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쪽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4. 예시 개요(개인의 주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

- 주제문 : 폭력적이고 억압된 조직 안에서 개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기는 어렵지만 당손이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의식적인 저항을 통해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 서론 : 폭력적이고 억압된 조직 안에서도 개인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
- 본론 : 1. '카인의 후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수의 권력층이 행사하는 폭력 앞에서 자신의 자유 의지를 빼앗긴 채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2. 이처럼 거대한 사회 조직 안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영향을 받아 집단 구성원들이 주체성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3. 이 같은 집단행동은 개인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으며 결국 그 집단은 긍정적인 방향의 발전이 어려워진다.
 4. 그러나 당손이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의식적인 저항을 함으로써 집단행동의 상황아래에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 결론 : 사회 구조의 거대한 힘 앞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면 개인의 주체성은 유지될 수 있다.

5. 예시 답안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라는 독재 권력에 대해 학급 성원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권력의 질서에 순응하며 생활한다. 새로이 전학 온 한병태도 처음에는 이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곧바로 학급 성원들의 제지를 받고 좌절을 겪으며 급기야 그 질서를 인정하고 침묵하고 만다. 이러한 상황을 사회의 축소로 보면 사회 조직 안에서 개인은 집단의 폭력 앞에 무참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거 나치즘이나 파시즘 등 폭압적 독재 정권에 과감하게 맞서 주체적으로 행동을 한 개인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억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해가고 있다.

집단의 폭력에 맞서 개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카인의 후예'에 등장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폭력을 앞세운 힘 앞에 한 개인이 얼마나 쉽게 주체성을 잃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공작 대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은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판결

이 내려진다. 인민재판에서 '반동 지주'로 규정되는 것은 다수의 마을 주민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공작 대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현대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되는 경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구성원들은 자의에 의해 의사를 드러내는 데 비해 '카인의 후예'에 등장하는 주민들은 타의에 의한 강제적 의사 결정에 따라 집단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제 3공화국 시절 국가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을 창안하여 국민들을 계도했다. 우리 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근대 국가로서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정신이나 주체성을 갖기에는 주위 여건이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경제 발전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소수 권력층의 목소리에 비판적인 생각 없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었고,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개인의 주체적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소수가 집단 전체의 의사를 좌우했던 것이다.

개인이 자기의 주체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타의에 의한 집단행동은 그 결과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 구성원의 자유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주체성이 말살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안이 집단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카인의 후예'에 등장하는 당손이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쟁기를 들어' 공작 대원들의 의견에 동조한 것과 달리 침묵으로써 저항을 했다. 그것이 비록 소극적인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당손이 할아버지는 분명히 집단의 폭력에 당당하게 의식적으로 맞서 자신의 주체성을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의사 결정은 소수 권력자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억압적인 힘에 굴복하여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이다. 제시문에서 당손이 할아버지는 부당한 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저항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각자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억압된 사회 조직 안에서라도 개인의 주체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 개인과 사회 권위와의 관계

어떤 사람이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 때문에 그가 그에게 부과된 일반 대중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그는 하나의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누구든지 단순히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군인이나 경찰관이 근무 중 술에 취해 있으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요컨대 개인 또는 일반 대중에 대해서 명백한 손해를 입히거나 명백한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자유의 영역을 넘어서 도덕이나 법률의 문제로 된다.

그러나 대중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 이외의 누군가 특정한 개인에게 뚜렷한 위해(危害)를 주는 것도 아닌 행위를 가지고 사회에 미치게 되는 단순히 우발적인 또는 추정적 위해라고 부를 수 있는 위해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런 경우에 생겨지는 불편은 인간의 자유라는 보다 더 큰 선(善)을 위해서 사회가 참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성년이 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여야지 사회에다 부여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실 아래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회가 비교적 우둔(愚鈍)한 성원들을 교육시켜 이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보통의 수준에까지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분별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기다려서 그 후에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벌을 주는 것 이외에는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는 그들의 생애 초기 전체를 통해서 줄곧 그들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다. 사회는 그들의 유년기(幼年期)와 미성년기의 전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 기간에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는 교육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거의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일반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론의 권위가 언제나 휘두르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사회는 잘 아는 사람들의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위에 반드시 떨어지게 마련인 자연적 벌의 지원까지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로 하여금 이밖에 개개인의 일신상의 일에 대해서까지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권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개인의 일신상에 관한 일의 결정권은 정의(正義)와 정책에 관한 모든 원칙에 의해서 그 결과를 달게 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수단을 사용하는 것만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수단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신중한 태도나 자제심을 갖도록 강요당하려는 사람들에게 강건(剛健)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형성할 자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와 같은 속박에 반항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일신상의 일에 그가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이 그의 일신상의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찬탈자적(篡奪者的)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항하여 그것이 명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위를 보라는 듯이 감행

하는 것이 기개와 용기의 표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찰스 2세 시대의 청교도는 도덕적으로 매우 편협한 광신적 태도를 보였다. 뒤를 이어서 생겨난 야비한 도덕적 문란의 유행이 그 실례이다. 품행이 나쁜 타락된 사람이나 방종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나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도 그 가해자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행위자 자신에 대해서만 커다란 해를 끼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를 문제로 삼고 있다. 그러한 실례는 나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지만 고통스럽거나 불명예스러운 결과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체로 유해하기보다는 유익할 것이다.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 사회가 간섭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은 사회가 감히 간섭을 하게 될 경우 사회는 잘못된 방식으로 간섭하거나 전연 간섭해서는 안 될 일에 간섭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도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중(公衆)의 의견이, 즉 지배적 다수자의 의견이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옳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의 이해(利害)가 무엇인지 판단하기만 하면 되고, 어떤 행동의 양식이 일단 실행에 옮겨지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그들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다수자의 의견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하나의 법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옳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여론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대체 무엇이 좋으며 나쁜 것인가에 대한 일부의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중은 자신이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무관심의 태도로 사람들의 즐거움이나 편익은 전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라면 어떠한 것이든가에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중에서

■ 인용 글 해설

『자유론』은 전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9세기 중엽 자유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 명작으로 자유에 대한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다. 제1장은 서론으로 '자유'와 '권력'의 대립 문제가 개인과 다수자의 투쟁이라는 문제로 나타나기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개인은 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자의 전체'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진리 발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형벌이나 여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3장의 「복지의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서의 개성에 대해서」에서는 행동의 자유, 생활의 자유를 논하고 있으며 그것이 습관이나 전통에 지배되면 개인이나 사회의 진보가 정체된다고 논하고 있다.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에 대하여」에서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상호의 이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논하고 있다. 제5장 「응용」에서는 이상의 여러 원리를 실제 문제에 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인 교육이나 정부 간섭의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인용문은 제4장의 일부이다.

– 각 단락의 요지

- (1) 어떤 개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반 대중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행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문제는 도덕이나 법률의 문제가 된다.
- (2) 행위 자체가 대중에게 명확한 위해를 가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초래되는 불편은 인간의 자유라는 선(善)을 위해 사회가 참아야 한다.
- (3) 사회는 교육의 힘을 갖고 있고 여론이나 자연적 별의 힘까지 갖고 있으므로 개인의 일신상의 행위에까지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4)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개개인의 행위에 관한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주어 서 그 결과를 당사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 (5) 개인적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다른 사람의 의무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달리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2

현대 사회의 문제(인간 소외)

I

주제 특강

■ 산업화와 정보화

산업화를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공업중심적인 사회경제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8세기, 19세기 산업 혁명 기간을 거치면서 산업화 과정을 쉽게 이해하면 한마디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가능케 한 '공업화'라 할 수 있다. 공업은 농업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을 값싸게 생산해낼 수 있다. 값싼 대량의 제품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소비자를 필요로 하였고, 이는 공급과 수요라는 자본주의적 시장 법칙이 빠르게 확산되게 하였다. 초기 산업화를 주도했던 나라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20세기 후반에 오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산업화를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삼게 되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산업화에 적절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는 곧 서구 사회를 모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후진국들에게 있어서 근대화(modernization)는 곧 서구화(Westernization)를 의미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정보화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보의 생산과 처리, 축적, 유통, 공급에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컴퓨터나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micro electronics)화가 진행된 상태를 의미한다. 정보화의 개념은 1960년대 일본에서 제창된 것으로,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수치로 나타낸 정보화지수는 통신망·정보기기·통신기기·텔레비전 등의 설비지표와 국제전화·인터넷 등의 이용지표, 통신에 관련된 투자와 논문, 관련 종사자 등의 지원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정보화는 생산과 경영의 측면에서는 공장이나 사무실에 전자정보기기가 도입되어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생산기술이나 경영전략에 관한 정보에 대한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처리, 축적, 유통,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 및 필요한 소재나 기기를 제공하는 산업, 즉 정보산업이 발달하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종래의 농림어업·공업·서비스업도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디자인이나 브랜드, 그리고 정서적 만족도 등과 같은 부가가치로서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 산업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직업 분야에서는 정보의 생산, 처리, 축적, 유통, 공급과 관련된 직업, 특히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또한 사회생활에서는 정보기술을 배경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정보활동이나 정보소비가 왕성해지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현상을 고도정보화라고 일컫기도 한다.

흔히 정보화 사회를 정의할 때 미국의 문명평론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자주 인용하게 된다.

토플러는 오늘날의 변화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물결(wave)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려 했다. 그는 인류 역사를 다음 3개의 물결로 구분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농업 문명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수렵인, 어로인, 유목인 등이 약탈 농업을 끝내고 정치 생활을 시작, 촌락이 형성되고 나서 '문명'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물결이다.

이 물결이 계속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에 이른바 제2의 물결이 일어났다. 기계가 발명되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량 소비, 매스 미디어, 大衆 교육 등이 확산되면서 공장식의 시스템에 토대를 둔 생활이 전개된다. 이것이 제2의 물결이다.

그리고,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하고 빠른 속도로 몰아쳐 오는 미래의 문명을 토플러는 제3의 물결로 이름 붙였다. 인류는 미래를 향한 일대 비약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징조는 오늘날 인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각종 위협과 좌절들, 예컨대 석유 파동이라든가 격심한 경제 변동, 자연의 황폐화, 인플레이션, 폭력과 테러의 만연, 전쟁 그리고 산업화가 가져다 준 인간의 규격화, 집단화, 몰개성화 및 도덕의 타락 등이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개인적 혼란을 겪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등 미래의 충격을 받게 되지만, 불가피하게 제2의 물결은 제3의 물결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제3의 물결의 징후를 우리 일생 생활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 비디오 게임, 은행의 컴퓨터화, 전자주택, 생산과 소비가 새로 결합된 프로슈머(prosumer)의 등장 및 기존 질서의 퇴조, 분권화 등에서 새로운 물결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산업 사회로 구분되고 있는 '제2의 물결'의 사회는 대중·대량의 사회이지만, '제3의 물결' 사회는 탈 대량화된 사회라고 말한다.

■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현대인들을 규정할 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빠지지 않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각각의 개념이 갖는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산업화로 인한 폐해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두 개념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철학'의 하나이다. 대체로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며, 비교적 구속받지 않는 개인 또는 자아를 강조한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이 '극단적이지 않은 이기심, 곧 인간이 자기 가족과 친구 등 좁은 영역에만 관심을 갖는 속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처음 만들어 썼다.

개인주의는 하나의 철학으로서 가치체계, 인간본성론, 일반적인 태도나 기질, 그리고 특정한 정치·경제·사회·종교 제도에 대한 신념을 포함한다. 가치체계는 3가지 명제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가치는 인간 중심적이다. 다시 말해 가치는 반드시 인간 자신이 만들어내지는 않았더라도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사회란 개인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어떤 사람도 타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명제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듯이 모든 개인은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개인주의적 인간본성론은 보통 성인의 경우,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와 책임, 목표를 이루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념은 자기의 이익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각 개인이고, 교육을 받은 개인은 어떻게 그 기회를 발전시킬지를 알 수 있다는 확신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행위가 개인의 발전과 사회복지(개인주의가 생산적인 노력에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에 이바지한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으로만 파악된다. 각 개인이 독립적이며 관념적으로 거의 자기충족적인 실체임은 물론이다.

일반적 태도라는 면에서 볼 때 개인주의는 자립·사생활·타인에 대한 존중에 높은 가치를 두는 입장에 있다. 소극적으로 권위를 비롯해서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통제(특히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를 반대하며, 한편으로는 '진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진보에 이르기 위해 개인이 타인과 구별되려고 하거나 경쟁하고 앞서갈 수(또는 뒤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주의는 이런 원리들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체화된다. 가장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의 경우, 무정부주의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개인주의자들은 정부가 최소한으로 삶에 개입하며, 사람들이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막고, 약속(계약)이 자발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등 치안유지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에 의해 대체로 국가는 필요악으로 규정되며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표어가 지지를 받는다.

개인주의는 또한 각 개인이나 가족에게 재산을 획득하고 관리하며, 적당한 때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소유체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개인주의가 보장하는 결사(結社)의 자유는 그 결사에 참가하거나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권리로 연장된다.

개인주의적 사상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대규모 사회조직이 나타나면서 빛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개인주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원칙에 따라 사회조직을 부각시키는 이론(집단주의)이 새로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되살아나면서 개인주의는 집단주의적 움직임이 빚어낸 비인간화경향을 저지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기주의는 선(善)이 자기 이익의 추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윤리이론이다. 이 말은 때로 자신의 가치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을 뜻하는 자기중심주의(egotism)라는 말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철학적으로는 이기주의는 모든 철학의 기저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이기주의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극단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개인주의'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기주의'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두 개념 사이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관심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 황금만능 주의

자본주의는 모든 생산품에 적절한 화폐가치를 매겨 놓고, 교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마저도 그 가치가 계량화되어 하나의 상품이 되고 있다. 노동이 철저하게 분업화되고 광범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업에서 인간은 기계를 작동시키는 또 다른 기계일 뿐이며, 개인은 개성을 상실하고 기계의 소모품으로서 톱날과 같은 것이 되었다.

사랑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능력, 외모, 학벌 등으로 개개인의 값어치를 평가하여 자신의 값어치보다 높거나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시장의 상품이 내용보다 디자인이 중요시되듯이 인간도 내면의 자기수양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와 사회적 위치에만 연연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는 물질지상주의를 낳으며 인간의 존엄성 추락, 인간과 물질의 가치의 전도 등의 폐해를 가져왔다.

황금만능주의란 이러한 자본주의의 한 산물로서 돈(물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식이다.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먼저, 도덕성 상실을 들 수 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은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돈으로 해결 된다는 의식의 확산을 가져와서 각종범죄 행위의 증가를 초래한다. 돈으로 성을 살 수도 있고, 권력도 향유하며,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정상적인 추구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 질서와 인륜을 파괴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늘어만 가게 된다. 정치인들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저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모습이라든지, 기업의 윤리가 공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단을 도외시한 채 극단적인 이윤추구에만 골몰하는 현상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좋은 것의 가치가 비싼 것이 되어 버림으로써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부를 수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확산되게 된다.

■ 인간소외

'인간 소외'의 사전적 의미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 사회에서,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들 사이의 정신적 유대가 허물어지고 인간미가 없어져, 인간성이 소외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처럼 소외의 의미 속에는 어떤 상태, 사물, 인간으로부터의 불신, 분리, 불만, 증오, 이탈, 적개심 등의 감성을 가질 때 소외, 즉 인간적 소외로 함축시켜 생각할 수 있다. 소외개념을 사회 과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처음으로 체계를 세운 사람은 마르크스이다. 그의 소외이론은 역사 철학적인 면, 이론적인 면, 그리고 경험적인 면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는 노동자의 소외를 사회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네 가지 종류로 제시하고 있다.

- 첫째,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 둘째, 생산수단과 생산활동으로부터의 소외
- 셋째, 유적존재로부터의 소외
- 넷째, 동료로부터의 소외

베버는 소외의식은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고 현대 사회의 전문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 군인, 학자, 공무원 또는 그밖의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했다. 에릭 프롬도 마르크스가 노동을 하는 사람들만의 소외의식에만 몰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오늘날 화이트칼라들이 육체 노동자들보다 오히려 더 소외되고 있어서 소외가 노동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소외현상은 거의 전면적이어서 인간과 노동의 관계, 인간과 사물, 국가, 동료 및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에도 만연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경향과 정보화의 커다란 파도 속에 놓여 있으면서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기보다는 물질이 선이 되는 경향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어떤 형태의 경제구조가 적합할 것인지,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물질에 의한 인간 소외를 줄일 수 있는 것일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II

기출문제

■ 한양대학교 (2001년 정시)

【문제】 [가]~[다]는 현대인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가]~[다]에서 그 양상을 분석해내고, [라]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처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고객의 위상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소매 상점에서는 찾아오는 고객을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고객은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았고, 그의 일상까지도 상점의 주인과 함께 의논할 수 있었다. 물건을 사는 행위 그 자체에서 고객은 자기의 중요함과 품위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백화점의 경우, 고객은 우선 거대한 건물과 수많은 점원들과 잔뜩 진열된 상품에 의해 압도된다. 이 모든 것에 비해 그는 자기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를 느끼게 된다. 백화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으로서의 그는 아무런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한 사람'의 고객일 뿐이다. 백화점은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는 단지 추상적인 고객으로서 대접받을 뿐이지 구체적인 고객으로서 중요시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현대의 광고 방법에도 잘 드러난다. 거대한 현대 광고는 상품의 효용성을 강조하여 합리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기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한다. 즉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거나, 사고계의 부인과 유명한 권투선수에게 특정 상표의 담배를 붙여 물게 함으로써 권위 있는 이미지를 생기게 한다든가, 아름다운 소녀의 성적인 자극을 내세워 비판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든가, 어떤 셔츠나 비누를 삼으로써 뭔가 전 생애가 갑

자기 변화하는 듯한 그런 공상을 자극하기도 한다.

[나] 지나간 두 세기 동안 기계적인 생활 수단이 전 세계적 규모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면 생활이 풍요로워지거나 예술 창작과 향유에 쓰여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는 커녕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계화의 과정에 더욱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그 대부분이 내발적(內發的)인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상상력은 기계에 비끄러 매이거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도움 없이는 자체적 실재성을 보유할 아무런 힘도, 생존 능력도 갖지 못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17세기, 즉 기술면에서 비교적 원시적이던 그 시대의 상황과 비교해 보라. 그 당시 평범한 런던 시민들은 심지어 하인들을 뺨을 때에도 그가 저녁 시간에 벌어지는 가족음악회에 한몫 킬 수 있을 만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고려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는, 야외에서 기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유롭게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며, 휴대용 음향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면서 강변을 거니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불렀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듯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그것이었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 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 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 했다니깐요. 씨팔 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양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두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어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어다보니 안은 양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라]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대륙이나 모래톱이 그만큼 작아지듯,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다.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중1)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좋은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다.

주1) 중세 유럽의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실을 알리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하여 치던 조종(弔鐘)을 의미함.

1. 출제 원칙

- 1) 지문을 통해 기술문명사회의 인간 소외 현상이라는 문제점을 찾고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 문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유도하였다.
- 2) 고등학교 교과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 교과과정과 관련한 통합교과형의 문제이며 고전과 명작 등 널리 알려져 있는 책들에서 지문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 3) 논설문, 소설, 시 등 다양한 장르에서 발췌·인용한 4개의 지문 내용을 연관지어 논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력,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4) 비교적 긴 지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뿐 아니라 독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채점 기준 및 방법

- 1) 1인의 채점위원이 각 평가 영역을 통합하여 채점하는 통합 방식을 택하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채점위원회에서 평가 영역을 설정하고 평가 영역별 기준을 제시한다.
- 2) 3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 3) 3인의 평가 점수를 컴퓨터로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구하고 그 점수를 수험생의 취득점수로 한다.
- 4)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형식 영역

- 정해진 필기구 사용 여부, 분량, 원고 사용법·맞춤법·띄어쓰기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영역

(2) 창의성 및 표현력 영역

- 창의적 내용, 개성적 표현, 수험생 자신의 견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영역

(3) 논리성 및 내용 영역

- 논제 파악의 정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이행 정도, 논리성·합리성·명료성·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영역

3. 문제 해결 및 답안 작성 요령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의 취득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장르의 글들을 지문으로 활용하였다.

지문 (가)는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나)는 루이스 먼포드의 <<예술과 기술>>, (다)는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 (라)는 존 단의시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에서 발췌·인용하였다.

이 문제의 주어진 조건은 (가)~(다)에서 현대인이 처한 상황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분석하고 (라)를 바탕으로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먼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는 한 사람의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파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 버려 그가 누구인가는 상실된 채 수많은 불특정한 소비자 중의 어떤 한 사람으로 취급 받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나)는 또 다른 예로, 상상력이나 예술적 창의력조차도 모두 기계에 의존하게 된 현대인이 자신이 누리는 여가 시간에도 홀로 기계와 대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다)는 인간 소외로 빚어진 인간 관계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소설의 한 장면으로, 같이 동행하던 한 사람의 죽음을 나머지 두 사람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죽음에 까지 이른 그 사람의 변민이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귀찮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피해버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지문을 종합해보면 현대인은 물질화, 기계화, 인간 관계의 단절 등을 통해 인간 소외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인간 소외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시사해주고 있는 글이다.

이 시는 인간을 각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된 '대륙'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를 통해 시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은 혼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타인의 삶이 곧 나의 삶의 일부이므로 현대인이 처한 '인간 소외'의 문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사랑을 통해 극복해 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III

실전문제

(가), (나)에 나타난 현대사회의 특징과 (다)의 시적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고려하여, 현대사회의 올바른 사회적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가)

만약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서 전화를 이용하거나 텔레비전의 오락프로그램 또는 막간 뉴스를 시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 여러분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 볼 것이다. 한술 더 떠서 그들에게 '전기 생활양식'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이 진짜 괴짜가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오늘날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전제품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냥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50년대에 접어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조부모 세대들은 대부분의 시골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도 기억하고 있다. 또 도시에 전기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 전신전보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구의 끝과 끝을 연결해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게 된 것이 1세기 전의 일이다. '전기 생활양식'이 문명을 바꿔 놓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 것이다.

처음 거리와 주택에 전선이 가설되었을 때, 전기의 용도는 그저 주변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그때까지는 모두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을 전기의 잠재력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깃불은 천연가스나 등유, 양초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더 밝고 다루기도 쉬웠다. 일단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자, 전기를 이용하는 혁신적인 신제품들이 발명되기 시작했다. 냉장고, 전축, 에어컨 등등 새로운 기술을 기존 요구에 적용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혁명적인 것은 전화와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이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고안품들 모두는 우리 경제와 생활양식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켰다. 전기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인터넷 또한 전기에 의존하는 범세계적인 통신 인프라스트럭처이다 보니 인터넷의 대중적 확산을 '전기 생활양식'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기 생활양식과는 다르다. 나는 그것을 '웹 생활양식'이라고 부른다. 전기 생활양식과 마찬가지로 웹 생활양식도 그 응용품들의 급속한 혁신이라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고속접속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임계량에 도달했으므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을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PC와 같은 지능기기들이 성능은 점점 강력해지는 반면 가격은 더욱 저렴해질 것이다. 더욱이 이런 기기들은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응용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미국인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웹양식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지식을 얻고, 오락을 즐기고, 서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웹에 의존하는 것이 생활화되는 것이다. 웹 생활양식은 오늘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화를 집어 들거나 카탈로그를 본 물건을 주문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웹은 각종 청구서 요금 납부와 재산관리, 의사와의 건강 상담,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등의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무선 접속을 이용하는 소

형 전자기기들을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닐 것이다.

*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도로 · 항만 · 철도 · 발전소 · 통신 시설 따위.] (준말)인프라.

빌게이츠 '생각의 속도'

(나)

조그만 섬 도시에서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는 트루먼 버뱅크는 평범한 미국인이다. 캠퍼스 커플로 만난 아내 메릴과 홀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요트를 타던 중 아버지의 의사를 목격한 이후 생긴 극심한 물 공포증 때문에 한번도 고향 섬을 떠난 적이 없다.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첫사랑에 대한 가슴 아린 기억을 평생의 짐으로 끌며 살아가는 그에게 닥친 일들이 생기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새로운 것도 없고 신나는 일도 없는 쌍둥이 같은 날들을 살아가는 트루먼에게 어느 날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 하늘에선 촬영용 조명등이 떨어지고,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의사를 목격했던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만난다. 게다가 아내는 누구에게 말하는지 생활용품 이야기만 늘어놓고,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돌발적인 행동이 주변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느낌도 받게 된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의 행동에 의해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트루먼은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

결국 라디오에 잡힌 드라마 연출진의 목소리 때문에 트루먼은 자신의 짧지 않은 삶이 조작되고 연출된 가공의 삶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365일 24시간 방송망을 타고 전 세계에 생방송되는 '트루먼쇼'의 주인공이었다. 화장실, 가로등, 심지어 아내의 목걸이에까지 설치된 5,000여대의 카메라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하고 이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수십억 시청자들이 눈과 귀를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슬프게 하는 방송사상 유례없는 인기 정상 드라마 스타. 그의 아내, 20년 이상을 알고 지내던 친구, 심지어 부모조차도 <트루먼 쇼>의 연기자였던 것이다.

- 영화 '트루먼 쇼'의 줄거리

(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의 시 '섬'



< 유의사항 >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3.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총 1,600(±200)자가 되게 할 것

■ 생각해 보기

- ♠ (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할 때, 현대 사회의 변화의 중심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가)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봅시다.

- ♠ (나)에 드러난 현대 사회의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 ♠ (나)와 유사한 경우를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 봅시다.

- ♠ (나)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 ♠ (다)의 시적화자의 태도에서 본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 출제 의도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같은 변화는 우리의 삶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올바른 자아정체성 확립은 물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 논제는 정보화의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편리함과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정보화 사회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아울러 부정적인 면도 공존하다. 부정적인 면 속에는 인간성을 상실한 기계적이고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인간관계가 포함된다. 비인간적인 관계 형성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면을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자아상을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논제 파악

(가), (나)에 나타난 현대사회의 특징과 (다)의 시적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고려하여, 현대사회의 올바른 사회적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논제는 제시문 (가) 빌게이츠의 '생각의 속도'와 제시문 (나) 영화 트루먼 쇼에 드러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현종의 시 '섬'에 나타난 시적화자의 삶의 태도를 고려해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사회적 관계, 즉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묻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가)와 (나)에 드러난 현대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작업이고, 두 번째로는 제시문 (다)에 드러난 시적화자의 삶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단순히 지문에 나타난 현대사회의 특징을 나열한다거나, 제시문 (다)의 시적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대 정보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정적인 측면에 인간 소외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도록 주장을 펼쳐야 하며, 인간 소외의 극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3. 문제해결

1. 현대 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리해 본다. (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면들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특히, 시·공간을 넘어 빠르게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겠다. (나)를 통해서 부정적인 면에는 정보 매체의 발달은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 종속되거나 감시되는 경향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해야 한다.
2. (나)의 내용이 암시하는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면 중에서 특히 인간 소외와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게 정리한다. 가상 공간에서의 인간은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

하고 대중에 의해, 혹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이나 권력자에 의해 종속적이고 왜곡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3.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간 관계에서 '자아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다)의 시적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단절보다는 만나서 연결되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발견해서 정리해야 한다.
4. 구체적인 진술로 들어가는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사건들 중에서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문제가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서 서론에 배치한다.
5. 본론의 앞부분에서는 현대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되, 긍정적인 면에서는 생활의 편리함, 다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등을 진술한다.
6. 본론에서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서술할 때 반드시 인간소외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야 하며, 인간소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나 현대사회와 관련된 도서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결론은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면, 즉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정보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땀과 노력이 밑바탕이 된 것이므로 가상 공간에서의 정보 공유에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함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4. 예시 개요

- 서론 :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사례
- 본론 1 :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면
 - 1) 빠르고 신속한 정보 공유
 - 2)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
 - 3)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 본론 2 : 현대 정보화 사회의 부정적인 면
 - 1) 자아정체성의 혼란
 - 2) 대인관계의 지속성을 위한 노력 부족
 - 3) 끈끈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 본론 3 : 현대 사회의 올바른 인간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 1) 올바른 자아 정체성 확립
 - 2) 지속적인 대인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 3) 인간 중심적 대인관계의 형성
- 결론 : 요약 정리(본론 3을 중심으로)

5. 예시 답안

<균형 잡힌 내가 정보 사회의 주인>

얼마 전에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확인했다. 그 사건의 주동인물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병사가 군 입대 전부터 컴퓨터 게임 등에 심취해 있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은 이미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는데, 그 같은 끔찍한 사건을 원인을 말하면서 가상 세계를 언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과연 정보화 사회에서의 대인관계는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정보화 사회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가장 먼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렇게 얻은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은 또 다른 이들에게 손쉽게 전이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는 현실세계에서 맛볼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직접 생명을 길러내다 죽이는 현실의 번거로움과 아쉬움을 가상공간에서는 부담 없으면서도 현실과 비슷한 느낌으로 지속할 수 있기도 하다. 자신이 손수 길러내는 화초나 애완동물들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가상공간에서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나이, 성별, 인종, 국가를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정보 속에는 현실세계보다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느끼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가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올바른 자아정체성이라 함은 현실의 나와 가상공간에서의 나를 혼돈하지 않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GOP 총기 사건이나 무작위 살인 행각 등의 일련의 일들은 자아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상공간의 특성상 원치 않는 관계는 쉽게 만난 만큼 손쉽게 단절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필연적인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전제하는데 많은 경우 시간을 투자하려는 차분함을 잊을 때가 많다. 그러다보니 상대방의 낮은 점이라든지 아쉬운 점까지를 포용할 줄 아는 끈끈한 대인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일상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을 가상공간속에서 만날 수 있지만 현실 세계보다 훨씬 적은 이들과 긴 시간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이 나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미리 차단하다보니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귀는 조금은 차가운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에서 진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현재의 나와 가상 공간의 나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인간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내가 먼저 마음의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따뜻한 손길을 주는 것은 당연할 일이 것이다.

가상공간은 실제의 나와는 다르지만 가상공간의 내가 현실의 나와 동일한 비중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가상공간사이에서 균형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지식정보화시대의 윤리적 문제

유명한 미래학자인 토플러는 지식정보의 혁명을 '제3의 물결'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면 산업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의 특징이 육체적 힘의 확대와 강화에 있었다면, 지식정보화시대의 특징은 정신적 힘의 강화와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날의 환경변화를 보면, 인터넷이 첨단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논의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방법은 개인의 사적인 삶의 보호, 음란물의 통제, 폭력적 정보물의 규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한계, 정보와 지식의 올바른 사용문제, 검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방법은 앞에서 밝힌 대로 도덕의 전형적인 덕목 내지 기준인 사랑, 공정성, 정직성, 성의 성실성, 자유와 평등 등에 의거해 논의하는 것이다. 필자는 두 번째 방법이 보다 더 포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를 논할 때 사랑과 공정성의 덕목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도덕의 기타 덕목을 다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행위가 애타적인지 아니면 이기적인지 또는 공정한지 아니면 불공정한지 등을 당연히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로 정직성, 성의 성실성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몇가지 기준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겠다.

첫째, 정직성 또는 이와 유사한 투명성의 도덕적 기준에 의거하여 따져보자. 이러한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넷스케이프, 익스플로러 또는 유도라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야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을 불법적으로 또 부정직하게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부도덕한 행위이다. 필자가 볼 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심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지식정보화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손해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매우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거나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잘못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도덕의 기준, 즉 성의 성실성 또는 불성실성의 차원에서 지식 정보화시대의 도덕적 문제를 논해보자.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각종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음란하고 퇴폐적인 것들이 통제 없이 너무나 쉽고 광범위하게 범람하고 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참으로 소중하다. 그러나 이를 빙자하거나 악용해서 무차별적으로 성적 음란물이나

퇴폐물을 범람시킬 때 발생하는 나쁜 결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미성년자들이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나라는 한때 성도덕에 관한 한 모범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모범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더 퇴폐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기에 도덕적 내지 법적인 조치가 강력히 요청된다. 그리고 성적인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폭력물에 대한 규제도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평등과 자유는 원래 서로 다른 도덕의 덕목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 둘을 함께 묶어 논의해 보자. 옛날에는 여러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도덕적 덕목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러한 덕목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요, 또 꼭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산업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공간, 시간, 신분 등의 차이 없이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이용하는 길을 열었다. 국경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마음대로 휘 집고 다니면서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이 과거엔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지식 정보화산업의 발달로 개인 간 또는 국가 간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평등의 차원에서 볼 때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 점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부자와 정보빈자의 논리가 국가 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부가 집중되는 선진국이 정보혁명의 주요 수혜자가 되며, 가난한 국가 또는 개인들은 선진국이 생산하는 정보의 소비자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보격차로 인해 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정보 혁명은 시민에게 자유를 강화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민에 대한 감시나 반대 세력에 대한 통제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식정보화사회는 원래의 기대와는 달리 자유를 통제하는 감시사회가 될 수 있으며, 정보제국주의나 문화제국주의로 흐를 위험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의 도덕적 덕목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사회는 특히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끝으로 위에서 적용한 도덕적 기준과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상의 공간은 가상공간이며 또 가상적 자아가 움직이는 공간이다. 그러기에 도덕적 책임을 지는 윤리적 자아가 확보하는 공간 설정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는 보다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다른 기회에 다루어졌으면 한다.

— 김영진, 우리시대의 윤리, 뜨인돌

3 장 과학 기술의 발달과 생명 공학

I

주제 특강

2004년, 정부는 10년 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10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표했다. 대부분 정보통신(IT)·생명공학(BT) 등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 경쟁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생명공학(BT) 분야에서도 황우석 교수의 눈부신 기술적 성과에 의해 장밋빛 미래를 그려볼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BT가 IT 뒤를 이어서 미래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란 전망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 현재의 BT 산업의 현황은 10년 전의 IT 산업의 현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산업의 특성상 바이오가 가지고 올 영향은 IT를 능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생명공학이란?

인간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본연의 관계를 해명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과학은 1930년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세포증식·운동·유전·진화·조절 등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 현상을 그것에 관여하는 생체고분자의 구조·성질·상호작용 등에 의하여 설명하려는 것이 분자생물학인데, 오늘날 분자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신비하다는 생명현상도 과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생명과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과학 기술이 물질주의에 치우쳐 환경파괴·난치병 등과 같은 뜻밖의 폐해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을 반성하여 단순히 자연과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 윤리나 도덕까지도 포함한 인간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을 낳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세계적인 연구목표로서는 생명현상과 생물의 여러 가지의 해명, 자연환경의 해명, 정신활동의 해명, 건강유지와 의료의 향상, 식량자원의 확보, 생물 및 그 기능의 공업에의 응용, 인구 문제 등의 7항목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는 노화현상의 억제연구, 인공장기 등 의료기술에 관한 연구, 생체물질기능의 시뮬레이션과 그 응용, 사고과정의 해명과 그 정보처리 및 의료에의 응용, 생물활성 물질의 탐색과 그 응용 등이다.

오늘날 생명공학 기술은 기술적 난제뿐만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문제, 세계관의 차이에 따른 생명복제의 윤리적 관점에서의 문제, 생명과학기술이 인류에 혜택을 베풀어주기 보다는 기술의 독점으로 인한 국가간 빈부의 극심한 격차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생명 공학과 윤리적 책임

복제 송아지의 탄생, 모유와 똑같은 우유를 분비하는 젖소, 원하는 때에 맞추어 꽃을 피우는 푸른 장미, 달걀을 낳는 수탉, 상상하기 어렵던 일들이 생명 공학자의 실험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1953년 젊은 생화학자 왓슨과 크릭이 생명체의 유전 물질인 핵산(DNA)의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싹이 트기 시작한 유전자 혁명의 실체가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탄생의 신비조차도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 공학은 단순히 과학이 아닌 윤리·철학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만약 동물 복제 기술이 인간에게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 로빈 쿡의 베스트 소설『돌연변이』속에서 인공 수정과 염색체 조작으로 태어나 갖가지 재난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현실의 인간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현재 인간 생식 세포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체세포의 유전자 조작은 의학적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식물체나 가축 어류 미생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 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경제 협력 기구(OECD)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재조합 DNA 실험 지침'을 제정, 금년 내 시행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규제는 실험 절차의 통제와 사후 처벌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특히 유전자 조작과 같은 작업은 은밀하고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규제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만의 하나라도 실험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하면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올바른 윤리관과 높은 도덕성에서 우러나온 겸손과 절제의 가이드라인을 확고하게 간직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체의 본질인 유전자를 다루는 과학자들에게는 특별한 소양과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과학자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물론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훨씬 능가할 정도의 유전자 조작이 유용하다는 점을 부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인체의 질병 유전자를 찾아내어 건강한 유전자와 바꾸어 줌으로써 암이나 유전병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또 인체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유용 물질(항균성, 항바이러스성, 면역 증강 물질 등)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동물체에 이식시켜 유전형질 전환 동물이 의약품 성분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질병 퇴치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식물 유전자 조작을 통한 종자 개량도 녹색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미생물의 특성을 변형시켜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새로운 과학 기술이 인류 사회에 유용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가져다준다면 우리는 그 기술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도 없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특히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는 생명 창조에 고나한 분야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 및 여론의 환기가 필요하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불완전성, 부주의, 무지 때문에 과학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재앙을 자초한 사례를 무수히 보아 왔다. 불의 발견에서부터 시작해 화약의 발명, 원자력의 발견, 컴퓨터의 발명, 그리고 DNA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윤리 문제와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생명의 본체인 유전자를 다루는 생명 과학자들에게는 신이 내려 주신 '판도라의 상자'를 소중히 간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변광호 · 생명공학연구소장, 한국일보

■ 인간 배아 복제

인간 배아 복제란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분할하거나 혈액, 살점 등에 들어 있는 체세포만을 이용해 복제해낸 배아를 말한다. 즉, 수정란 분할이나 체세포의 핵이식 기술 등에 의해 탄생한 배아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체세포만으로도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결국 복제 인간 탄생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줄기 세포란 배아가 세포 분열을 시작해 간이나 심장 등 구체적인 장기를 형성하기 직전 단계의 세포이다. 배아복제는 이런 줄기 세포를 만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장기를 만들거나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는 요즈음 과연 배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에 휩쓸려 있다.

■ 배아 복제와 인간의 존엄성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검토

최근 입법 예고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것이다. 법안에서는 제 11조 4항에서 "누구든지 체세포 핵 이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그 허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치료용 배아 복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 등에서는 배아 복제는 예외없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과학 기술계에서는 배아복제 연구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행위나 법률, 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의 존엄성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배아 복제의 경우 그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배아 복제된 배아 자체와 복제 배아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불치병 난치병 환자는 생명 보존과 건강 회복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 대신 복제 배아는 그 생명을 박탈당하게 된다. 반면 배아 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복제 배아는 아예 탄생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생명을 빼앗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과학자는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게 되고 불치병, 난치병 환자는 생명 보존과 건강 회복의 기회 중 일부를 상실할 것이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시민 단체 등에서 그렇게 전제하듯이 '배아는 순전히 이용되기 위해 만들어져 결국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그 배아의 존엄성과 이익에 부합한다고 전제한다면 배아 복제가 허용되든 안되든 배아의 이익과 연구자 및 난치병 환자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런 이익 갈등 상황에서는 더 큰 존엄성과 더 중대한 이익을 그만큼 더 보호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려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배아복제의 경우에서도 배아의 이익과 연구자 및 환자의 이익 중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한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다지기 위해서는 배아가 도덕적으로 과연 존엄한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기독교 단체 등에서는 배아가 어린이나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며 똑같이 존엄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만약이 주장이 옳다면 배아복제는 예외없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옳을 것이다. 왜냐 하면 배아 복제와 관련해서 배아에게 문제되는 것은 '생명'이지만 연구자 및 환자에게 문제되는 것은 '연구의 자유'이거나 '건강의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설혹 치료용 배아 복제로 난치병 환자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와 동등하게 고귀한 다른 인간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과학자들 중에는 '배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배아 복제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만 내세워 그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이다 배아가 정말 어린이나 어른과 똑같은 인간이라면 배아를 복제하여 연구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 결과가 매우 유용하다고 하여 인간 생체 실험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의 논리는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아 복제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분명하게 의식했든 하지 않았든 배아를 어린이 희생시켜서 존엄한 인간의 자유와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상에서 배아 복제의 허용 여부에 대한 주장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그 주장이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인가. 시민 단체나 종교계 등에서는 배아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정란부터 성인까지의 발생과 성장 과정은 연속적이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존재라고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감각의 발생' 등의 시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배아는 아직 온전한 존엄성과 생명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자의식', '미래감', '사고능력' 등의 높은 정신적 특징인데 배아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정신적 특징의 현존만이 생명권의 근거인지는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배아가 어린이나 성인과 동등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 모두 반박될 수 없는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중 어떤 입장을 따라야 하는가. 이에 대해 종교계 등에서는 '배아가 존엄한 인간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면 혹시 배아가 인간이었을 때 인간을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배아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배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변을 펼친다.

이 논변은 이렇게 조심할 때 좌절되는 다른 이익과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배아복제의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 좌절되는 이익은 경우에 따라 그러할데 이런 경우에는 배아가 인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난치병 환자의 확실하고도 중

대한 이익을 좌절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은 '모든 배아 복제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아 복제는 연구자나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도 함축하지 않는다. 대신 '배아 복제가 가져올 긍정적 결과가 크고 중대할 때에만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이미 앞에서 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의 견해를 따라야 하는가?

물론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각자 견해에 따라서 행위하면 된다. 하지만 공적 영역의 행위에 있어서는 자기의 견해만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개인적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견해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그 사회의 다수가 합리적인 태도를 취할 때 받아들이는 견해가 사회의 법과 제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배아 복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우리 사회의 다수가 합리적 태도를 취할 때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는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물론 이 견해가 무엇인지 엄밀하게 밝히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 법의 낙태에 대한 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법은 그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태도와 생각, 합의를 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서는 태아의 존엄성을 인정하여서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이 태아의 존엄성을 어린이와 성인과 동등한 정도로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데 이는 출산이 산모에게 큰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낙태죄의 형량은 살인죄의 형량보다 훨씬 적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낙태에 대한 법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은 채 사문화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의 원인으로는 당국의 법 적용 의지의 박약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 낙태 규정을 합당한 정도 이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태아의 존엄성을 현재 낙태가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배아에 대해서는 이 태아보다도 더 낮게 그 존엄성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배아의 존엄성의 정도에 대한 이런 우리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견해에 입각할 때 적어도 우리 법의 낙태 규정이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 정도로는 배아 복제와 연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강간당한 여성이 낙태를 하지 못할 때 겪을 불이익만큼이나 배아 복제와 연구를 하지 못할 때, 불치, 난치병 환자가 불이익을 겪는다면 이런 경우의 배아 복제와 연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배아는 어린이나 성인과 동등한 정도로 존엄한 인간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아의 복제 및 연구, 활용은 그 자체만 본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그 금지가 위에서 본 정도로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아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별적 경우들을 따져 그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이 담고 있는 '배아복제에 대한 원칙적 금지, 심사에 따른 허용' 방침은 합당해 보인다. 다만 이 심사 기준이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제되는 배아 복제 연구가 불치, 난치병 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런 치료에 있어서 배아 복제 외의 다른 대안이 없거나 있더라도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것이 될 것이다. 반면 단지 '연구자의 연구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만으로는 '성형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등은 배아 복제 허용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유호중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강사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독점

미국의 Calgene사에서 개발되어 1994년부터 상품화되어 시판되고 있는 보존성이 향상된 토마토를 비롯하여 제초제 내성 대두(大豆, 콩), 병충 저항성 옥수수 등 상품화된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은 현재 약 40여 종에 달한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어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시판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여러 품목이 있다.

사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에도 품종 개량은 계속 이루어져 왔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도 꾸준한 품종 개량을 통하여 처음의 야생종에 비해 생산량과 맛이 월등하게 향상되었고, 육종의 획기적인 기술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우장춘 박사의 씨 없는 수박도 화학 약제 처리를 통한 품종 개량이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에 행하던 생물체의 품질 개량은 돌연변이 현상 등을 이용하여 수많은 유전자 중에 우연히 좋은 유전자 조합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필요한 유전자만을 선별하여 작물에 도입하는 목적 달성도가 높고, 과거에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었던 품종 개량을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따라서,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재조합 식품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앞으로 지구촌이 당면할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맛과 영양 성분이 향상된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고려도 간과할 수는 없다.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은 콩의 경우, 1999년 미국에서 재배 면적의 약 50%, 옥수수는 30% 정도 재배되고 있고, 이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콩의 자급도가 약 8%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요량의 92%인 150만 톤을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다. 콩은 대두유, 두부, 두유, 콩나물, 장류 등 가공 식품의 형태로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옥수수의 경우도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생산성이 월등히 향상될 수 있어, 중국적으로 인류가 처해 있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농약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원택,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개발 현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II

기출 문제

■ 숙명여대(자연, 2004년)

【문제】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의 생명'에 대한 태도를 각각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는 양부모에게 버림받고 인간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어린 로봇 데이비드의 이야기입니다. "He has brown hair, he has blue eyes. His love is real, but he is not real."이라는 광고 카피가 진한 여운을 주는 이 영화에서 우리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로봇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능을 가지고, 사랑을 갈구하도록 만들어진 이 로봇은 과연 '살아 있는' 걸까요? 만약 산 것이 아니라면,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로봇의 모든 행동은 그저 좀 잘 만들어진 컴퓨터 수준에 불과한 것일까요? 반대로 그 존재가 살아 있는 것이라면, 왜 로봇은 그토록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걸까요?

제가 이토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 있는 것 = 생물 = 귀하고 소중한 것'과 '살아 있지 않은 것 = 무생물 = 가치가 덜한 것'이라는 공식에 아주 익숙한 편입니다. 생명은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배웠고, 살아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해 왔죠. 그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가장 우선하는 가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생명'의 범위부터 다시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떤 게 진짜 살아 있는 것이고, 어떤 게 진짜 살아 있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오시이 마모루의 <공각 기동대>의 주인공 구사나기는 뇌를 제외한 온몸이 기계로 대체된 사이보그입니다. 구사나기는 시간만 나면 홀로 호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계인 몸은 무거워서 한없이 가라앉고 자칫 물이 스며들어 고장이 나면 다시는 떠오르지 못 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구사나기는 그렇게 물 속 깊은 곳으로 침전합니다. 과연 나는 진짜 살아 있는 인간인지, 사실 몸의 다른 부분들처럼 뇌 역시 기억을 이식한 컴퓨터 칩으로 바뀌었는데 자신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기계인 내가 왜 실존과 고독의 근원을 고민하는지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말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구사나기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은 생물과 무생물을 가르는 기존(既存)의 기준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 탄생과 성장과 죽음을 거치며, 생각을 통해 후손을 남기고, 대사 활동을 하는 것들만을 생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은희, 《하리하라의 생물학카페》

(나) 우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제 양 '돌리'라는 온

전한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 명의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유전자상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의 유선(乳腺) 조직 세포를 떼어 내어, 그 유전자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 태어날 양(羊)의 조직 형성을 조절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수정란상의 어머니입니다. 거기에서 수정란 세포를 떼어 내어 그 각각의 세포에서 유전자를 빨아냅니다. 그리고 전기적 충격의 도움을 받아 이제 핵이 빠져 버린 수정란 세포와 유선 조직의 세포를 융합시킵니다. 그러면 유전자상의 어머니의 유전 형질만이 수정란 세포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는 세 번째의 대리모(代理母)인 양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시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임신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의 유전자상의 어머니와 동일한 우리의 '둘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성으로부터는 아무런 성분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데, 선택이전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옳게 본 것이라면, 선생님은 남성적 몫에 대한 포기 때문에 전전공공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처음에는 양에게서, 그리고 다음에는 돼지에게서, 그리고 마침내 원숭이에게서 성과를 거두게 될, 아버지가 전혀 필요 없는 유전자 조작이 조만간에 인간에게도, 더 좁혀서 말하자면 여성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 점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상상에 그치지 않는 집짓기 방식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둘리'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빌머트 박사는 유전자상의 어머니, 수정란상의 어머니, 그리고 대리모로 자신을 제공하겠다고 벌써부터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당분간은 사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이자 공로가 많은 유전자 연구가인 제임스 왓슨은 이미 1970년대 초반에 특출한 인물들, 이를테면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칼라스라든지 피카소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인간을 인공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촉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학문적으로 뒷받침된 생명 윤리학입니다. 생명 윤리학이 시대에 뒤떨어진 도덕 관념보다도 훨씬 효과적이 되려면, 먼저 광범위하게 퍼진 불안감의 확산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날에 옛 방식으로 생겨난 인간 세대와 나란히 성장하게 될 복제 인간 세대에 새로운 사회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권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후베르투스 폰테어브뤼게가 키티 그라스에게 보낸 편지,

<유의사항 >

1. 120분 내에 1,500자 분량으로 쓸 것(+100자 허용)
2. 제공된 원고지에 쓰되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한글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할 것
3. 제목을 쓰지 말고 바로 본문을 쓰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 것
4. 개요 작성이나 연습은 문제지의 뒷면을 이용할 것
5.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지 말 것
6. 필기구(흑색 또는 청색 볼펜)를 사용할 것(연필, 적색 펜, 수정액의 사용 금지)

■ 출제의도

과학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통적인 생명 탄생의 방식 이외의 새로운 방법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인간에게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정의에서 벗어난 인간 형태의 생명이 출현할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한다. 제시문들은 이러한 '인간의 생명'의 범위, 탄생 방식, 생명 윤리 등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연 계열의 논술 문제는 2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가)는 이은희의《하리하리의 생물학 카페》에 나오는 '인간의 생명' 개념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담고 있다. 저자는 젊은 층에게 친숙한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가상적 대상에 대해 갖게 된 의문을 바탕으로 생명체에 부여하는 가치를 새로운 형태의 존재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키타 그라스의 장편《나의 세기》에 나오는 편지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유전학 교수인 폰테어브뤼게는 아버지 없는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키타 그라스에게 학문의 발전은 멈출 수 없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태어난 인간이 더 이상 부정될 수 없는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 윤리학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논술에서는 첫 번째로 두 글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을 인지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가)에 대한 설명에서는 무생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생명'의 한 형태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 대한 설명에서는 새로운 생명 탄생의 방법이 결국 인간에게도 적용됨으로써 나타나는 생명 윤리의 문제가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평가의 두 번째 내용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이때 '인간의 생명'의 범위와 전통적 생명 윤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절충적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개진하였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놀라운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에 대해 찬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세계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가)와 (나)가 서로 상반된 세계관에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할 때, (가)에 나타난 세계관에 근거하여 (나)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가)

라다크는 인도의 맨 북쪽 끝부분에 속하는 지역인데, 히말라야의 북쪽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산맥에 자리잡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다크는 온 세계를 휩쓸어온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아주 드문 몇몇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로, 1975년에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라다크의 마을 생활은 지난 8백 년 동안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위되고 있었다.

약 4만 평방마일에 이르는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라다크의 인구는 겨우 12만 명이다. 대히말라야에 가로막혀 강수량이 적은 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탓에 이곳은 거의 사막이다. 게다가 고지대여서 심히 가혹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은 자연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전통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안정된 인구를 유지하고, 땅의 분리를 막는 전통이었다. 마을들은 자급자족을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간디가 생각한 마을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할만하다. 빙하가 녹은 물이 냇물을 이루고 있는, 부채꼴의 충적토에 밭이 일궈져서 관개되었다. 기본 농작물은 보리와 밀이며, 여름 고지대 초원에 양과 소와 야크와 드조(야크와 소의 트기)를 위한 목초지가 약간 있다. 라다크는 그 자연자원을 주의깊게 이용하고, 결코 오용하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쓰레기라는 것이 절대로 없다. 드물게 있는 나무들 살구나무, 버드나무, 포플라 은 혹심한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뽕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나무들은 조심스럽게 보살펴지고, 그 목재는 건축이나 악기, 도구들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뽕감으로는 짐승의 마른 똥이 이용되고, 인분은 거름으로 이용된다. 집집마다 퇴비변소가 있고 모든 '쓰레기'는 재순환된다.

라다크에 도착한 직후 나는 어느 냇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내가 막 더러운 옷을 물속으로 던져 넣으려 할 때 일곱 살밖에 안되어 보이는 조그만 여자 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소녀는 부끄러움을 타면서 "거기서 못을 빨면 안돼요. 아랫마을에서 그 물을 마셔야 해요." 라고 말했다. 소녀는 적어도 일마일이나 아래로 떨어져 있는 한 마을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저 물을 이용하세요. 저것은 그냥 밭으로 들어가는 물이거든요."

나는 라다크 사람들이 것처럼 험난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여 생존해가고 있는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라다크에서 보는 검소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고 사는데 근원적이다. 제한된 자원을 주의깊이 이용한다는 것은 인색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 검소함은 적은 것에서 많은 것을 얻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의깊은 자원이용을 통해서 그리고 땅과 긴밀히 어울려 살아감으로써 라다크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가진 사회를 창조해 낼 수 있었다. 극단적인 자원부족과 거

칠고 험난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직 '석기시대' 기술만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성공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다. 많은 서양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라다크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번영을 누려왔다. 사실상 누구나가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낸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농라와 장신구와 귀금속과 같은 사치품을 살 만큼 충분히 여분의 것을 생산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비교적 짧은 노동계절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협받는 토착 문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나)

개복제 성공, '동물 복제 한국이 최고' 입증

3일 서울대 수의과대 잔디밭. 흔히 볼 수 있는 암캐 '누렁이'와 온몸에 털이 수사자 같기처럼 치렁치렁한 사냥개 아프간하운드 수컷 두 마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서울대 황우석, 이병천 교수팀이 복제에 성공한 개와 복제 원본, 그리고 대리모를 공개한 것이다. 복제 개가 태어난 지 100일째다. 복제 원본



인 세 살짜리 아프간하운드(이름: 타이)와 복제 개(스너피)는 외모가 빼닮았다. 검은색 바탕에 윗눈썹, 가슴부위, 발목 등에 있는 하얀 무늬까지 그 위치와 모양이 똑같다. 정작 스너피를 낳은 엄마 개인 누렁이와는 닮은 점이 전혀 없다.

복제 원본인 아프간하운드 수컷에선 피부 세포를 떼어내 썼으며, 난자는 잡종견으로부터 1095개를 채취해 123마리의 대리모 자궁에 이식했다. 그중 3마리가 임신에 성공했으나 두 마리만 태어났고 다시 이 중 한 마리는 죽었다.

복제 실무를 총괄한 이병천 교수는 "복제에 쓸 난자를 얻기 위해 개에게 배란 촉진제 등을 쓰지 않고, 자연 배란된 것을 채취해 썼다"며 "동물을 연구 일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연구를 개의 생리현상에 맞춰 해야 했기 때문에 복제가 더욱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험관 개조차' 없었던 것도 개의 난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통 복제 동물이 태어나기 전에 시험관 동물이 먼저 개발된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그만큼 개의 복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복제도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002년 8월에 시작해 거의 3년이 걸렸다. 이 교수는 앞으로도 이런 낮은 복제율이 쉽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를 복제하면서 희생시킨 것은 한 마리도 없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황 교수팀은 줄기세포 연구에 복제 개를 사용할 계획이다. 개는 사람과 가장 친숙한 동물

이며 간단한 말은 알아듣기 때문에 실험동물로 매우 좋다는 것이다. 예컨대 개 줄기세포를 개의 뇌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뇌 질환 치료 실험을 한 뒤 '일어나', '앉아', '이리와' 등 간단한 말을 알아듣는지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임상 효과를 어느 정도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난자와 체세포에 들어 있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말단에 있는 텔로메어 등이 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 복제 개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자와 복제 원본의 체세포에는 난자, 체세포 공여 동물의 미토콘드리아가 각각 남아 있다. 따라서 복제된 동물에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섞여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100% 순수한 혈통의 동물을 복제하려면 난자 공여 동물의 미토콘드리아를 없애야 하나 이게 쉽지 않다.

텔로메어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것으로 세포가 늙어갈수록 그 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노화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복제동물은 노화가 빠르다'는 등의 가설이 맞는지를 밝혀낼지가 또 다른 관심이다. 복제 양 돌리의 경우 여섯 살을 약간 넘긴 뒤 폐질환 등으로 안락사됐다. 양이 보통 11~13살 정도 사는 것에 비하면 조기에 '성인병'이 온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턴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참석했다. 그가 방한한 데에는 "아직 밝힐 수 없는 어떤 연구"목적도 있다고 황 교수는 덧붙였다.

<동아일보>

<유의사항 >

1.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2.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자 내외(200자 허용)로 할 것
3. 국어 정서법과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할 것
4. 필기구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할 것(연필, 적색 펜, 수정액의 사용 금지)

■ 생각해 보기

♠ 출제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계관을 정리해 봅시다.

♠ 출제의도와 연관시켜 볼 때 제시문(나)에 반영된 세계관을 정리해 봅시다.

♠ 제시문(나)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봅시다.

♠ 문제점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봅시다.

♠ 글의 개요를 만들어 봅시다.

1. 출제 의도

오늘날 생명공학(Bio-technology) 기술의 발달은 동물 중에서 복제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개를 복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간 줄기세포연구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어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개의 복제를 성공했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은 서로 엇갈린다. 미래의 산업에서 선도(先導) 기술을 한국사회가 점유하게 될 것이라는 가슴 부푼 기대감을 보인 반면에 인간의 능력이 신의 영역에까지 뻗어나감에 따라 예상치 못할 재앙이 닥쳐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번 논술 문제를 출제하게 된 까닭은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 방식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유전자조작기술을 활용하여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복제기술의 발전에 따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그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제기,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을 선진국이 독점함으로써 후진국과의 심각한 빈부격차의 문제 등에서 그러한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로 인해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성찰의 자세가 요청된다. 그것은 세계관에 대한 검토라 할 수 있다. 세계관이 개인의 의식과 사고, 행위와 삶의 양식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하지만,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와 연관되면서 서로 대비되는 '기계적 세계관'과 '유기적 세계관'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명공학기술이 안게 될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제하게 되었다.

2. 논제 파악

먼저 지시문을 살펴보면 출제자가 요청하는 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①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놀라운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에 대해 찬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세계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②(가)와 (나)가 서로 상반된 세계관에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할 때, ③(가)에 나타난 세계관에 근거하여 (나)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④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지시문 ①은 과학기술, 생명공학에 대한 평가가 다른 이유는 세계관의 차이라 하여 이번 논제가 세계관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는 학생들이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세계관을 다양하게 파악할 것을 우려하여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제시문 (나)에서 현대사회의 거대한 문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계론적 세계관'을 찾아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를 그와 상반된 세계관이라 간주하라고 하였으니 '유기적 세계관'임을 암시하고 있다. ③과 ④는 본론에 채워야 할 내용들이다.

간추리면 '기계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발달한 동물복제기술은 장차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될 것이며 유기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문제해결

제시문 (가)는 서부 히말라야 고원에 자리잡은 황량한 마을 라다크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생활환경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1천년이상 검소한 생활과 협동정신으로 건전한 공동체를 꾸려오고 있는 마을이다. 물질적으로는 빈약해도 아무도 가난을 불평하지 않았다. 이 글은 언어학 공부를 위해 라다크를 방문했다가 그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매료돼 16년 동안 장기 체류하게 된 스웨덴 출신의 여성학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산업사회 병폐와 개발 허구성 폭로하는 '라다크' 현장 보고서다.

라다크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의 마을생활은 지난 8백 년 동안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이 유지된다. 극단적인 자원부족과 거칠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자연자원을 주의깊게 이용하여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전통을 발전시켰다. 필요한 것은 모두 자연을 통해 얻을 수 있고, 그리 풍족하지는 않지만 절대 낭비하는 일이 없어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들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며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 온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 라다크인들의 삶의 모습이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유기적 세계관이라 파악할 수 있다.

유기적 세계관은 세계와 사회를 유기적 존재(생명체)로 이해한다. 생명체는 생동하는 시스템으로 전체와 부분이 상호 작용하고 협력하여 스스로 조직을 유지·발전시키는 존재이다. 유기적 세계관은 순환적이며 동시적인 작용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유기체를 설명하기 위해 상관적(相關的) 방식을 채택하고, '전체는 부분의 합(합)보다 크다'라는 전체론의 입장에서 있으므로 전일적(全一的, holistic) 세계관이라고도 한다.

지시문에서 제시문 (가)와 (나)는 서로 상반되는 세계관이라 간주하고 있다. 유기적 세계관과 상반되는 세계관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기계적 세계관은 우주를 수많은 입자(부품)들의 결합체(기계)로 이해한다. 이 견해에서는 세계를 하나의 기계로 보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인과율(因果律) 방식을 채택한다. 기계적 세계관은 인간 이성과 자연과학의 힘을 사유(思惟)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필요에 의한 인위적 욕구 충족을 위해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무한 발전을 요구한다.

제시문 (나)에서 동물(생명) 복제의 성공 기사에는 과학 기술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다. 그와 같은 관점은 과학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이를 운용하고 적용하는 주체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편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인간 중심적 사고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현대사회에서 생태 위기와 생명 위기는 인간 중심으로 환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롯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편향적 사고는 과학기술적으로 접근하려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관련이 깊다. 과학기술적 접근은 이미 많은 한계를 노출시켜 왔

다. 기계적 세계관에서는 부분의 합이 곧 세계 전체라는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부분들 간에 단지 기계 부품들 간의 관계, 즉 물리적 법칙과 수학적 법칙이 적용되는 관계만이 있을 뿐이며, 이를 넘어서는 다른 어떠한 관계도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기계적 관계는 인간이 자연을 소홀하게 다루고 자연에 대한 폭력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개 복제 성공은 인간의 불치병과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을 앞당겨 주었지만 생명윤리 논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간과 가까운 동물 중 이체 영장류만 복제가 안 된 동물로 남게 된 데다 그 어렵다는 개를 황 교수팀이 거뜬히 복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복제 기술이 급진전함에 따라 그 기술이 인간 복제에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사람의 배아 단계 생명을 희생시키는 줄기세포 연구 못지않게 동물의 초기 생명을 무수히 희생시켜야 하는 복제연구도 생명경시 풍조를 낳을 수 있다. 숭고한 목적을 유난히 앞세울수록 수단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다루는 연구는 신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 과학의 발전상과 인류의 욕망을 고려해 볼 때, 복제 인간이 탄생할 확률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복제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를 과연 우리와 같은 생명체로 취급하느냐 아니면 단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느냐의 문제가 그것이다.

생명복제로 부딪히게 될 위기는 단순히 과학과 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치, 법률, 윤리 등 여러 영역에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이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방식과 의식 등을 결정짓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적 세계관의 등장은 절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기적 세계관은 전체의 필요가 부분의 기능을 결정한다.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들 간의 관계는 기계 부품들의 관계가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인과 관계만을 갖는 것과는 달리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고 상호 의존, 협력한다. 따라서 자연의 한 부분의 손상은 기계의 한 부품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세계 전체의 손상을 가져온다.

유기적 세계관이 기계적 세계관의 한계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윤리적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계적 세계관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선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인식체계를 유기적 세계관으로 바꿀 수는 없다. 대안을 모색하는 가능성의 하나로 유기적 세계관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아울러 기계적 세계관과 유기적 세계관의 조화·정출을 통해 생명 복제로 인해 빚어질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내세울 수 있다.

4. 예시 개요

- 서론 :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함

- 본론1 : 제시문 (가): 라다크인들의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 삶—유기적 세계관
제시문 (나): 생명 복제에 성공에 환호하는 기사—기계적 세계관
- 본론2 : 제시문 (나)의 성공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 제시
– 생명 경시 풍조와 생명윤리 논쟁 가열
- 본론3 : 기계적 세계관의 한계에 따라 유기적 세계관 필요성
- 결 론 : 기계적 세계관과 유기적 세계관의 조화와 절충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

5. 예시 답안

오늘날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동물 중에서 복제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개를 복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개의 복제를 성공했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은 서로 엇갈린다. 미래의 선도(先導) 기술 보유라는 기대감과 신의 영역에까지 다가선 인간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상반된 것은 개인의 의식과 사고, 행위와 삶의 양식과 직결되어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는 서부 히말라야 고원에 자리잡은 라다크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극단적인 자원부족과 거칠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자연자원을 주의깊게 이용하여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전통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며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 온 것이다. 전체와 부분이 상호 작용하고 협력하여 스스로 조직을 유지·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유기적 세계관과 연관된다. 제시문 (나)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기계적 세계관은 필요에 의한 인위적 욕구 충족을 위해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무한 발전을 요구한다.

제시문 (나)에서 동물(생명) 복제의 성공 기사에는 과학 기술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다. 그와 같은 관점은 과학은 가치중립적이라는 입장과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개 복제 성공은 인간의 불치병과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을 앞당겨 주었지만 생명윤리 논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복제 기술이 급진전함에 따라 그 기술이 인간 복제에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의 현대사회에서 생태 위기와 생명 위기는 인간 중심으로 환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롯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편향적 사고는 과학기술적으로 접근하려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관련이 깊다. 생명복제로 부딪히게 될 위기는 단순히 과학과 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치, 법률, 윤리 등 여러 영역에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방식과 의식 등을 결정짓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적 세계관의 등장은 절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계적 세계관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선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인식체계를 유기적 세계관으로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기계적 세계관과 유기적 세계관의 조화·절충을 통해 생명 복제로 인해 빚어질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

흔히 생명공학은 21세기의 부가가치를 드높일 과학기술의 총아라고 한다. 또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문명비판론자인 제레미 리프킨조차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세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생명공학자는 제레미 리프킨의 그 말을 인용, 생명공학은 피할 수 없는 21세기의 대세임을 은근히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레미 리프킨은 생명공학을 예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생명공학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이 만나면서 과학은 자신들이 늘 강조하던 '가치중립'이라는 지고의 명제를 잃었다. 과학은 자연의 질서를 찾아낼 뿐이고, 기술은 일부 재주꾼의 손재주에 의해 생활의 편의가 도모되던 자급자족 지역 공동체 시기를 벗어나 과학기술로 통합되면서 지역 문화와 역사를 이어왔던 단순한 손재주는 불필요한 존재로 폐기되고 중앙집중 산업구조가 그 뒤를 채웠다. 과학기술에 자본이 투여하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던 시대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로 접어들어, 과학기술은 돈벌이의 거대한 수단이 되었다.

원래 없던 유전자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현상을 돌연변이라 한다. 조상으로부터 전달받지 않은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생명공학의 기술, 따라서 생명공학은 돌연변이 과학기술이다. 벡터라고 하는 다른 생물종 사이를 잘 이동하는 주로 바이러스 유전자를 이용하여 종의 경계를 넘어 유전자를 키워 넣는다. 심지어 식물의 유전자를 동물에 넣기도 한다.

모든 생물종은 38억 년 동안 진화라는 혹독한 역사를 거쳐 현재 환경에 최대한 적응되어 왔다. 갑자기 나타난 돌연변이 유전자는 현재 환경에 부적당하다. 따라서 악성으로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고 침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돌연변이 유전자는 유전자인 까닭에 해당 생물체 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 부담이 전달된다. 현재 발현되지 않았다가 후손의 세대에 악성형질이 발현될 수도 있다. 환경이 바뀌면 돌연변이 유전자는 좋은 형질로 발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환경이 바뀌었다면 대부분의 정상 유전자는 줄지에 불리한 환경에 내맡겨지고 말 것이다.

생명공학은 식량문제 기아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한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집어넣어 병충해에 강하고 양도 많이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을 개발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돌연변이된 농산물로 소귀의 소출을 얻으려면 온도 습도 광도 먹이 항생제 등등, 돌연변이 유전자에 적합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소규모 농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본이 필요하다. 그렇게 개발된 농산물에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 농수축산물을 먹는 사람(사료일 경우는 가축에 전달되고, 그 가축에도 포함된 돌연변이 유전자는 다시 사람으로 전달된다)에게 돌연변이 유전자가 전달되어 사람도 돌연변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생명공학은 38억 년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조갈증의 과학기술이다. 단 기간에 큰 이익을 얻으려고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켜 후손의 생태계와 생명을 위협한다. 거대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생명공학은 중앙집중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돌연변이 양산 기술이다. 일부 세력

의 한시적 이익을 위해 필연적으로 후손을 포함한 다수를 희생시키고 말 것이다.

생명공학이 추구하는 유전자조작식품은 일차적으로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생명복제는 생명 윤리의 문제를 일으킨다지만 생명안전과 생명윤리는 분리된 개념일 수 없다. 생명복제는 단순히 가축 몇 마리 복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식물 재배하듯 동물을 복제하려 들 가능성이 있고, 사람의 유전자를 넣은 동물을 복제하여 사람과 동물의 유전적 차별성이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유전자조작식품 뿐 아니라 생명복제가 베풀 것이라는 의료혜택이 왜곡 과장되는 현실에서 생명공학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이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신화 속에서 과학기술자와 자본가, 그 두 세력에 좌지우지되는 행정, 그들만의 일방적인 논리로 미화되어 추진되는 생명공학의 허실을 들여다보고 후손을 위해, 내 자신과 자신의 노후를 위해, 참여 즉 시민운동의 당위성을 찾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생명공학의 긍정적인 측면

생명공학의 긍정적인 측면은 크게 유전자치료, 품종개량, 의약품공업의 발달,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분자유전학적 연구 업적에 의해서 유전자 산업·유전(자)공학 등 생물산업의 분야는 새롭게 확장되고 있다. 생물산업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은 생체 활성물질이므로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우리는 대형동물을 이용해서 주로 인슐린을 생산했다. 그러나 분자의 아미노산 서열이 밝혀졌고, 바이오테크놀러지가 발전하여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클로닝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유전자의 염기 배열순서도 정확히 밝혀졌다. 이처럼 클로닝된 인슐린 유전자는 플라스미드(plasmid)라는 작은 DNA 단편에 붙여서 미생물 체내에 옮겨주면 그 미생물 체내에서 도입된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서 사람의 인슐린을 사람이 아닌 미생물이 합성해 낸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합성된 인슐린을 잘 정제하여 새로운 의약품 개발산업이 된 것이다. 인슐린 생산을 위한 연구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연구진행의 여러 단계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기초과학적 연구로서 해결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술개발에 관련된 기초과학적 연구는 매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DNA 재조합 기술의 이용은 농학 및 축산학 분야에서 새로운 품종개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유전적 질병의 진단과 유전자 치료법의 개발에도 바이오테크놀러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전병은 종류에 따라서 사람의 발생 초기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소년기 疎癯瘦, 혹은 장년기에 가서야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발생 초기에 발병하면 일반적으로 태아는 유산 또는 사산된다. 그래서 출생전 진단법도 다양하게 발전되었고, 출생 후에 진단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발병은 하지 않더라도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 여부의 검사도 바이오테크놀러지에 의해 가능하다. 의학에서 관심깊은 과제 중의 하나는 유전자 치료이다. 건강한 사람의 DNA(유전자) 또는 mRNA와 상보적인 cDNA를 만들어 이것을 DNA 재조합법으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와 결합시키고, 그것은 그 DNA 결

합으로 생긴 유전병 환자의 세포에 효율적으로 도입시키는 방안이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배양세포를 이용한 실험적 단계에 있지만 응용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응용할 단계에 이르면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순수 분자생물학의 연구에서도 DNA의 구조 비교, 생물의 특성에 대한 동질성과 이질성의 원인, 종의 특성과 분화, 생물의 진화 등 생명현상의 해석에 한 차원 높은 연구가 실시되고 있는데 대부분 바이오테크놀러지를 이용하고 있다.

■ 생명공학의 부정적인 측면 - 윤리문제

과학적 검증 여부와 관계없이, 복제인간이 탄생했다는 보도는 압도적으로 짓눌린 마음을 절망감으로 휩싸이게 한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는가. 복제인간은 인간의 존엄성만을 부정한 게 아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이는 멸종의 징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복제인간의 출현으로 인간의 생명은 길거리의 잡지 신세가 되었다고 한 고등학생은 신문 독자투고란에서 말했다. 흥미가 떨어지면 구겨버리는 싸구려 잡지처럼 한낱 소모품이 되었다는 뜻이다. '생명에는 여벌이 없고 교통사고에는 연습이 없다'는 캠페인도 있지만, 여벌이 있는 생명에 존엄성이 깃들 수 있을까. 실패하면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면 이미 멸종된 신세와 무엇이 다른가.

과학기술을 허무맹랑하게 믿는 광신도 집단의 과열적 시도에 몸 떨리는 분노를 느끼고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시급함에 공감하면서, 편협한 논리에 빠진 일부 극단적 과학기술자에게 환멸을 느낀다. 복제로 영생불사한다는 광신도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무시한다고 치자.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 또는 '사고로 죽은 아이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라는 고상한 명분을 앞세우는 생명공학이 문제다.

삼척동자도 아는 과학기술의 철칙은 윤리와 안전이다. 가속이 빠어난 자동차는 감속 장치가 훌륭하므로 빛난다. 생명공학도 마찬가지다.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정과 결과가 미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파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생명공학은 살아있는 생명과 유전자를 직접 다루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생명윤리와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를 촉구해왔고, 2000년부터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극단적 연구를 고집하는 일부 유명 생명공학자의 주장만을 고려한 관료들에 의해 합의된 법안이 뒷걸음치는 비윤리적 사건이 연출되었고, 급기야 생명윤리 관련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태가 빚어지기까지 했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소중한 생명이 실험재료로 버림받을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번 복제인간 출생을 계기로, 우리도 자본이나 일부 생명공학자의 연구의지가 아닌 생명윤리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 관련법을 후손의 처지에서 한시바빠 마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배아복제는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고귀한 논리를 아무리 앞세운다 해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비윤리적 연구가 허용된다면 이미 증명되었듯이 결국 복제인간으로 이행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윤리 관련법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생명공학자의 영역일 수 없다. 따라서 합의된 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크게 후퇴시키는 데 발벗고 나선 과학기술부가 법안 마련을 주도하면 안 된다. 국회 역시 개발을 염두에 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보다 법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논의해야 옳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을 가장 열심히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노력하기에 따라 과학기술은 조금 뒤지더라도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윤리를 잃은 생명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4

강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I

주제 특강

■ 자본주의의 개념¹⁾

자본주의는 이윤의 획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활동이다. 화폐를 투입하여 이윤과 함께 회수하면 화폐는 이윤을 생산하는 자본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재화를 얻기 위해 화폐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화폐를 사용하는 이윤추구의 활동이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윤의 획득은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물건을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판다든지, 또는 물품을 직접 제작하여 이윤을 붙여 판다든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다는 등 하여 이윤을 획득한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화폐를 시장에 투입하여 시장 내의 거래 결과로서 이윤을 얻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활동은 시장(상품경제)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그저 부를 추구하는 활동과는 다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활동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상품경제가 어느 정도 확대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서구의 경우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시장교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으며 활발한 상업활동에 따르는 상품생산과 은행업·해운업 등이 자본주의 활동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품경제가 어느 정도 확대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었다. 근대 이전의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활동에는 각종 규제와 통제가 행해졌고 또 상품경제 그 자체가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 전체로 볼 때는 부수적이고 주변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자본주의 활동이 범위가 넓어지고 생산활동이 주요한 부분이 된 것은 유럽의 근대사회에서였다. 이는 자본주의 활동이 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때 자본주의라고 규정지을 수 있음을 뜻한다.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를 고대 및 중세와 구분하여 근대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하나의 체제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6세기부터이지만, 자본주의적 제도의 맹아들은 고대 세계에서도 존재했으며, 자본주의가 변성할 수 있는 토대는 후기 중세시대에도 나타났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16~18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꽃피운 직물산업의 성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본주의를 이전의 체제와 구별 짓는 특성은 소비를 초과하는 생산의 잉여분을 피라미드나 대성당과 같이 비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몇 가지 역사적 사건에 의해 고무되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고취된 윤리의식으로, 소유욕에 대한 전통적인 경시는 사라지고 반면에 근면과 검소가 종교적인 덕목으로 보다 강력하게 부각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은 부(富) 또한 덕목

1) “자본주의”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8j2267b>

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공헌한 또 다른 요인은 유럽으로의 귀금속의 유입과 그에 따른 물가 등귀였다. 이시기에 임금은 물가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인플레이션의 주된 수혜자는 자본가들이었다. 초기의 자본가들(1500~1750)은 중상주의 시기에 일어난 강력한 민족국가의 부흥으로 인한 혜택을 누렸다. 민족국가들이 추구한 국력증진정책으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단일 통화제 및 법전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그 결과 경제적 주도권이 국가로부터 개인에게로 이전되었다.

18세기 초 영국에서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중심이 상업에서 산업으로 이동했다(영국사). 전(前) 세기에 꾸준히 축적된 자본은 산업혁명시기에 기술적 지식을 실제 산업에 적용시키는 데 투자되었다.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은 1776년에 출판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책에서 스미스는 경제적 결정을 자기조절적인 시장의 힘의 자유로운 작동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봉건주의의 잔재를 일소한 뒤에 스미스의 정책은 점차 실행에 옮겨졌다. 19세기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은 자유무역·금본위제·균형예산, 그리고 최소한의 빈민구제 등으로 표현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전환점이 되었다. 전후에 국제시장은 위축되었으며, 각국에서 관리통화제도가 채택됨으로써 금본위제는 포기되었고, 금융 부문의 주도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아프리카·아시아의 인민들은 유럽의 식민주의에 대항해 성공적으로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했고, 무역장벽은 점점 높아졌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경제적인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유방임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말을 고했고, 한동안 자본주의체제 전체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영국·서독·일본이 거둔 자본주의적 성과는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입증했다.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활동도 생산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윤의 획득을 위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의 생산방법은 자본의 소유자(자본가)가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에 필요한 원료·기계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획득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며, 공장·직장 등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시켜 이 물품들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에 의해 이윤을 획득한다. 즉 자본의 가치증식에 의해 영리를 획득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업활동이다.

이러한 생산방법이 가능해지려면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조달하는 노동시장·토지시장·화폐시장 등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각종 시장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경제의 주요영역이 전통적인 양식에 의해 운영되었고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지 않았다. 특히 노동과 토지는 전통적인 생산과 생활의 중심을 이루었으나 상품화되지는 않았다. 자본주의의 사회적·경제적 특징은 이와 같이 원래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추상적 상품들을 시장을 통해 생산활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화가 경제·사회의 중심에까지 확대·침투된 경제, 즉 '시장경제'를 가리키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서 기계기술의 발명은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기계는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비 인하를 가져왔고 값싼 상품을 공급하여 시장을 확대하면서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구축시켜 새로운 생활양식을 가져왔다. 또 기계는 그때까지의 숙련노동을 해체하여 노동을 단순화시켜 노동력의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공장에서는 효율적인 분업체계가 형성되었다. 자본가는 일정한 시장 및 기술 조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자본가는 이윤획득의 기회를 추구하는 기업가로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자유로운 거래, 자유로운 경쟁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유재산제와 자유계약제가 유지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시켜 노동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활동은 법률체제도덕규범·정부활동·생활습관·가치체계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적 활동의 특징

자본주의 활동의 특징은 영리주의와 합리주의라 할 수 있다. 영리주의는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영리지상주의의 태도이다. 자본주의 활동의 첫번째 목적은 이윤의 획득인데 생산과 수송 등의 경제활동 그 자체는 이윤을 얻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본주의 활동은 이윤추구를 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자본이 획득한 이윤은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재투자된다. 이윤으로 얻어진 화폐도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이윤을 내게 된다. 이윤추구의 활동은 이같이 끝없는 화폐추구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영리주의 측면을 강조한 W. 쾰바르트는 경제에서의 무한추구 정신은 무한의 화폐추구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상이 발달한 배경에는 근세에 들어와 인간이 종교적 억제로부터 해방된 사실이 놓여져 있다.

자본주의적 활동의 또 다른 측면인 합리주의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즉 이윤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으로서 합리주의적 경영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경영조직의 특색은 강제 없는 자유로운 노동, 가계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경영의 독립성, 합리적 부기에 의한 정밀한 자본계산,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바탕으로 하여 분업화된 노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등이다.

합리주의적 경영을 실현하려면 자본가와 기업가는 잘 계산된 투자를 바탕으로 지속적·금욕적 태도를 가져야 하며 노동자는 분업조직을 바탕으로 통제가능하고 규율 있는 노동을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베버는 합리주의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퓨리터니즘은 직업이라는 세속적 활동을 신이 부여한 사명으로 여겨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며 절약과 저축을 미덕으로 삼았다. 인간과 신 사이에는 절대적인 단절이 있는데, 인간이 신에 의해 구제될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안을 덜고 구원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신이 준 사명, 즉 직업에 금욕적으로 전념하여 이 세상에서 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베버는 이러한 퓨리터니즘의 윤리를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에서 강조했다.

II

기출 문제

■ 이화여자대학교 (2004년 정시)

【문제】 다음 (가)의 글은 현대 소비사회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 (나)와 (다)의 삶의 방식이 (가)의 소비사회와 갈등을 빚는 이유와 양상을 서술하고,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가) 소비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상품의 논리가 일반화되어 노동 과정이나 물질적 생산품 뿐만 아니라 문화, 섹슈얼리티, 인간관계, 심지어 환상과 개인적 욕망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이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모든 기능과 욕구가 이윤에 의해 대상화되고 조작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진열되어 구경거리가 된다는, 즉 이미지, 기호, 소비 가능한 모델로 환기되고 유발되고 편성된다는 보다 깊은 의미에서이다.

소비 과정은 기호를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이다. 기호의 발신과 수신만이 있을 뿐이며 개인으로서의 존재는 기호의 조작과 계산속에서 소멸한다. 소비시대의 인간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자기 욕구조차도 직시하는 일이 없으며 자신의 모습과 마주 대하는 일도 없다. 그는 자신이 늘어놓은 기호들 속에 내재할 뿐이다. 초월성도 궁극성도 목적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 사회의 특징은 '반성'의 부재, 자신에 대한 시각의 부재이다. 현대의 질서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장소였던 거울은 사라지고, 대신 쇼 윈도우만이 존재한다. 거기에서 개인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기호화된 사물을 응시할 따름이며, 사회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 기호의 질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소비의 주체는 기호의 질서이다.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은 욕체이다. 오늘날 욕체는 광고, 패션, 대중문화 등 모든 곳에 범람하고 있다. 욕체를 둘러싼 위생, 영양, 의료와 관련한 숭배의식, 젊음, 우아함,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 미용, 건강, 날씬함을 위한 식이요법, 이것들 모두는 욕체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욕체는 영혼이 담담했던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문자 그대로 넘겨받았다. 오늘날 욕체는 주체의 자율적인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소비사회의 규범인 향락과 쾌락주의적 이윤창출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금 만들어진다. 이제 욕체는 관리의 대상이 된다. 욕체는 투자를 위한 자산처럼 다루어지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 중의 하나로서 조작된다.

(나) 그는 애정을 담은 눈길로 흘러가는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속이 맑게 들여다보이는 초록빛 강물은 온갖 불가사의한 무늬를 만들어내며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찬연히 빛나는 진주들이 물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물거품을 내며 거울 같은 수면 위를 헤엄쳐 다녔다. 그 물거품 속에는 하늘의 푸른빛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물은 초록색, 하얀색, 투명한 하늘색, 그런 형형색색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 강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강물은 나를 얼마나 황홀하게 해주는가! 나는 이 강물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새로이 깨어난 음성이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강물을 사랑하라! 그 곁에 머물러라! 강물로부터 배우라!' 그는 강물

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강물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강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밀, 나아가 모든 비밀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 연기를 탐내는 자는 만족함이 없으니, 모두가 사치를 좋아하는 일념 때문이다. 만약 마음이 담담하여 만족할 줄 알면 세상 재물을 구해서 어디에 쓰겠는가. 청풍명월(淸風明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대 울타리 띠집에도 돈 쓸 일이 없고, 책을 읽고 도(道)를 이야기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는 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성찰하면 세상 맛에서 초탈하게 될 것이니 탐욕스러운 마음이 또 어디로부터 나오겠는가?

■ 출제 의도 및 채점 방식

1. 출제의 기본 방향

본교 논술고사의 출제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초적 자질로서의 논술 능력을 평가한다'는 기본 방침을 준수하면서, 1998년도 논술고사 시행을 앞두고 서울 시내 12개 대학에서 결의한 '동서고금의 고전에서 출제한다'는 출제의 기본 원칙을 참조하였다. 고전 중심의 출제는 그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전의 정의를 '동서고금의 고전'이라고 구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나 수험생들이 다같이 그것을 '고대(古代)의 명작'으로 축소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고전 중심의 출제는 다양한 독서체험을 권장한다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특정 작가와 작품에 국한하는 제한된 글읽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에 해가 거듭되면서 그런 경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본교는 지난 수 년 동안의 출제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200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하였다.

- (1)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구체적인 주제로서 사고의 폭과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 (2) 대학교육에 필요한 글읽기·글쓰기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아래 인문계와 자연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 (3) 2003년 5월에 시행한 본교의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여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하였다.

2. 출제 의도 및 문제의 성격

2004학년도 본 논술고사에 사용된 제시문은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소비의 사회 La Societe de Consommation』(1970)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싯다르타. 한 인도의 시 Siddhartha. Eine Indische Dichtung』

(1922),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1818)에서 발췌되었다.

(가)의 글은 소비물자와 상품으로 둘러싸인 오늘날의 소비사회 안에서 인간과 사물, 인간과 자연 혹은 세계, 심지어는 자신과 자신의 관계조차도 변화된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상품의 무한한 생산과 함께 새롭게 창출되는 의미 연관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사물의 풍성함과 소비의 일반화는 기호의 질서로 표현되는 관념적 허구의 세계 속으로 인간을 밀어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세계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육체조차도 여러 이미지와 의미질서에 따라서 관리하고 재구성해야 할 한갓 대상으로 바라본다.

(나)의 글은 근원적 실재로서의 자연의 존재를 보여주면서 인간이 반성을 통해 그 자연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다)의 글은 사물이 인간의 존재와 건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질박한 삶의 태도를 권장하고 있다. (나)와 (다)의 삶의 태도는 자연과의 만남이나 남을 돕는 행위마저도 여행상품이나 자선상품과 같은 판매 논리 안으로 포섭하는 (가)의 소비사회 안에서 견지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본 논술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반성해보면서 인간 삶에 있어 소중한 가치로 여겨져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 자연과의 만남, 절제, 타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소비사회의 다양한 일면들을 되돌아보면서 왜 이제는 자연이나 사물과의 순수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관계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논해야 하므로, 비판적 사고능력과 논술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 해 설

1. 문제의 파악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는 (나)와 (다)의 삶의 방식이 (가)의 소비사회와 갈등을 빚는 이유와 양상을 서술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관점에서 논술하는 것이다. 갈등을 빚는 이유는 (가)의 둘째 단락에 있다. 소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기호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에 나타난 성찰적 자세와 대비된다.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은 (가)의 셋째 단락에 있다. 소비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 자신의 몸마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한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에 나타난 검소한 삶의 방식과 대비된다. 물론 문제와 제시문을 이처럼 단순화시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 부분과 제시문을 대응시켜 나가는 것은 문제와 제시문의 취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논술의 줄기를 잡아나가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2. 제시문의 이해

- (가) 1) 소비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상품의 논리가 일반화되어 개인의 삶을 지배한다.
 2) 이제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기호의 질서이다.
 3) 육체는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투자를 위한 자산처럼 다루어지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 중의 하나로서 조작된다.

(나) 그는 강물을 바라본다. 강물은 아름답다. 강물은 그를 바라본다. 그는 자신이 강물을 사랑하고 강물이 자신을 감동시키며 자신은 강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강물이 들려주는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다) 사치하는 마음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면 과도한 재물이 필요없다. 자연을 즐기거나, 살 집을 마련하거나 도를 이야기하거나, 자신을 깨끗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다.

(가)는 현대적인 논문 형식의 글이며 (나)는 소설, (다)는 한국 고전 중의 일부분이다. 글의 형식이 모두 다르고 또한 모두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글들이다. (가) 사회에서는 기호의 질서가 소비의 주체가 된다. 즉 사람은 주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상이 된다. (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자연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이다. ① 깨달음은 사람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신 활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가)에서 묘사된 소비의 과정과는 다르다. ② (나)의 자연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깨달음을 주는 살아있는 자연이다. (가) 사회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단지 관광 상품 정도의 의미만을 가질 것이다. (다)는 탐욕을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탐욕과 과도한 소비는 자기의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 (가) 사회에서는 삶에 필요한 것이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모두 상품화되어 있으므로 검소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3. 갈등 해소의 방법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는 (나)에 제시된 주체적이고 성찰적인 자세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점, (다)에 제시된 검소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이 요체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중산층에게서 나타나는 웰빙(well-being) 바람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나)와 (다)의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치지 말고 현실감 있는 논리를 전개하도록 애써야 한다. (가)와 (나), (다)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지 상품 논리를 비판하고 (나), (다)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들 모두는 이미 사회 각 영역이 고도로 상품화된 (가)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처럼 성찰만 하여 직업이 없거나 (다)처럼 돈 한 톨 없이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 현대인의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를 하되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것만큼의 소비를 하여야 하고, 인간 자신과 자연을 성찰하는 정신 문화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온당하다.

4. 쓸 내용

- (1) 서론 - 현대 소비사회의 특성 / (나)와 (다)의 삶의 양식의 특성
- (2) (나)와 (다)의 삶의 양식이 소비사회와 갈등을 빚는 이유
- (3) (나)와 (다)의 삶의 양식이 소비사회와 갈등을 빚는 양상
- (4) 결론 - 갈등 해소의 방법

III

실전 문제

(가)와 (나)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의 내용을 포괄하여 논하시오.

(가) "오늘은 아퀴를 지어 주시겠습니까?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것인데 그걸루 의 상황 거야 있나요?"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김옥임이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해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구 다니구, <인형의 집>에 신이 나 하구, 엘렌 케이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옥임이가, 동냥자루 같은 돈 전대를 차구 나서면 세상이 모두 노란 돈뽀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뿔은 돈뽀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있는 나두 불쌍한 신세이지마는 난 옥임이가 가없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지경이지 옥임이는 성격 파산인가 보드군요……."

정레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 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두 듣기에 좀 괴란쩍습시다마는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써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엿이 받아 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알로 먹고, 뽀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님니까……허허허." 하고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옥임이 역성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이 날 정레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며,

"그따위 돈은 안 갚아도 좋으니 정장을 하든 어찌든 마음대로 하라구 내버려두세요." 하며 팔팔 뛰는 것을 모른 채하고, 이십만 환 표에 이만 환 현금을 엮어서 옥임이 갖다가 주라고 내놓았다.

정레 모친은 그 후 두 달 걸려서 교장 영감의 오만 환 빚은 갚았으나, 석 달째 가서는 이 상점 주인이 바뀌어 들고야 말았다. 정말 교장 영감의 조카가 나서나 하였더니 교장의 딸 내외가 들어앉았다. 상점을 내놓고 만 바에는 자질구레한 썸속을 따진대야 죽은 아이 귀 만져 보가지 별 수 없지마는, 하여튼 이십만 환의 석 달 변리금 팔만 환마저 못 찾고 두손 털고 나선 것을 보면, 그 팔만 환을 아끼고 남은 십팔만 환이 점방의 설비와 남은 물건값으로 치운 것이었다. 물론 옥임이가 뒤에 앉아 맡은 것이나, 권리값으로 오만 환 더 없어서 교장 영감에게 팔아넘긴 것이었다. 옥임이는 좀 더 남겨 먹었을 것이로되, 교장 영감이 그 빚 받아 내는 데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만 환만 엮어 먹고 말았다. 또 교장은 이복에서 내려온 딸 내외에게는 톱 알맞은 장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애초부터 침을 삼키고 눈독을 들이던 것이다. 이 상점을 손에 넣으려고 애도 썼지마는, 매득하였다고 좋아하였다.

정레 모녀는 일년 반 동안이나 죽도록 벌어서 죽 쭈어 개 좋은 일한 썸이라고 절통을 하였으나 그보다도 정레 모친은 오래간만에 몸 편해져서 그렇기도 하였겠지마는 몸살 감기에

울화가 터져서 그만 누운 것이 반달이나 끝었다.

"마누라, 염려 말아요. 김옥임이 돈쯤 먹자만 들면 삼사십만 원금 금세루 녹여 내지. 가만 있어요."

정례 부친은 앓는 마누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위로하였다.

"옥임이 돈을 먹자는 것두 아니지마는 무슨 채주루."

마누라는 말리는 것도 아니요, 부채질하는 것도 아닌 소리를 하였다.

"김옥임이도 요새 자동차를 놀려 보고 싶어한다는데, 마침 어수룩한 자동차 한 대가 나섰단 말이지. 조금만 참아요. 우리 집문서는 아무래두 김옥임 여사의 돈으로 찾아 놓고 말 것이니……." 하며 정례 부친은 앓는 아내를 위하여 뱃속 유하게 껄껄 웃었다.

-염상섭, 두파산

(나) [저성장 탓에 걸린 민생] 인구 15% 빈곤층

우리나라 빈곤층이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7명당 1명꼴로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경기 양극화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 결과 2003년 말 기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 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 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71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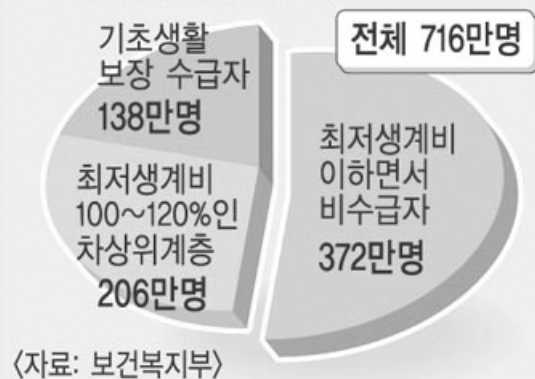
이 같은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500만명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차상위 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조사 결과 전 국민 중 잠재 빈곤층은 206만명, 비수급 빈곤층은 372만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8만명이다.

다만 소득과 함께 재산을 고려할 경우 차상위 계층 263만명과 기초수급자 138만명을 합친 전체 빈곤층은 401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

소득기준 빈곤층 규모



만 빈곤층 규모 조사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막대한 빈곤층 규모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현상 등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빈곤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요건을 현실화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늘리는 한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및 일자리 제공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공공부조연구팀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 첨단산업과 전통산업간 격차 확대 등 사회 여러 분야에 걸친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저소득 계층의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며 "성장과 복지를 함께 중시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5. 8. 11.

(다) 한국 0.6% 영국 3.3% 일본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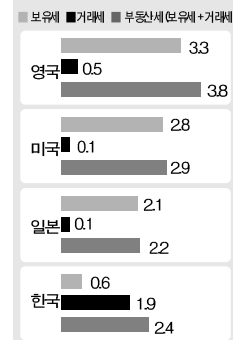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세계 주요 나라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요국 부동산 세제 비교' 자료를 보면,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영국(3.3%), 미국(2.8%), 일본(2.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에 반해 국내총생산 대비 거래세 비율은 1.9%로 미국, 일본(이상 0.1%), 영국(0.5%)에 비해 월등히 높아 큰 불균형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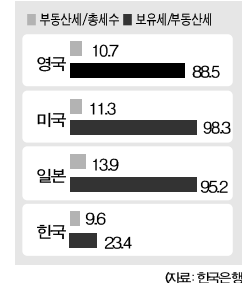
다른 나라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9 대 1 정도로 보유세가 월등히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2 대 8로 거래세 비중이 더 높았다.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의 사회적 환원'과 '빈익빈 부익부 완화' 기능이 있지만, 거래세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세율이 적용돼 사회적 조정 기능이 없다. 또 보유세는 안정적 세수확보가 가능한 반면 거래세는 세수 예측이 힘든 측면도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총생산(778조원) 대비 보유세(3조2천억원) 비율은 0.4%, 거래세(12조원) 비율은 1.5%로 거래세가 4배 가까이 더 많았다. 총 부동산세금(양도세 제외)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우리나라는 2.4%로 영국(3.8%), 미국(2.9%)보다 낮았고, 일본(2.2%)에 비해선 조금 높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부동산보유세 및 거래세비교
(2003년 기준, 단위: %)



총세수대비부동산세 비중 및
부동산세 대비 보유세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자산가격 대비 세금 비율인 실효세율도 우리나라(0.15%)는 외국에 건줘 매우 낮았다. 미국은 50개주 대표도시 실효세율이 1.54%였고, 영국 1.0~1.2%, 일본 1.4% 수준으로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약 10배 가까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서야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만 보유세 실효세율 1%가 예상될 뿐, 전체적으로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세수 대비 부동산세 비율도 우리나라는 9.6%로 일본(13.9%), 미국(11.3%), 영국(10.7%)보다 훨씬 낮았다.

한편, '보유세 실효세율 1%'는 국민소득에 대비하면 미국보다 높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최근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600달러(2003년 기준)로 미국(3만7900달러)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보유세 실효세율 1%가 적용되는) 내년 중부세 대상자(전체 세대의 1.6%)의 소득수준은 3만7900달러(1억60만원)로 미국 평균소득보다 70% 더 높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779조4678억원) 대비 보유세 비율은 0.4% 수준이었다.

-한겨레 신문, 2005. 9. 14

<유의사항 >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3.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총 1,600(±200)자가 되게 할 것.

■ 생각해 보기

♠ 제시문 (가)에 드러난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제시문 (나)의 내용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제시문 (나)에 드러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해 봅시다.

♠ 제시문 (다)의 내용에서 우리나라 세율의 문제점을 파악해 봅시다.

♠ 제시문 (다)의 현재 우리나라 세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IV

해설

1. 출제 의도

우리나라는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짧은 시간에 눈부신 성장을 해 오다보니 자본주의의 특징인 사적 소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것을 재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함으로써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 보다는 부동산 등의 자본을 통한 부의 축적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 중산층이 몰락함으로써 부의 균형이 무너져, 현재에는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세금의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하는 방향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

2. 논제 파악

(가)와 (나)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의 내용을 포괄하여 논하시오.

(가)는 염상섭의 '두파산'의 마지막 부분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물질적 파산과 정신적 파산을 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나)는 최근의 우리나라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7분의 1 수준까지 확대된 것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이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는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세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문 기사이다.

논제는 (가)와 (나)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불신, 인간관계의 부재 등을 엿볼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고, 아울러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세율'을 통한 소득 재분배로 연결시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세율'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와 더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한 소득의 재분배와 관련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문제해결

1. 제시문 (가)에서는 자본의 힘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 속에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본이 중심이 되는 현상을 등장인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 제시문 (나)에서는 우리 사회의 계층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의 안정적인 구조로 가지 못하고 극도의 빈곤층이 확대되고, 소수의 부자가 전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3. 제시문 (다)에서는 세금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는 가진 계층에게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논해야 한다.

4. 경제적 부의 재분배에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가 다수 국민을 위한 세율정책이나 다른 복지 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을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단순히 제시문 (가), (나), (다)를 해설해서는 안 된다. 또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중요한 요소들만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언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예시 개요

- 서론
 - 최근 유행어인 '강남 불패'라는 말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을 언급
- 본론 1 :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문제점
 - 1) 빈곤층의 확대
 - 2) 소득 격차의 심화
- 본론 2 : 우리나라 경제 불평등의 원인
 - 1) 개인의 부 축적에 대한 방만한 욕구 팽배
 - 2) 국가의 체계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재
- 본론 3 : 불평등 해소 방안
 - 1) 개인의 부에 대한 개념 재정립
 - 2) 정부의 세율안 조정
 - 3) 소득 재분배 정책의 지속적 추진
- 결론 : 요약 정리

5. 예시 답안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강남불패'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강남불패'라는 말은 그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었지만 강남에 투자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라고 한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한 때는 일주일 사이 일억원이 오를 정도로 폭등하기도 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평범한 근로자가 몇 년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일억이라는 거금을 단 일주일 사이에 벌게 되는 강남의 부동산은 사적 소유라는 명분하에 이대로 방치되어야만 할 것인가?

강남의 부동산이 일주일에 일억원 이상 뛰어 오르는 이 때에도 우리의 빈곤층은 전체 인

구의 7분의 1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없다. 빈곤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구조가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층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계층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켰음을 의미한다. 강남의 아파트가 단기간에 폭등할 때 저소득층은 양적으로 확대된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이 양산되고 있다. 이는 최상위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확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의 축적이 곧 행복이고 선이라는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를 들 수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어두운 면 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부를 축적할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려는 의식을 그르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부재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수치에 의한 상승에만 관심을 많이 기울였을 뿐 국민들간의 부의 축적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부동산 정책은 몇 년에 한번 정치적인 색채를 띠면 몇 번 얘기하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방치해 놓았을 때에는 부정적인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개인 스스로가 부의 축적은 자신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기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등 단기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저축'이나 정당한 투자를 통한 부의 축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는 거래세보다 보유세의 비율이 더 낮은 기형적인 세율정책부터 조정해야 한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게 하는 기본적인 세율정책부터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한 직접세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간접세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확히 매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빈곤층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듯 개인들 스스로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축적한 부에 대한 정직한 소득 신고와 성실한 세금 납부, 그리고 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세율정책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한데 어우러져 실현될 때 부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을 사라질 것이다.

V

읽기자료

■ 조세정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조세분담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는 수혜자 부담원리다. 이 원리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시장원리다. 하지만 경제학의 많은 이론이 그런 것처럼 현실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 국방이나 치안 등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만큼 혜택을 누리며, 또 시민들 개개인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이나 치안 등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애초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수혜자 부담의 원리는 고속도로, 공공도서관, 시립수영장처럼 이용자를 쉽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는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리'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분담에 참여해야 한다. 능력이 같은 사람은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롭다는 이야기다. 수혜자 부담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원리는 사실상 이것 하나뿐이며,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원리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모든 추상적인 원리가 그렇듯,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핵심문제는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쓰느냐는 것이다. 널리 채택된 능력의 지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득, 둘째는 재산, 셋째는 소비다. 국가는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골라 쓸 수도 있고 둘 이상을 적당히 섞어 쓸 수도 있다. '경제적 능력'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부터 살펴보자.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벌어들인 수입과 그것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차액이다. 소득이 경제적 능력의 가장 확실한 지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국가는 소득을 지표로 삼아 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소득은 그 원천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민간기업의 노동자와 국가공무원들은 근로소득을 얻는다. 의사, 변호사에서 동네 중국 음식점과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을 얻는다.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긴 사람은 이자소득을,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배당소득을 얻는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상속과 증여를 받기도 하고 운이 좋은 사람은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대박'을 터뜨리기도 한다.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이처럼 다양한 원천에서 얻는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전부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학 세계의 합리적 개인은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개인이 세금 많이 내는 걸 즐거워할 리는 없다.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기업인들은 절세라고 한다. 들킬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들킬 경우 당할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때는 아예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고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걸 다 찾아낼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탈세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회계장부를 비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나 공무원들이 얻는 근로소득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드러난다. 봉급생활자를 가리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액수를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단기순이익을 줄임으로써 소득을 감춘다. 사업장 위층에 살림집을 차려두고 자동차에서부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까지 사업과는 무관한 소비지출까지 모두 영업비용으로 떠넘기는 관행도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파악되는 근로자의 소득과는 달리 국세청은 자영업

자의 소득을 많아야 30%정도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액은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고액소득자들은 불평을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세가 시장이 만든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의로운 세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득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과세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한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득세는 정직한 납세자를 구박하고 절세와 탈세에 능한 거짓말쟁이를 우대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일부 과격한 경제학자들이 세무행정의 기초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차라리 소득세를 없애버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시민 개개인의 납세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일정기간에 획득하는 소득의 총액이다. 어디에서 나온 어떤 형태의 것이든 상관없다. 따라서 그 사람이 일정기간에 획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친 액수를 납세능력의 지표로 삼아야하며 원천과 종류에 따른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더불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도 함께 얻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합친 종합소득에 과세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과 세액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비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과세로 덕을 보는 건 물론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부자들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론적으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빌미 삼아 예정되어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슬그머니 연기해 버린 것은 고위 경제 관료와 국회의원 등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자신이 금융소득 분리과세로 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소득은 또한 수입과는 다르다. 소득을 얻는 데는 비용이 들어간다. 예컨대 근로자는 출퇴근을 하는데 돈을 써야하고 자영업자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비용을 쓴다. 소득은 개인이 얻는 수입에서 그러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와 회계장부를 비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그나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수월하다. 하지만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공중파 방송의 프리랜서 진행자가 한 해 동안의 수입을 신고하면 그 중 일부를 비용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간 4천만원까지는 수입액의 35%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65%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4천만원 이상은 45%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자영업자의 종합소득 신고기간인 5월경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붐빈다. 거기 가면 직업별 표준소득률표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을 수백 개의 직업군으로 분류해서 모든 직업군에 대해 서로 다른 표준소득률을 정해 놓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비치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해마다 100조원 이상의 세금을 거두는 국세청의 눈으로 보면 '보잘 것 없는 규모'인 자영업자들이 회계장부를 성실하게 기록하는지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직업의 종류에 따른 자영업자 표준소득률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고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알 길이 없다.

소득이 그 자체로서 납세능력의 척도가 되기 어려운 요소는 또 있다, 똑같은 소득을 올리

는 사람이라도 처한 상황이 다르면 납세능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을 받는 증권회사의 유능한 직원이 둘 있다고 하자. 그런데 하나는 독신인데 다른 하나는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는 6남매의 장남이며 아내와 아이 셋이 딸려있고, 중증 장애인 동생까지 돌본다고 하자. 두 사람은 소득이 같지만 납세능력은 천양지차다. 독신 직원은 소득세를 다 내고도 스포츠카를 몰고 다닐 만큼 여유가 있겠지만 가련한 6남매의 장남은 아마 세금을 낼 여유가 거의 없을 것이다. 소득세는 물론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 부양가족의 수, 자녀의 학비, 부양가족의 장애 여부 등등을 고려해서 일정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하고 세액을 감면해주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해주는 일은 매우 번거로우며, 이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거론한 바 있는 과세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보면 소득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과세의 대상인 소득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징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 탈세로 표현되는 납세자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모든 문명국이 누진소득세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이 경제적 능력을 가장 또렷하게 반영하는 지표이고 다수 국민들이 시장이 만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공정한 제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재산이다. 재산은 소득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우선 재산은 모두 과거 소득의 산물이다. 과거의 소득을 모두 소비해버린 사람은 재산을 모을수가 없다. 재산은 또한 미래의 소득과 관련되어 있다.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등은 미래에 소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

재산은 경제적인 힘이며, 사회적인 권력이다. 때로는 정치권력까지 따라온다. 재산이 많을수록 납세능력이 크다는 건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재산을 납세능력의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나라는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론적, 실제적 난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세율도 별로 높지 않다. 그것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 내포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탓이다.

다음은 납세능력의 세 번째 지표인 소비를 살펴보자. 저축과 재산 형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현재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미래의 필요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에 세금을 물리면 결국 능력대로 조세분담을 하게 된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서도 소비를 적게 하는 구두쇠는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들 어쩔가. 저축한 재산을 저축까지 가지고 갈 리는 없지 않은가. 그가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다고 해서 유산을 상속받은 자식들까지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누군가 저축한 것은 언젠가 다른 사람이라도 반드시 소비하게 된다는 말이다.

소비세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물건값과 함께 세금을 지불하면 판매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간접세다.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특수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판매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덧붙이는 부가가치세, 건강에 해로운 기호품에 매기는 주세와 담배세, 자동차를 비롯한 값비싼 소비재에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 등등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는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하다. 소비하는 사람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소비세는 장점이 무척 많은 매력적인 세금이다. 아담 스미스의 네 가지 원칙에 비추어보면 분명 그렇다. 소비세는 우선 평등하다. 모든 시민은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소비

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어떤 예외나 특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세는 무엇이 과세대상이며, 얼마의 세금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확실하다. 소비세는 또한 편리하다. 너무나 편리해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소비자는 자기가 소비세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는 것은 물론이요 세금을 낸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조세저항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소비세는 게다가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건 기업이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만큼, 기업이 소득을 숨기기 위해 거래기록을 없애버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탈세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 누가 얼마를 소비하는지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를 감시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세만큼 좋은 세금이 없다.

—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돌베개

■ 저축은 미덕이 아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편협한 경제이론에만 사로잡혀 제국주의를 경제학과는 무관한 현상으로 도외시한 데 반해 홉슨은 자신이 경제학자였던 탓으로 온갖 탐욕과 야심으로 뒤범벅된 제국주의적 정복의 과정을 더욱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18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자본주의의 독점화를 눈여겨 보았고 극소수의 손에 집중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가 끔찍한 재앙의 씨앗임을 예감했다. 그때까지 자본주의가 낳은 소수의 풍요와 대중의 빈곤이라는 현상은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논란거리였을 뿐이다. 그런데 홉슨은 이 문제가 자본주의 그 자체에 되돌려주는 경제적 영향을 문제 삼았다.

19세기의 경제학은 생산과 소비의 자동적 일치를 정식화한 세이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생산된 것은 모두 소비될 수 있다. 모든 생산물은 지대, 이윤, 임금으로 나누어져 지주, 자본가, 노동자의 소득이 된다. 지주와 노동자가 모든 소득을 소비하고 자본가가 쓰고 남은 소득 즉 저축된 부를 투자한다. 그런데 홉슨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노동자는 자기의 소득을 다 소비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다르다. 그의 소득은 너무나 커서 아무리 사치를 해도 남는다. 이것은 '자동적인 저축'이다. 세이의 말대로 자본가가 저축을 투자하여 소비재를 생산한다고 하자. 그런데 일반 대중은 그 모든 상품을 다 구입하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똑똑한 자본가라면 이미 재고가 쌓인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투자할 리가 없다. 예컨대 창고가 이미 재고품 구두로 가득 찼다면 그 구두공장 사장은 자신의 은행구좌에 든 저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의문은 일찍이 맬더스가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반 세기 이상 앞서 문제를 발견한 이 천재적인 목사는 "지주들에게 더 많은 지대를 주어서 소비를 늘리게 하자"는 괴상한 처방을 내놓은 탓에 경제학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고 따라서 그의 올바른 진단까지 무시당하고 말았다. 홉슨은 자본가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해결책은 해외투자이다.

모든 곳에서 과잉생산 능력, 투자할 곳을 찾는 과잉자본이 나타난다. 그들 나라에서 생산능력이 소비보다 더 빨리 성장한 것, 이익을 남기고 팔기에는 너무 많은 재화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자본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기업가들은 인정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조건이 '제국주의의 뿌리'를 형성한다.

국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유럽의 대자본은 더욱 높은 이윤을 찾아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에 그 촉수를 뻗친다. 그런데 홉슨의 이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잉생산 공황이라는 자기모순에서 빠져 나오려는 자본주의 열강의 몸부림은 전쟁과 유혈을 부른다. 그들이 정복할 수 있는 지구의 표면은 무한하지 않아서 새로운 영토와 더욱 넓은 시장을 얻기 위한 그들의 노력 또한 한계에 봉착한다. 19세기 말까지 전 세계를 완전히 분할 점령한 제국주의 나라들은 마침내 이미 경쟁 상대가 차지한 땅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다. 그리하여 인류의 머리 위에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가져올 제국주의 세계전쟁의 음험한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이 피비린내 나는 세계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홉슨의 이론은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다. 홉슨으로부터 '기생충'이라는 비난을 받은 제국의 건설자들—호전적 정치인과 군의 지휘자와 대자본가들—은 신성한 종교적 열정과 애국심을 모욕하는 그의 이론에 분개했다. "채락과 고통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조화로운 자유시장"이라는 감미로운 세계관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경제학자들은 홉슨이 경제학을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사회현상과 뒤범벅을 만들어버렸다고 조롱했다. 그들의 이론 세계에서 식민지 획득은 보이지 않는 손의 축복을 받는 자유시장의 확대이며, 그것은 식민지의 주민들에게도 풍요한 미래를 가져다주는 문명의 세례였다. 그곳에는 '제국주의' 따위의 생소한 개념이 차지할 자리가 없었다.

이러한 냉대를 감수하면서 평생 이단자임을 자처했던 홉슨은 제2차 세계대전의 불지옥이 인류의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던 1940년대에 세상을 떠났다. 유럽의 상류사회는 대공황과 두 차례의 제국주의 세계전쟁을 겪고서야 홉슨의 선견지명을 인정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는 그의 사망 기사를 보도하면서 홉슨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법 상세한 해설 기사를 실었는데, 이것이 아마도 이 탁월한 경제학자가 받은 가장 후한 대접이었을 것이다.

—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나무

5 장 가치판단과 윤리

I

주제 특강

■ 가치의 종류와 등급

가치의 개념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탐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대상이 지닌 속성에 관계될 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적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더구나 대상에 대한 인간이 인식이 심화하면 할수록 가치 개념이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가치의 종류와 등급이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함축한다. 가령 플라톤이 <향연>에서 아름다운 대상과 아름다움 그 자체를 구분하고 후자를 상위에 놓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된다. 또한 칸트가 진·선·미·성의 문제를 나누고 별도로 다룬 것은 중추적 가치의 상대적 자율성을 함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르면 가치는 같은 수준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가치와 동일시되거나 하나로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우리는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한 도구로서만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심미적 경험이나 지식의 획득 같은 것은 전자에 속하지만, 금전이나 재산 또는 권력이나 명예 등은 후자에 속한 것이다. 물론 좀 더 높은 가치를 위한 도구로 쓰일 때 명예나 지식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보편적 가치와 배타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전자는 이미 말한 중추적 가치와 지식, 우정, 사랑 등 정신적 가치를 말하고, 후자는 권력, 재산, 금전 등 물질적 또는 세속적인 가치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본래적 가치도 고급과 저급으로 나눌 수 있다. 가령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 말하자면 갖가지 놀이나 육체적 건강, 사회적 유대, 경제적 노동이 후자에 속하며 앞서 말한 인식적, 윤리적, 심미적 및 종교적 가치는 전자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가치들의 종류와 등급은 인간의 문화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제도를 특징짓는 데 근거가 되었다. 가령 사랑과 우정, 성에 등과 관련된 가치들은 가정이나 가족의 형태를 규정하였으며, 식량과 거처, 재산이나 재해에 대한 요구가 산업 양식을 촉진시키기도 한 것이다. 또한 안전, 질서, 협동에 대한 요청이 정부의 형태와 국가의 유형에 영향을 미쳤고 진리에 대한 열망과 참된 인식의 갈구가 과학적 탐구를 촉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심미적 가치의 표현이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탄생시켰고 신비적 가치에 대한 경외감이 종교적 경험으로 승화해 각종 종교의 원천이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가치판단은 단순히 대상과 주관의 작용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간이 사회적이고 아울러 역사적 존재인 한, 우리는 이미 전통적 언어, 습관, 제도의 그물에 갇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형적 구조는 가치의 선택을 어느 정도 규격화하고 또 인습

화하는 경향이 있다. 가치의 종류와 등급이 규정되는 것도 이러한 구조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가치의 종류와 등급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본래적 가치가 도구적 또는 외래적인 가치보다 중요하며 생산적이고 영속적인 가치가 소모적이며 순간적인 가치보다 선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앙과 예술과 우정, 지적 탐구 등 정신적이고 지성적인 가치가 재산과 권력, 육체적 쾌락의 탐닉 등 물질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보다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플라톤을 비롯하여 많은 철학자들은 이러한 구분에 관심을 쏟고 가치를 체계화했을 뿐만 아니라 선호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령 에피큐로스(Epicuros)는 쾌락(hedone) 가운데서 고통을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것을 나누고 후자를 추구하는 것이 쾌락주의자의 의무임을 역설하였고,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투스(Epictetos)도 가치의 추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마음의 평정을 얻은 방법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특히 근대의 공리주의를 완성시킨 밀(J.S. Mill)은 정신적이고 지성적인 쾌락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보다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그의 <공리주의>에서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의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의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주장함으로써 가치의 체계에서 질적인 등급이 있으며 고급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의무임을 명백히 했던 것이다.

— 우리말 철학사전, 우리사상연구소 엮음, 지식산업사.

■ 윤리란 과연 무엇인가?

1. 윤리학(倫理學 : ethics)의 의미와 어원

윤리학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의 '윤(倫)'자에 대한 사전적인 풀이를 보면, 사람 인(人)에 바퀴 른·등글 른(倫)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무리(類)·또래(輩)·질서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倫)'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무리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원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리(理)'자는 '구슬 옥(玉)'에 '마을 리(里)'가 합쳐진 자입니다. 마을 '리(里)' 또한 '흙 토(土)'에 '밭 전(田)'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구슬은 광석으로 채굴됩니다. 이 광석을 일정한 원리와 질서에 의해서 절차탁마(切磋琢磨)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구슬이 됩니다. 마을이 형성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을 찾게 되었고, 땅(土)을 갈면서 밭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마을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스릴 리(理)'자에는 '이치·이법(理法) 또는 도리' 등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물리(物理)가 사물의 이치인 것처럼 윤리는 인간 관계의 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리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원리·규칙에 대한 학문을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구별 없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도덕(道德)이 사회구성원들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규범의 총체라고 할 때,

도덕은 윤리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나 도덕의 이론적 성찰이 '윤리학'입니다.

2. 윤리의 성립 조건

이 윤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너는 왜 도둑질을 했느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사회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사회는 또한 일정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갖는 생활 방식에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 수 있는 생활방식으로는 관습(慣習)·도덕(道德)·법률(法律) 같은 것이 있습니다. 관습이나 도덕·법률은 다 같이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이 무자각적이고 습관적인 데 비하여 도덕이나 법률은 자각적인 행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에 치우치고 법률은 행위의 외면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 재미있는 철학수업, 이수석, 철학과 현실사.

■ 역사관

역사가의 역사에 대한 의식. 즉, 역사적 고찰을 할 때의 일반적 통일 이념을 말하며, 단순히 '사관(史觀)'이라고도 한다.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볼 때, 역사가 자신의 고유의 입장, 과거의 사실 가운데서 어떤 사실을 선택할 때의 기준, 그것을 해석할 때의 해석 원리, 그 사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역사관이다. 그러나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이 사실들이 통일성을 결여하게 되면, 단순한 사실의 집적이나 연대기(年代記)가 될 우려가 있다. 역사 서술의 형식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어떤 형식·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서술 전체를 일관하는 통일된 사상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 예로 중세 서양을 지배했던 그리스도교적 종교 사관은 르네상스 이후, 자연 과학의 발달로 인한 역사에 대한 사고 방식의 변화로 쇠퇴하고, 신과 인간과의 주종관계는 자연과 인간과의 대립 관계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후 역사관도 크게 변화한 것이다.

■ 역사의 목적

역사는 인간의 자기 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일 것이다. 이 말은 자기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아는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기 본질을 안다는 의미이며, 자기 자신을 안다 함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이를 시도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을 아는 유일한 길잡이는 과거에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해 왔는가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역사의 가치는 '인간이 무엇을 해 왔는가', 그리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인문과학의 만남, 한철우 외 엮음, 문원각.

■ 칸트에 의하면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실천이다.

칸트는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역사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 속의 모든 사물은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소질을 언젠가는 완전하게 드러내며, 스스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자연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곧 인간의 완성이다. 자연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인간을 완성해 나가며, 이러한 완성 과정이 곧 역사인 것이다.

자연이 일정한 법칙과 질서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개인과 국가의 역사도 법칙에 따라서 진행된다. 즉 인간의 역사는 그것이 개인의 것이든, 집단의 것이든 각자의 소질과 드러나지 않은 자연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혼란스러움은 역사의 진행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만약 우리가 자연을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맹목적인 우연이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연의 계획을 완성하고 의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곧 역사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칸트는 역사의 규칙적 진행을 아는 것은 이성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이성은 역사가 단순한 사건과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진행되는 긴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자연은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바로 자연은 쓸모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연에게 계획과 의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성과 자유의지야말로 그에 의하면 자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 발전의 도구이다. 자연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역사 발전이란 앞 세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함으로써, "자연이 계획하는 건축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개별자의 삶과 한 세대의 역사는 인류라는 더 큰 공동체의 보편적 역사를 위한 부분들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개체보다는 사회와 인류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며, 한 시대의 구체적인 현실 역사보다는 인류의 보편성을 위한 계몽의 역사가 더 절실한 역사이다.

— 철학 용어 용례사전, 박해용, 심옥숙, 돌기둥.

II

기출 문제

■ 가톨릭대(2004대입,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 의예과, 간호학과)

【문제】(가)~(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혹은 가치관의 갈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가) 우생학(優生學)은 1883년 영국의 골턴이 창시한 학문으로, 유전학, 의학, 통계학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지닌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우생학의 목적이다. 유전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생하는 모든 조건과 인자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한편, 우생학을 기초로 하여 유전성 정신 결함, 유전성 기형, 혈우병 등의 환자를 강제 또는 임의 단종(斷種)하는 우생 법안이 제안되어 여러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바가 있다.

(나) 20세기 초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간질 환자에게 결혼을 제한한 경우도 있고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결혼을 금한 경우도 있다. 그 후 여러 주에서 단종법을 제정하여 정관절제술, 고환절제술, 난소절제술 등의 우생학적 불임 시술을 실시했다. 단종법은 1913년에 모두 1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가운데도 찬성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한다. 첫 단종의 대상은 정신지체자였다. 버지니아 주의 한 순회재판소가 간질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여성에게 자궁관절제술을 받도록 명령을 내렸고 주 법원도 이 명령을 추진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의 대리인이 대법원에 이 판결을 위헌이라고 상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의 가벼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며, 이 환자의 집안은 3대에 걸쳐 계속 정신지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버지니아 주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10년부터 3년 동안 268명이 단종 수술을 받았다. 여기에는 정신분열병 52명, 조울정신병 106명, 알코올성 정신병 23명, 간질 22명, 정신지체 32명, 편집증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고등 인종인 아리안 민족의 피가 하등 인종의 피와 섞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히틀러는 집권 이듬해에 우생학적 법률인 '유전 위생법'을 공포했다. 그로부터 열두 해 동안 나치는 유럽 점령 지역에서 유대인, 집시 수백만 명을 살육했다.

(라) 1960년대부터 우생학은 부활의 기지개를 켜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속속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3년 봄에 있는 헌팅턴 병의 유전자 확인 발표는 이 분야에서 거둔 가장 위대한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생학을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생학의 발전으로 유전적 질병이 유발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발판이 마련되었다.

(마)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다운증후군 환자는 특이한 외모와 정신박약 등의 특징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희생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태아에 대한 우생학적 시술은 전 세계의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운증후군 환자 자신은 이 질환의 특성상 짧지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다. 또 대부분 부모와 형제자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주의사항>

1. 900~1000자의 분량으로 서술하시오.
2. 4~5개의 문단으로 서술하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 성균관대(1999 대입)

【문제】 다음의 제시문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화자(話者)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것]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 요지와 논거를 간략히 밝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오늘의 현실과 관련하여 논하시오.

【제시문】

선생께서는 양이나 소를 치는 이들이 양이나 소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찌게 돌보는 것은 주인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서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생께서는 참된 의미의 통치를 하는 이들이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 쓰는 것은 사람들이 양들을 대할 때와는 어떻게든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통치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보게 될 것과는 그래도 다른 어떤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께서 올바른 것과 올바름,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르지 못함에 관해서도 그토록 감감하셔서 다음과 같은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실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올바름과 올바른 것이란 실은 [남에게 좋은 것], 즉 더 강한 자와 통치자에게 편익인 것이지만 복종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인 반면에, [올바르지 못함]은 그 반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편익인 것을 행하여 그를 섬기며 행복하게 만들지언정 결코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히도 순진하신 소크라테스 선생이시여,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 올바른 이는 올바르지 못한 자보다 어떤 경우에도 [덜 가진다]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첫째로, 상호간에 계약 관계를 맺고 협력하다가 그 관계를 해지할 경우에, 올바른 이가 올바르지 못한 자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걸 선생께서 목격하실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지만 [덜 차지하는] 걸 목격하실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라에 세금을 낼 일이 있을 때에 같은 재산을 근거로 해서도 올바른 사람은 더 많이 내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덜 내거니와, 나라에서 받을 것이 있을 때에는 한쪽은 아무 이득도 못 보지만 다른 쪽은 많은 이득을 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저마다 어떤 관직을 맡고 있을 때에도, 올바른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 집안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집안형편을 한결 더 어렵게 만들지언정 그의 올바름 때문에 국고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친척들이나 친지들을 부당하게 도와 주려고 하는 일이 전혀 없고 보면, 이들에게서 미움마저 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이와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 하려는 사람은 방금 말한 사람, 즉 남들보다 크게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선생께서 올바름보다 올바르지 못함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얼마나 더 이로 운지를 진정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선생께서 무엇보다도 제일 쉽게 이를 이해하시게 되는 것은 가장 완벽한 상태의 올바르지 못함을 생각해 보시는 경우입니다. 그건 올바르지 못한 것을 한 자를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지만, 반면에 그걸 당한 이들이나 그런 것이라곤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정말 비참하게끔 만드는 경우입니다. 참주(僭主) 정치가의 경우인데, 이는 남의 것을 신성한 것이건 세속의 것이건 개인의 것이건 공공의 것이건 간에, 몰래 그리고 강제로 빼앗기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깡그리 하죠. 이런 올바르지 못한 행위들의 일부를 어떤 사람이 몰래 해내지 못할 때, 그는 처벌을 받고 큰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신전(神殿) 절도범, 납치범, 가택 침입 강도, 사기꾼, 도둑이라 불리는 것은 이와 같은 못된 것들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시민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마저 납치하여 노예로 만들게 될 땐, 그런 부끄러운 호칭 대신에 행복한 사람이라거나 축복받은 사람이라 불리지요. 비단 자기 나라의 시민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면적인 불의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도 말입니다. 올바르지 못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상 그걸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행하는 것을 꺼려해서가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니까요.

소크라테스 선생, 이처럼 올바르지 못한 것이 큰 규모로 저질러지는 경우에는, 그것은 올바름보다도 더 강하고 자유로우며 전횡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것은 더 강한 자의 편익이지만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신을 위한 이득이며 편익입니다.

<유의사항>

1. 글의 길이는 1200자 내외로 할 것(120자 이상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는 감점됨)
2. 글의 제목이나 이름 등 자신의 인적 사항에 관련된 것은 일절 쓰지 말 것.

다음 제시된 네 개의 지문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묶일 수 있는 글들이다. 다음 글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치의 의미', '윤리와의 관계성', '가치판단의 바른 기준'에 대해 논술하시오.

(가) 1940년대 초 핵분열은 원자의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실험 방법에 불과했다. 이것이 수없이 많은 우연한 사건, 인물들과 교차하면서 가공할 폭탄제조로 발전했다. 1938년 이탈리아 과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스웨덴으로 노벨상을 받으러 갔다가 그 길로 미국에 망명했다.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고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은 반유대인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페르미는 그 후 시카고 대학에서 핵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했고 최초의 원자로 설개로 원자폭탄 제조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1938년 말 독일에서 오토 한 등이 핵분열 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에 망명한 과학자들은 독일이 엄청난 신병기를 갖게 될까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헝가리 출신의 레오 지러드는 1939년 여름 휴가 중이던 아인슈타인을 찾아갔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핵분열에서 신무기가 개발될 수 있다는 가설을 부정했다. 그러나 후배들의 설득에 마지못해 미국 정부에 경각심을 주자는 생각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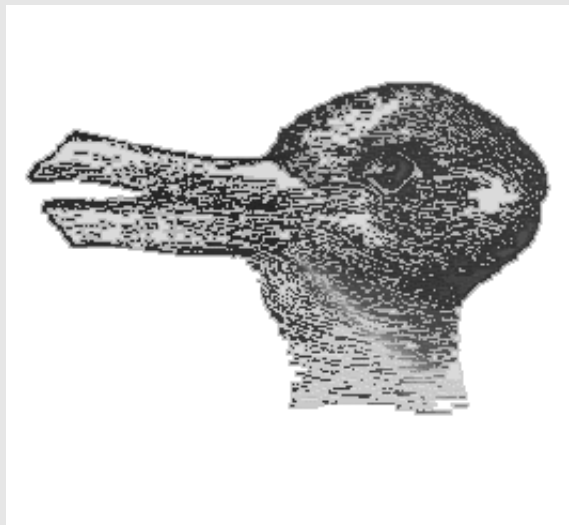
"핵분열로 놀라운 에너지가 나올 수 있으며 독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이 원자탄 개발에 실패할 줄 알았다면 편지를 쓰지 않았을텐데……."하고 후회했다.

(나-1)



(나.2)



(다) 역사의 현재성이 무엇인가를 옳게 알려면 사실(事實)과 사실(史實)을 구별하여 생

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류 생활의 과거에는 수많은 일들, 즉 사실(事實)들이 일어났다. 수많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한 집단, 한 민족의 지난날에도 도저히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역사란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그야말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들을 뽑아 모은 것이 사실(史實)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물에 대한 가치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역사적 입장에서 판단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며, 따라서 일단 사실(事實)로 선택되었던 일이 다른 시대의 현재적 요구에 의하여 사실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또 그 사실(事實)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속에서 사실(史實)을 뽑아내는 일에만 역사의 현재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선택된 사실(史實)이 다시 사실로 떨어져 버리는 일도, 그리고 뽑아진 사실(史實)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모두 그 때마다의 현재적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역사의 현재성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서 구할 수 있다.

역사의 현재성 때문에 사실(史實)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이해하고 나면, 이와 같은 현재성에 의한 변화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시대에 따라 사실(史實)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즉 그 객관적 진실성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또 인류 역사의 올바른 발전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에 일어났던 가지가지의 사실(史實)들은 인간의 무지나 권력의 횡포, 혹은 종교적 독단에 의해 그 객관적 진실성이 많이 엄폐되어 왔다. 일식과 월식이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하늘의 의지로 생각되었는가 하면, 종교적 독단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이라는 믿음이 강요되기도 했고, 정치적 권력의 강제에 의해 역사란 지배자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 가르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역사 시대를 통해 인류는 기성의 역사관과, 요구된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그 때마다의 새로운 가치관을 수립해 나감으로써 사실(史實)의 선택이나 해석에 있어서 항상 그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과 희생을 다해 왔다. 그 때마다 역사는 새롭게 선택되고 해석되어 온 역사적 과거의 집적이며, 사실(史實)에 대한 진실성 추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역사는 항상 새롭게 이해되고 기술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사실(史實)의 객관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기준이 바로 역사의 현재성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 진실성이란 결코 선형적이고 영구 불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적 입장에 선 사가들의 사관에 의해 항상 새롭게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으며, 그 사관은 곧 시대성·현재성에 의해 규제됨으로써 객관성이 추구될 수 있는 것이다.

(라) 우리는 의지가 움직이는 쪽에 항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가치를 의지라는 화살의 과녁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만약 어떤 대상이 의지의 표적이 되어 우리를 그쪽으로 또는 그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과녁으로서 대상 자체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좋은 것으로 향한 의지이면 선한 의지가 되고 나쁜 것으로 향한 의지이면 악한 의지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뒤집어서 말할 수도 있다. 즉 악한 의지가 지향하

는 대상이면 나쁜 것이고 선한 의지가 지향하는 대상이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추(美醜), 진위(眞僞), 성속(聖俗)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일단 의지의 표적이 되면 하나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삶이 의지의 표현이고 이러한 표현은 가치의 추구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삶의 양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라는 개념을 삶의 핵심적인 정신작용이며 행위를 촉발시키는 동기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대면하는 온갖 종류의 경험 내용을 모두 가치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가치의 유형을 규정하는 것은 곧 경험의 내용물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가치는 주관과 대상 사이에서 맺어지는 일종의 상관관계이다. 그러므로 가치의 종류는 주관 또는 자아로부터 어떤 종류의 의지가 발동하여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는지, 다시 말해서 자아와 대상 사이에 어떤 유형의 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따라 가치의 종류가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와 이웃 사이에서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발동하면 사실적인 가치가 나타나며 자연의 오묘한 조화에 경외감을 갖고 조물주를 섬기려는 의지가 발동하면 종교적인 가치가, 그리고 농촌의 한가로운 풍경에서 아름다움을 느껴 작품으로 표현하려는 의지가 발동하면 예술적인 가치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밖에도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정치적, 법적, 군사적 가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예술적 차원에서도 음악적, 회화적 또는 조형적 가치 따위를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윤리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들이 서로 교차하고 섞여 있는 현상을 목격할 것이며, 사실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그리고 종교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아가 어떠한 종류의 의지를 발동하여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이며, 또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대상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요컨대 모든 가치는 자아가 대상과 맺은 관계의 의지적 표현이며 그 관계의 양상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유의사항 >

1. 글의 제목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제목을 달 것.
2. 네 개의 제시문 모두를 적절히 활용할 것.
3.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 것.
4. 띄어쓰기 규정을 준수할 것(2000자 내외 ± 200)

■ 생각해 보기

♠ 네 개의 제시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봅시다.

♠ 문제에서 요구한 가치와 윤리가 제시문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가치 판단 기준을 어떤 입장에서 정리해야 될 지를 제시문 속에서 찾아봅시다.

♠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봅시다.

1. 출제 의도

인간다운 삶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다. 오늘날의 시대를 현대, 정보화 시대라고 말한다. 현대, 정보화가 의미하는 것은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는 기술적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비해 인간의 의식은 그에 부응하지 못한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성숙한 삶이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 문제는 시작된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가치추구의 삶이다. 또한 선택한 것의 정당화하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식이 바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어떤 기준'을 토대로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학생들이 고민해보자는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이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논제 파악

(1) 문제의 이해

이 문제의 핵심 논제는 '가치와 윤리'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라고 했으므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치의 의미'가 논술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조건'이 이 문제의 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각 제시문의 핵심의미 찾고 공통점을 발견하기

둘째, 각 제시문의 핵심의미 중 가치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 요소 찾기

위 두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제는 각 제시문이 의미한 핵심 내용을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2) 논점 찾기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늘 당시의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적 가치관 또는 절대적 가치 중심으로 시대가 이끌어져 왔다. 21 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그 만큼 과학과 기술이라는 영역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로, 한 시대의 지배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삶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제시

문(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가치는 있으나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가치, 바로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나), (다), (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시문(가)에서 언급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치의 의미와 윤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려져야 할 바람직한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두 번째 논점을 바람직한 삶을 위해 고려해야 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문제해결

논점을 파악했다면 논술의 반은 된 셈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논점과 관련한 기초 내용을 제시문에서 찾아내는 일이다. 이에 앞서 출제자는 왜 이 제시문들을 제시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각각 다른 글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보자. 답은 어디 있을까? 바로 '문제'에 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분명 가치와 윤리 그리고 판단기준 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제시문 중 가치와 윤리에 관련한 부분,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로 나눠보자.

가치와 윤리에 관련한 부분은 제시문(가)이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평가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제시문 (나)에서는 같은 그림일지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출제자가 이 그림을 제시한 이유는 어떤 근거를 찾으라고 한 것일까를 생각해보자.

제시문 (다)에서는 수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 가치를 띄는 것은 현재적 입장에서 해석되었을 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치의 현재성과 시대성을 언급한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가치 있다는 것'도 해석하는 주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라)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치'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가치의 종류를 들어 말하고 있다. 또한 이 가치들을 자아와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성을 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4. 예시개요

• 서 론

① 2차대전 직후 미국이 일본의 생체 실험 결과물을 사들였다는 기사가 보도됨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부각

②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윤리적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음

③ 가치의 의미를 통해 윤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인간의 삶에 있어 가치 판단의 기준 제시의 필요성

• 본론 1 : 가치의 의미

① 가치는 인간의 의지와 개인이 추구하는 세계

→ 모든 인간은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제시문 라)

② 윤리적인 문제가 배제될 수 없는 관념

→ 인간의 가치는 언제나 '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시문 가, 황우석 박사 사례 제시)

• 본론 2 : 바람직한 삶을 위한 가치의 기준 제시

① 인간 보편의 가치를 중시

→ 상대적인 가치의 지나친 추구는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간과한 것임

→ 보편적 가치에는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② 다양한 시각에서 가치를 바라보아야 함

→ 치우친 관점보다 내 가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함 (제시문 (나), (다) 사용)

• 결 론

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임

② 바람직한 가치 설계는 우리 사회를 좀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줌

③ 바람직한 가치 추구 촉구

5. 예시 답안

얼마 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종전 2년 후 일본의 731부대로부터 생체실험 자료를 얻기 위해 부대원들에게 거액의 돈과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누가 뭐라든 생체실험의 결과물은 의학 발전에 가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잔혹한 생체 실험을 누구도 바람직한 연구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실험 결과의 이용 가치만을 중시했을 뿐 인권 존중이라는 윤리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실험을 통해, 가치는 있으나 비윤리적인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리적이지 않다 해서 그 가치마저 무의미한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진정한 가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와 윤리와의 관계 정리를 통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치의 의미는 인간의 의지와 각 개인이 추구하는 하나의 세계이다. 인간은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 속에 그 개인이 귀속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불쌍한 이웃을 도우며 살겠다는 가치를 가지고 평생의 희생과 봉사 속에서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이는 예술을 위해 몸 바쳐 사는 이도 있다. 반면, 어떤 이는 물질적인 만족감에 가치를 두고 '부'를 위해 삶을 살기도 한다. 이 밖에도 종교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 수없이 많은 가치들이 공존한다. 이는 제시문 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이란 다양한 가치 속에서 끝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한편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 사회의 유지와 질서를 위해 우리는 법과 윤리를 만들었다. 법은 타율적인데 비해 윤리는 자율적이며 각 개인이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야 할

문제들이다.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윤리적인 문제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치는 늘 '선'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악'한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악한 의도가 아니었지만 후에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제시문 가)에서처럼 아인슈타인이 만든 핵분열은 과학적 가치가 큰 것이었지만 히로시마 원폭 투하라는 인명살상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 황우석 박사의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도 난치병 치료와 생명과학에 큰 발전이지만 생명 경시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배제한 인간의 가치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한 것이다. 문제는 제시문 라)처럼 모든 가치가 자아와 대상이 맺은 관계의 의지적 표현이므로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럼, 가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 절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요즘의 우리들은 각자의 가치에 사로잡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한때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 유영철에게서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할 수 있다. 유영철은 단지 한 여자에게 버림받고 사회에 그 불만을 살인이라는 행위로 표출했다. 유영철은 '사회, 여자에 대한 복수·응징'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가치를 간과한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절대적 가치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으로면서도 윤리와 부응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가치를 한 가지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가치를 한 가지 눈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 가치에 대한 시각이 편중됨으로써 바람직한 시각을 가질 수가 없다. 제시문 나)에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함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 쪽의 시각에서만 볼 때,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다) 제시문처럼 여러 시각에서 그 가치를 바라봄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대상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며, 사회는 질서 있게 유지될 것이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추구하는 가치가 없다면 삶의 의미도 없는 것이 된다.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감으로써 사회는 생명력을 얻게 된다. 바람직한 가치 설계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까지도 풍요롭게 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해 주며,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가치 설계는 상대성은 인정하되 보편적인 윤리에서 벗어나선 안 되며, 제 나름대로의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V

읽기 자료

■ 장자와 가치의 문제

현대는 상대적 가치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선 양면성의 가치를 살펴보자.

인간의 양면 가치는 인간사 그 자체이다. 사물을 보는 인간의 눈은 양면적이어서 사물, 역사 등등도 양면성을 띠게 된다. 근원적으로 인간이란 과연 선에서 악으로 타락한 존재인가,

아니면 본성상 악하기에 선을 추구하는 것인가. 선악과(善惡果)란 정말로 신의 유혹이었던가, 아니면 애당초 인간이 만든 스스로의 영상인가.

사회의 한 면의 법조계의 예를 들어 보자. 베네딕트라는 독일 판사는 40여년에 걸쳐 무려 4만여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죽여 버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일과였던 것이다. 그는 매주일 교회를 빠지는 일이 없고 성경을 50회 이상 통독했음을 자랑으로 삼던 냉혈 판사였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은 자신의 애견(愛犬)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 때문이라 한다. 얼마나 아이로니컬한 일인가? 역사에서도 이러한 것은 나타난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전개하던 아테네의 광장,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을 논하던 리케이온의 산책로, 에피쿠로스가 아타락시아(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설파하던 아테네의 정원 등, 이 모든 것 밑에는 술한 노예들의 잔뼈가 묻혀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배려해야 한다. 사실 육신의 수고를 대신해 준 이들 노예가 없었던들 그토록 훌륭한 정신의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현재의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 남편의 사회적 출세 뒤에는 아내의 희생적 내조가, 학문적 성공을 이룬 사람의 뒤에는 가족의 숨은 노고가 있었다는 등등이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사에서도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는 위로와 함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저주를 함께 들으며 산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던 사람이 "쇠뿔도 단김에 빼렸다."며 다그치고,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던 격려가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는 만류도 돌변한다. 그러므로 과연 "아는 것이 힘"인지 "모르는 게 약"인지 알 재간이 없다. 또 여성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마도"를 의미하고, 여성이 "아마도"를 말하면, 그것은 "예"를 의미한다는 해학도 있다.

그 외에 세계관을 넓혀 주는 다음과 같은 상반되는 주장들도 있다.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결정론적 입장과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놀이를 할 뿐이다."라는 우연을 강조하는 양자 역학자들의 비결정론적 입장이 있다.

우리는 인간사 자체가 양면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동양 철학의 고전인 <장자>와 더불어 상대적 가치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갖게 되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갖는 형태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함에 있어서 미적 판단, 지적 판단, 기능적 판단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우리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점에서 판단을 고정시키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愚)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장자가 명가(名家, 논리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제자 백가의 하나)로 분류되는 친구 혜자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혜자가 장자에게 "자네의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야."라면서 반박하였다. 이에 장자는 그에게 "자네가 쓸데없음을 알기에 내 얘기는 '쓸데 있는' 것이네. 예를 들어 이 큰 대지 위에 자네가 서 있는 자리, 즉 설 수 있는 것은 겨우 발바닥 밑 부분뿐이지. 그렇다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이라 하여 발바닥 이외의 땅을 다 파버리면 자네가 선 땅덩어리는 존재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가?"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의 땅을 제외하고 모두 파내면, 자신은 오도가도 못함은 물론이려니와 땅이 밑으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결국, 쓸모 있음[用]은 쓸모 없음[無用]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무용과 유용은 현대의 생활 속에서 사물과 현상을 자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혹은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논변에 의하면 학문의 유용과 무용도 상대적이다. 가끔 사람들은 살기 바쁜 세상에 사상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학문의 유용성은 하나의 단면만으로 보고서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지식의 전수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함 그 자체이다. 생활 속의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무용의 유용, 유용의 무용은 인간 관계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용이라고 생각되고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용이라고 생각되고 판정 지어졌던 사람이 어는 시점에서 유용의 관점에 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하나의 예로 우리는 만남이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서로가 상대에 대한 필요성이나 절대성을 인식 못 하다가도,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서로가 상대에 대한 필요성과 절대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까이 있던 사람의 부재(不在),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갖게 하기도 한다. 우리는 장자의 예화에서 세속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한 차원 높은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희망은 우리에게 유유자적한 삶을 제시하여 마음의 평안을 다소 얻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타인의 존재 가치를 한 방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자기중심적 사고 방식을 고집하여 아집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타인의 가치를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삶의 일부분으로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심오한 가치 영역의 확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무용과 유용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자신과 타인, 모두를 관용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작품을 통해 본 철학이야기, 김향선, 선학사.

■ 소크라테스의 죽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제자들 : 재판은 불공정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 공정한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제자들 :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정한 재판이었다면 당연히 무죄판결이 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공정한 재판의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탈옥을 하셔야 합니다. 불공정한 재판에 항의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러나 탈옥은 불법 행위일세. 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우리가 탈옥이라는 불법 행위로 맞선다면 악을 악으로 상쇄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며, 더욱이 사람들은 재판의 불공정성보다 소크라테스가 탈옥했다는 것을 더 큰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일세. 불공정한 재판이 관심의 문제로 남아 있게 하려는 탈옥이라는 불법 행위로 그것을 상쇄시키지 말아야 하네. 그렇게 해 두어야만 사람들은 왜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던가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고, 왜 소크라테스는 그런 불공정한 재판으로 독배를 마시에 되었던가도 생각하게 될 것일세.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런 일에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지. 역사를 통해서만 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 말일세. 그런 역사적 의미는 불공정 판결을 내린 저들도 알 수 없는 일이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의미의 일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에는 언제나 있게 마련일세.(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그들이 하는 일의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다.)

— 부드러운 논리 아름다운 생각, 소홍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자료를 만든 분

- 감수 : 박 종 채 (광주광역시 교육국장)
- 총괄 : 박 광 희 (광주광역시 중등교육과장)
- 기획 : 최 윤 길 (광주광역시 중등교육과 장학관)
- 지도 : 이 승 오 (광주광역시 중등교육과 장학사)
- 집필 및 검토 :
 - 김 아 진 (과학고등학교 교사)
 - 이 규 연 (금호고등학교 교사)
 - 이 봉 형 (풍암고등학교 교사)
 - 장 홍 (광덕고등학교 교사)
 - 정 태 성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사)

논술 I

인 쇄 : 2005년 9월

발 행 : 2005년 9월

발행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발행인 : 김원본

인쇄처 : 성문당 (062-222-2555)

MEMO



MEMO



MEMO



MEMO

